

수능특강

국어영역 | 언어와 매체



이 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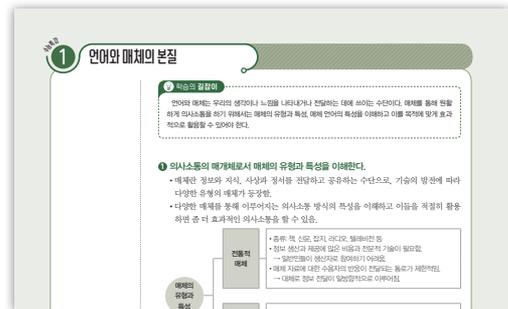
- 01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과목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및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된 여러 문항을 통해 다양한 제재와 유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02 ▶ ‘교과서 개념 학습 → 적용 학습 → 실전 학습’의 단계를 통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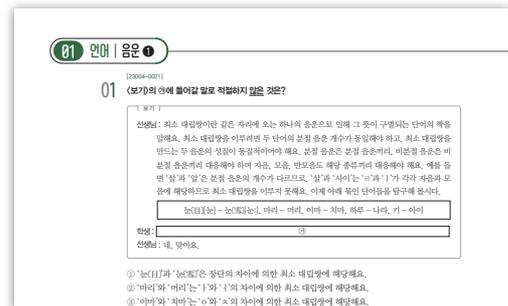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언어와 매체’ 과목의 기초를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교과서와 교육 과정의 주요 개념 및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로 이해하기’를 통해 앞서 설명한 개념 및 이론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답형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2부 적용 학습

‘언어’ 15강, ‘매체’ 12강, ‘통합’ 6강으로 구성되어 여러 유형의 수능형 문항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부 실전 학습

수능과 동일한 문항 수로 구성하였으며, 총 2회 분량을 수록하였습니다.

정답과 해설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실전 학습 ① (보기)

01 [23004-0001] (보기)의 (물동)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해설〕 다음 제시된 가사를 표준 발음으로 읽어 보며, ㉠~㉣에 대해 설명해 보자.
 “동해 물과 ㉠ 백토산이 마르고 ㉡ 달도물 ~ 가을 하늘 공황한데 ㉢ 높고 구름 없어 ~”
 (배두사시) (담도록) (농지)

① ㉢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의 음운의 전체 개수는 9개이다.
 ② ㉣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의 음운의 전체 개수가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③ ㉡에서는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④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⑤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1번 | 교과서 개념 학습

1. 언어의 매체와 본질 (보기)

01 (1) (가)는 (나)와 비해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느리고 유통 범위가 좁다.
 (2) (가)는 (나)와 달리 가사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시 제공하기 어렵다.
 (3) (가)는 (나)와 달리 다른 매체의 장점을 공유하거나 다른 매체와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상호 연결성이 약하다.

02 [A]: 영상
 [B]: 텍스트, 음유, 지형
 [C]: 연결
 [D]: 문자, 수동자

03 매체의 유형
 (가)는 전통적인 종이 신문으로, (나)와 같은 인터넷 신문에 비해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느리고 유통 범위가 좁다. 또한 종이 신문은

2번 | 국어의 당구어 활용

01

표준 대립범주가 되는 이유	표준 대립범주가 아닌 이유
(1) 초성 'ㄱ'과 'ㄴ'의 차이를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ㄱ'과 'ㄴ'
(2) 초성 'ㄱ'과 'ㄴ'의 차이를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ㄱ'과 'ㄴ'
(3) 초성 'ㄱ'과 'ㄴ'의 차이를 인해 뜻이 다른 단어가 되었다.	'ㄱ'과 'ㄴ'

02

조음 위치가 바뀐	조음 방법이 바뀐
(1) 아래	예
(2) 예	예
(3) 아래	예

03 줄이(줄은:ㄴ) 첫소리(ㄱ)받침(ㄹ)

학생 EBS 교재 문제 검색

EBS 단추에서 문항 코드나 사진으로 문제를 검색하면 푸러봇이 해설 영상을 제공합니다.

[23004-0001] 23004-0001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 3.

※ EBSi 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사진 검색은 EBSi 고교강의 앱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 교사지원센터 교재 자료실

교재 문항 한글 문서(HWP)와 교재의 이미지 파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교재 자료실

- 한글다운로드
- 교재이미지 활용
- 강의활용자료

※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 접속 후 '교사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언어와 매체의 본질	008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① 음운	012
② 단어	017
③ 문장	025
④ 담화/국어사	033
3강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040
4강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047

2부 적용 학습

언어 01~15	052
매체 01~12	110
통합 01~06	192

3부 실전 학습

1 회	218
2 회	230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교과서
개념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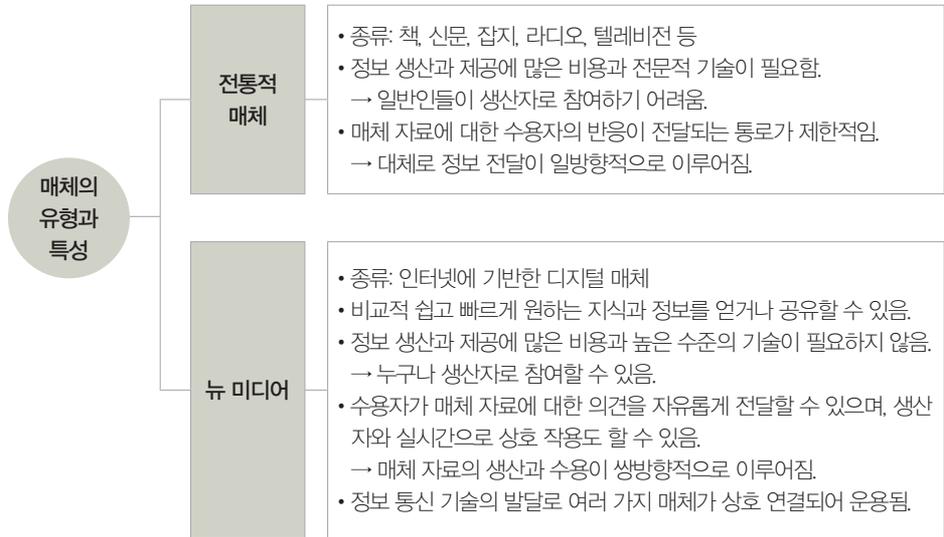
1
부

💡 학습의 길잡이

언어와 매체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이는 수단이다. 매체를 통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 매체란 정보와 지식, 사상과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수단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매체가 등장함.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방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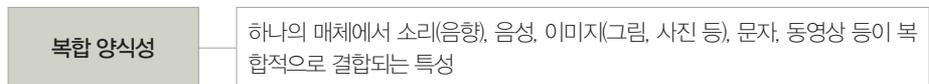
※ 위의 특성은 상대적 특성에 해당함.

※ 뉴 미디어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전달 매체를 가리킴. 다양한 매체 언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며,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넘어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크게 확대함.

② 현대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 매체 언어: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소리, 음성, 이미지, 문자, 동영상 등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된 언어임.
- 매체 언어의 특성: 오늘날 의사소통의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는 매체들은 복합 양식성을 지니고 있음.



문제로 이해하기

[01~02] (가)는 종이 신문이고, (나)는 인터넷 신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11면 ◇◇일보	과학	20××년 ×월 23일 월요일
----------	----	------------------

K-위성 시대를 향한 힘찬 출발
차세대 중형 위성 X호 발사 성공... 우주 기술 독립까지는 아직 갈 길 멀어

지난 22일 한국은 독자 기술로 완성한 ‘차세대 중형 위성 X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7분 □□ 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차세대 중형 위성 X호가 오후 4시 49분에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했다고 밝힌 데 이어, 본체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타원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전했다. 이번 위성 발사는 두 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끝에 거둔 성공이어서 마음을 줄이며 발사 순간을 지켜보았던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 이 위성은 원래 지난 20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발사체 상단을 제어하는 장비에 문제가 감지돼 발사가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진과 축하 통화를 하면서, 위성의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국내 우주 항공 기술 분야가 쌓아 온 기술과 경험을 더욱 확장하여 우주 산업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과 한국형 발사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우주 개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김○○ 기자 kim**@◇◇news.com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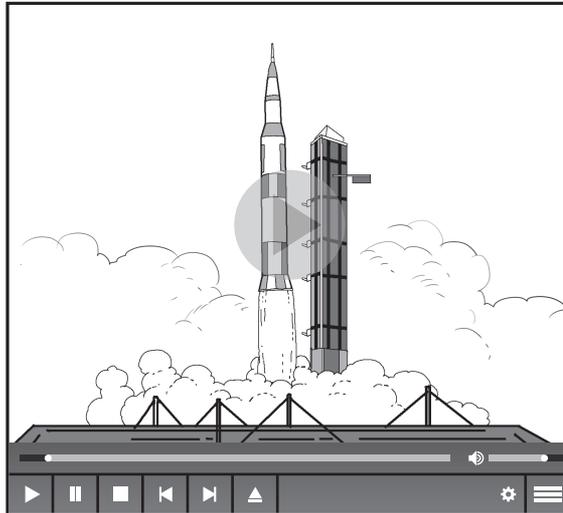
(나)

차세대 중형 위성 X호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연다

등록: 20××년 ×월 22일 18:33 | 수정: 20××년 ×월 22일 1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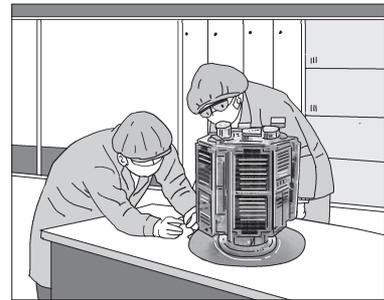
×월 22일 국산 기술로 만든 ‘차세대 중형 위성 X호’가 드디어 로켓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었다. 이것은 우주 독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우리도 우주 기술 강국의 하나가 되었음

을 입증하는 것이다. □□ 우주 센터에서 화염을 뿜으며 발사된 로켓 발사체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차세대 중형 위성 ×호가 탑재되어 있다. 차세대 중형 위성 ×호는 발사된 지 약 64분 후에 발사체에서 분리되었고, 오후 4시 49분에 지상 관제국과 처음으로 교신에 성공했다.



〈차세대 중형 위성 ×호 발사 장면〉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인 ▽▽▽ 박사는 차세대 중형 위성 ×호는 6년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위성으로, 초정밀 지구 관측이 가능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중형 위성 ×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위성 개발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차세대 중형 위성 ×호는 앞으로 6개월간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하게 된다.



이☆☆ 기자 lee**@◇◇news.com



좋아요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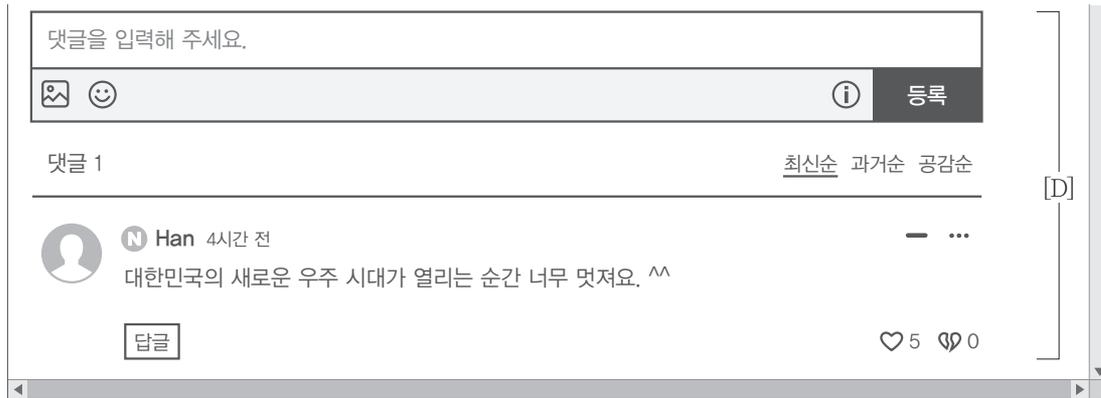
즐거찾기



SNS에 공유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 국내 우주 산업 어디까지 왔나
- ▶ 차세대 중형 위성 ×호 개발에 바친 인생



[23004-0001]

01 다음 항목에 대한 (가)의 매체적 특성을 (나)와 비교하여 쓰시오.

(1) 유통 속도 및 범위	
(2) 수정 가능성	
(3) 다른 매체와의 상호 연결성	

[23004-0002]

02 다음은 [A], [B], [C], [D]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쓰시오.

[A]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B]	기사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를 표현할 수 있고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기사 내용을 다른 사람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할 수 있다. 또한 기사 내용과 기사가 수록된 웹 주소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 둘 수 있다.
[C]	기사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사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되어, 그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D]	댓글란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언어를 사용해 기사 내용에 대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 최소 대립쌍

‘날-살’과 같이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만 뜻이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

◎ 반모음

반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과 비슷하고 홀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하므로, 음성적으로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 존재임. 그래서 ‘반자음’이라고도 부름. 그러나 국어에서는 이들이 단모음과 어울려 이중모음을 이루는 점을 더 중시하여 흔히 ‘반모음’으로 부름.

◎ 장단(長短)

국어의 장음은 원칙상 단어의 첫머리에만 올 수 있음. 가령 ‘눈[눈:]’과 같이 장음을 지니는 단어가 합성어를 이루어 ‘첫눈[첫눈:]’과 같이 되면 장음이 단음으로 바뀜.

① 음운의 이해

(1)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

예) 불-풀(ㅂ:ㅍ), 불-불(ㄷ:ㄱ)

(2) 음운의 종류: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1) 분절 음운: 자음과 모음처럼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운. 음소(音素)라고도 함. 자음, 모음, 반모음이 있음.

	특성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으며, 모음과 함께 발음되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음. 예) ㄱ, ㄴ, ㄷ, ㄹ...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으며,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이 있음. 예) 단모음: ㅏ, ㅑ, ㅓ, ㅕ...; 이중 모음: ㅗ, ㅛ, ㅜ, ㅠ...
반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지 않으나, 단모음과 함께 이중 모음을 이루어야 음절을 이룰 수 있음. 예) j, w

2) 비분절 음운: 고저(高低), 강약(強弱), 장단(長短)과 같이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 음소에 얽혀 실현되며, 운소(韻素)라고도 함. 현대 국어 표준어에는 장단만이 비분절 음운임. 예) 눈(目)-눈:(雪), 말(馬)-말:(言)

② 국어의 음운 체계

(1) 자음 체계: 자음은 공기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자리인 조음 위치와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인 조음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예사소리)			ㅈ		
	경음(된소리)			ㅉ		
	격음(거센소리)			ㅊ		
마찰음	평음(예사소리)		ㅅ			ㅎ
	경음(된소리)		ㅆ			
	격음(거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2) **단모음 체계**: 혀의 위치(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혀의 위치(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높는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지 아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꺠	ㅡ	ㅓ
중모음	ㅕ	ㅛ	ㅜ	ㅗ
저모음	ㅖ		ㅘ	

③ 국어의 음운 변동

- (1) **음운 변동의 개념**: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 음운 변동 전후의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교체, 첨가, 탈락, 축약)로 구분됨.

(2) 음운 변동의 유형

- 1) 교체(대치): 한 음운이 다른 한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말 평파열음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으로, 나머지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ㄱ, ㄷ, ㅂ’ 중 하나로 소리가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박 → [박], 부엌 → [부억], 꽃 → [꼇], 입 → [입]
비음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국물 → [궁물], 받는다 → [반는다], 입는다 → [임는다]
유음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 또는 뒤에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신라 → [실라], 칼날 → [칼랄]
구개음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각각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하-’가 올 때 ‘ㄷ’과 ‘ㅎ’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ㅈ’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구개음화임. 예) 굳이 → [구지], 같이 → [가치], 단하다 → [다치다]
경음화 (원소리되기)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 받침 ‘ㄱ, ㄷ, ㅂ’ 뒤의 경음화 예) 국밥 → [국뺨], 민지 → [민찌], 좁고 → [좁꼬] • 어간 받침 ‘ㄴ, ㄹ’ 뒤의 경음화 예) 신고 → [산꼬], 감다 → [감따]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의 경음화 예) 발달 → [발뺨], 질서 → [질써], 물질 → [물짚]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예) 할 것을 → [할꺼슬]

④ 이중 모음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은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 j-계 이중 모음(ㅟ, ㅞ, ㅟ, ㅞ, ㅟ, ㅞ, ㅟ, ㅞ)과 w-계 이중 모음(ㅜ, ㅜ, ㅜ, ㅜ, ㅜ, ㅜ, ㅜ, ㅜ)이 있음.

⑤ ‘ㅜ, ㅟ’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4항에서는 ‘ㅜ, ㅟ’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이지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함.

⑥ 음절(音節)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규정함.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지며, 모음은 단독으로 한 음절이 되기도 함.

⑦ ‘ㄹ’의 비음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한자어나 외래어에서만 적용됨. ‘종로 → [종노], 흥련 → [흥련]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음.

⑧ 연음(連音)

‘밖이[바끼], ‘앞을[아플] 등에서 보듯이 연음은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 앞 음절의 끝 자음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것으로, 음운 변동이 아님.

2) 첨가: 없던 음운이 생겨나는 현상

'ㄴ' 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ㅈ'로 시작할 때 'ㄴ'이 그 사이에 첨가되는 현상 예 맨입 → [맨닙], 숨이불 → [숨:니불], 한여름 → [한녀름]
반모음 첨가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 'ㅇ'가 첨가되는 현상.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아님. 예 피어 → [피어/피여], 되어 → [되어/되여]

3) 탈락: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묵 → [목], 값 → [갑], 젊다 → [점따], 읊다 → [읍따]
자음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ㄹ' 탈락: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ㄹ'이 'ㄴ, ㄷ, ㅌ' 등의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알-+-니 → [아:니], 알-+-시-+-고 → [아:시고] • 'ㅎ'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 예 넣어 → [너어], 쌓이다 → [싸이다]
모음 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ㅡ' 탈락: 어간의 끝소리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꼬-+-어서 → [꺼서], 담그-+-아도 → [담가도] • 동일 모음 탈락: 어간 말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예 자-+-아서 → [자서], 서-+-어 → [서]

4)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격음화 (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ㅌ'과 'ㅎ'이 만나 각각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입학 → [이팍], 좋다 → [조:타], 각하 → [가카], 넣지 → [너:치]
-----------------	--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의 'ㄹ' 탈락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ㄹ'이 'ㄴ, ㄷ, ㅌ' 앞에서 탈락하기도 함. '하늘+-님 → 하느님, 활+살 → 화살, 바늘+-질 → 바느질'과 같은 예가 있음.

문제로 이해하기

[23004-0003]

- 01 <보기>를 참고하여, (1)~(3)에 제시된 단어의 짝이 '최소 대립쌍'이 되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음운을 쓰시오.

[보기]

하나의 음절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음운 때문에 뜻이 구별되는 두 단어를 최소 대립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팔'과 '칼'은 초성 'ㅍ'과 'ㄱ'의 차이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 단어이다. 이때 'ㅍ'과 'ㄱ'은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음운에 해당한다.

	최소 대립쌍	최소 대립쌍이 되는 이유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음운
(1)	자다 - 짜다		
(2)	가을 - 고을		
(3)	밥 - 박		

[23004-0004]

- 02 다음의 자음 체계표를 참고하여, (1)~(3)의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으로 인해 해당 음운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바뀌었는지 여부를 각각 '예' 또는 '아니요'로 표시하시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ㅂ / ㅃ / ㅍ	ㄷ / ㅌ / ㅌ		ㄱ / ㅋ / ㆁ	
파찰음			ㅈ / ㅉ / ㅊ		
마찰음		ㅅ / ㅆ			ㅎ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단어	조음 위치가 바뀐.	조음 방법이 바뀐.
(1)	국물[궁물]	아니요	
(2)	굳이[구지]		
(3)	칼날[칼랄]		예

[23004-0005]

03 제시된 단어 중에서 <보기>의 ㉠과 ㉡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 보기 」

음운 변동은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새로운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등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한 단어에서 두 번 이상 일어나기도 한다.

앞마당[암마당], 흙이불[혼니불], 닭다[담:따], 짓밟히다[진빨피다]

1 단어의 분류

(1) 품사(品詞): 단어를 형태적·기능적·의미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 국어의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가지가 있음.

(2) 품사 분류의 기준

1) 형태: 단어의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음. 가변어는 활용을 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고, 불변어는 형태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단어(가변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임.

- 예 • 가변어: 먹다(먹고, 먹니, 먹어서, 먹습니다…), 예쁘다(예쁘고, 예쁘니, 예뻐서, 예쁩니다…), 이다(이고, 이니, 이어서, 입니다…)
- 불변어: 달, 우리, 넷, 현, 무척, 을/를, 아이고

2) 기능: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역할)을 기준으로 용언,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음.
 3) 의미: 단어 부류가 지닌 의미에 따라 나눌 수 있음.

[품사의 분류]



(3) 품사별 특성

1) 체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으며, 관형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조사를 취할 수 있음.

품사	특성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보통 명사와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만 쓰이는 고유 명사로 나뉨. 예) 책상, 평화(보통 명사) / 신라, 이황(고유 명사) •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와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로 나뉨. 예) 바다, 마을(자립 명사) / 것, 때문(의존 명사)

※ 서술격 조사 '이다'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또는 일부 부사나 연결 어미 뒤에 붙는다는 속성이 있음. 또한 이들과 결합하여 서술어를 형성하고 '이고', '이니', '이면', '이지' 따위로 '아'에 어미가 붙어 활용을 한다는 속성이 있음. 이 모두를 고려하여 '서술격 조사'라고 함.

예 일하는 솜씨가 제법이다.

- (부사 뒤에 붙음.)
- 오늘 아침 잠을 깬 것은 9시가 넘어서였다.
- (연결 어미 뒤에 붙음.)

※ 의존 명사

의존 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즉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문장에 쓰일 수 있음.

※ 미지칭과 부정칭

같은 대명사가 미지칭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칭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음.

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미지칭 대명사)
어디나 마찬가지로이다.
(부정칭 대명사)

※ 재귀칭

예 형은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나섰다.
동생은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한다.
할머니는 당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신다.

※ 유의해야 할 지시 동사와 지시 형용사

‘이러하다(이렇다)’, ‘그러하다(그렇다)’, ‘저러하다(저렇다)’ 등은 지시 형용사이지만 ‘이러하다(이러다)’, ‘그러하다(그러다)’, ‘저러하다(저러다)’ 등은 지시 동사임.

대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대신하는 단어 • 사람 표시의 인칭 대명사와 사물이나 장소 표시의 지시 대명사가 있음. 예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우리... / 지시 대명사: 여기, 그곳, 저것... • 모르는 사람, 사물,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미지칭,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칭이라 함. 주로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를 재귀칭이라고 하며, 국어에서 재귀칭은 3인칭에서 나타남. 예 미지칭: 무엇, 언제... / 부정칭: 아무, 누구... / 재귀칭: 자기, 당신...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 •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가 있음. 예 양수사: 하나, 둘, 셋, 일(-), 이(二), 삼(三), 서넛... 서수사: 첫째, 둘째... • 수사에는 정확한 수와 대략의 수가 있음. 예 정확한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 이, 삼, 사, 첫째, 둘째... 대략의 수: 한둘, 서넛, 너덧, 한두째... • 고유어 수사와 한자어 수사가 있음.

2) 용언: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음. 주로 서술어로 쓰이고, 일반적으로 부사어의 꾸밈을 받음.

품사	특성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 필요하지 않은 동사를 자동사라고 함. 예 타동사: 알다, 부르다... 자동사: 피다, 솟다...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 성질이나 상태를 직접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 성상 형용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지시 형용사가 있음. 예 성상 형용사: 크다, 푸르다, 차갑다... 지시 형용사: 그러하다, 어떠한다, 아무러하다...

※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하는 양상이 다름.

-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이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붙지 않음.
 - 예 현재 시제 평서형: 잔다/먹는다(동사), *예쁘다/*좁는다(형용사)
-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현재 시제의 관형사형 어미로 ‘-는’이 붙지만, 형용사 어간에는 ‘-(으)ㄴ’이 붙음.
 - 예 현재 시제 관형사형: 자는/먹는(동사), 예쁜/좁은(형용사)
-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이지 않음.
 - 예 명령형/청유형: 자라/먹자(동사), *예뻐라/*좁자(형용사)
- 일반적으로 동사 어간에는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으)려고’, ‘-고자’ 등이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결합할 수 없음.
 - 예 -(으)려고/-고자: 먹으려고/먹고자(동사), *좁으려고/*좁고자(형용사)

3) 수식언: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로, 관형사와 부사가 있음.

품사	특성
관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언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조사와 결합할 수 없음. •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상 관형사,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가 있음. 예 성상 관형사: 새, 흰, 옛, 맨...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요, 고, 조, 이런, 그런, 저런... 수 관형사: 한, 두, 세/서/석, 네/너/넉, 댓/다섯...
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예 활짝, 아주, 실로, 비록... •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드물게 체언을 꾸미기도 함. 예 아주 새 책 그는 노래를 <u>매우</u> 잘 부른다. 바로 너 • 문장 내에서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움. 예 빨리 밥을 먹어라. / 밥을 빨리 먹어라. • 특정 문장 성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가 있음. 문장 부사에는 '그리고, 그런데'와 같은 접속 부사도 포함됨. 예 성분 부사: 날이 더워서 <u>땀</u>을 뻘뻘 흘린다. 문장 부사: <u>설마</u>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4) 관계언: 다른 단어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로, 조사가 있음.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자립성이 있는 말(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나타남. 쓰임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뉨.

조사	격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는 조사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가 있음. 예 이/가, 께서, 을/를, 이다, 의, 에, 에서, (으)로, 아/야...
	보조사	체언,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예 은/는(대조), 만(단독), 도(포함)...
	접속 조사	두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예 와/과, 하고, (이)랑...

5) 독립언: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 단어로, 감탄사가 있음. 독립언은 다른 말과 떨어져 혼자서 쓰일 수 있음.

감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말 예 앓, 와, 열씨구, 오호, 야, 네, 음... •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임을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 뒤에는 흔히 쉼표(.)를 찍음.
-----	--

예 관형사, 부사와 조사의 결합
 관형사는 격 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와도 결합하지 않음. 부사도 관형사처럼 격 조사를 취할 수 없지만, 보조사를 취할 수는 있음.
 예 차가 빨리도/는 간다.

예 조사의 생략
 격 조사는 생략되는 경우가 자주 있음. 보조사는 생략되면 의미가 달라지므로 생략이 어려움.

2 단어의 형성

(1) 형태소

1) 형태소: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

예문	나는 잘 익은 과일을 아이에게 먹었다.
형태소	나, 는, 잘, 익-, -은, 과일, 을, 아이, 에게, 먹-, -이-, -었-, -다

2) 형태소의 종류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나, 잘, 과일, 아이
	의존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예) 는, 익-, -은, 을, 에게, 먹-, -이-, -었-, -다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어휘 형태소라고도 함. 예) 나, 잘, 익-, 과일, 아이, 먹-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고도 함. 예) 는, -은, 을, 에게, -이-, -었-, -다

(2) 단어

1) 단어: 한 형태소 또는 형태소의 결합형 중에서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단위.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인정함.

예문	저 넓은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오래 살았다.
단어	저, 넓은, 밭, 을, 갈고, 있는, 사람, 은, 이, 마을, 에, 오래, 살았다

2) 단어의 구조

①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과 접사

어근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예) '헛소리'의 '소리', '맨발'의 '발', '가위질'의 '가위', '놀이'의 '놀-'
접사	어근에 붙어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 예) '헛소리'의 '헛-', '맨발'의 '맨-', '가위질'의 '-질', '놀이'의 '-이'

② 구조에 따른 단어의 분류: 어근이나 접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복합어를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눔.

단일어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예) 바다, 물, 깊다, 빠르다	
복합어	합성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둘 다 어근인 단어 예) 집밥('집'과 '밥'으로 분석되며 둘 다 어근에 속함) 잘못('잘'과 '못'으로 분석되며 둘 다 어근에 속함)
	파생어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둘 중 하나가 접사인 단어 예) 헛돌대('헛-'과 '돌다'로 분석되며 '헛-'이 접사임.) 빠기('빠-'와 '-기'로 분석되며 '-기'가 접사임.)

◎ 직접 구성 요소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둘 각각을 가리키는 말.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도 함.

3) 합성어의 형성과 분류

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합성어 예 팔죽(명사+명사), 어린이(용언의 관형사형+명사), 걸어가다(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음.
비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지 않은 합성어 예 접칼(용언 어간+명사), 검붉다(용언 어간+용언 어간), 보슬비(비자립적 어근+명사) → 어간이 어미 없이 바로 명사에 연결된 '접칼', 어간이 어미 없이 다른 용언의 어간과 바로 연결된 '검붉다'나 자립성이 없는 어근이 바로 명사를 꾸며 주는 '보슬비'와 같은 단어는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음.

4) 파생어의 형성과 분류

접두 파생어	어근의 앞에 접사(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 예 헛-: 헛기침, 헛수고, 헛디디다 군-: 군침, 군소리, 군식구
접미 파생어	어근의 뒤에 접사(접미사)가 결합한 파생어 예 -질: 빗질, 걸레질, 도둑질 -(으)ㅁ: 믿음, 웃음, 잠

※ 접사의 기능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명사 '먹이'나 '널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임. 이때 '먹이'와 '널이'의 '먹-'과 '널-'은 용언의 어간이 단어 형성의 재료인 어근으로 쓰인 것임.

3 단어의 의미

(1) 단어의 의미 관계: 단어들 간에는 여러 종류의 의미적 관련성이 있음.

유의 관계	말소리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유의어가 됨. 예 '간혹'과 '이따금', '걱정'과 '염려'
반의 관계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의미 관계. 한쪽이 다른 한쪽의 반의어가 됨. 예 '아버지'와 '어머니', '위'와 '아래'
상하 관계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 포함하는 말을 상위어, 포함되는 말을 하위어라고 함. 예 '식물'(상위어)과 '소나무'(하위어), '현악기'(상위어)와 '가야금'(하위어)

※ 다의어와 동음어

서로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의 단어를 다의어라고 하고, 같은 발음이지만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둘 이상의 단어를 동음어(=동음이의어)라고 함. 동음어는 표기가 같은 경우와 표기가 다른 경우로 나뉨.

예 같은 표기: 다리(脚)/다리(橋)
 다른 표기: 불이다/부처다

(2) 단어의 의미 변화: 언어가 생성, 변화, 소멸하는 과정에서 의미 역시 변화함.

의미 확대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는 경우 예 손: 신체의 일부분을 가리킴. → '노동력'의 의미가 추가됨.
의미 축소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좁아지는 경우 예 사랑하다(>사랑하다): '생각하다' 또는 '사랑하다'의 뜻 → '사랑하다'의 뜻만 남음.
의미 이동	어떤 단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일 없이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경우 예 어엿쁘다(>어여쁘다): '불쌍하다'의 의미 → '예쁘다'의 의미로 바뀜.

◎ **현용 24 자모**

• 자음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ㅍ, ㅎ (총 14자)

• 모음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총 10자)

4 단어의 표기

(1)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규범.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표, 표기 세칙,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으로 구성됨.

1)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 ① 외래어는 현용 24 자모만 사용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표기함.
- ③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함.
예) coffee shop: 커피숍(○), 커피쑈(×)
- ④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 bus: 버스(○), 뻬스(×)
- 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함.
예) camera: 카메라(○), 캐머러(×)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규범.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 표기상의 유의점으로 구성됨.

1) 로마자 표기의 기본 원칙

-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음을 원칙으로 함.
- ②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음.

2)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① 자음의 로마자 표기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ㄹ	ㅇ	ㄺ
g, k	kk	k	d, t	tt	t	b, 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 l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ㄹㄹ’은 ‘ll’로 적음.

② 단모음의 로마자 표기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a	eo	o	u	eu	i	ae	e	oe	wi

③ 이중 모음의 로마자 표기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④ 음운 변동의 로마자 표기

- 자음 동화, ‘ㄴ’ 첨가, 구개음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는 변화가 일어난 대로 표기함.
예) 백마[백마]: Baengma, 신라[실라]: Silla,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해돋이[해도지]: haedoji, 놓다[노타]: nota
-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예) 죽변[죽뵐]: Jukbyeon, 팔당[팔땡]: Paldang

문제로 이해하기

[23004-0006]

01 다음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고, 이 문장의 ㉠~㉥가 어떤 유형의 형태소에 해당하는지 분류 하시오.

가을 하늘에 검은 비구름이 잔뜩 끼었다.

㉠ ㉡ ㉢ ㉣ ㉤

(1) 문장의 형태소 단위 분석

형태소 단위	가을, 하늘,
--------	---------

(2) ㉠~㉤의 형태소 유형 분류

자립 형태소	㉠,	실질 형태소	㉠,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23004-0007]

02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된 단어를 분석하시오.

| 보기 |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는데, 단어를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했을 때 둘 다 어근인 단어는 합성어이고, 둘 중 하나가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이다.

	단어	직접 구성 요소 분석	합성어/파생어 판단
(1)	논밭	어근 '논'과 어근 '밭'으로 분석됨.	
(2)	헛기침		
(3)	웃음		
(4)	땃밥		

[23004-0008]

03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의 일부이다. (1)~(4)에 제시된 한글 표기와 표준 발음을 참고하여 잘못된 로마자 표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 보기 |

-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한글 표기	표준 발음	잘못된 로마자 표기	올바른 로마자 표기
(1)	가락	[가락]	garag	
(2)	굴밥	[굴밥]	gurbab	
(3)	울릉도	[울릉도]	Uleungdo	
(4)	월곶	[월곶]	Wolkod	

1 문장 성분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

예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경찰’은 행위의 주체, ‘도둑’은 행위의 대상, ‘잡았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임.

이 문장에서 ‘경찰이’는 주어, ‘도둑을’은 목적어, ‘잡았다’는 서술어임.

2 문장 성분의 종류

- (1) 주성분: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필수 성분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음.
- (2) 부속 성분: 주로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임. 관형어, 부사어가 있음.
- (3) 독립 성분: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임. 독립어가 있음.

3 문장 성분별 특성

(1) 주어와 서술어

문장 성분	특성
주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 문장을 ‘무엇이 무엇이다/어떠하다/어찌하다’로 나타낼 때, ‘무엇이’에 해당함. • 주어는 체언 혹은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가 붙어 나타나는데, 주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주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예 누나가 공부를 한다. (주격 조사 ‘가’가 붙음.) 누나 지금 공부해. (주격 조사가 생략됨.) 누나도 공부를 한다. (보조사 ‘도’가 붙음.)
서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 등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 • 문장을 ‘무엇이 무엇이다/어떠하다/어찌하다’로 나타낼 때, ‘무엇이다, 어떠하다, 어찌하다’에 해당함. 예 삼촌은 경찰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하늘이 노랗다. (무엇이 어떠하다) 형이 노래를 부른다. (무엇이 어찌하다) • 서술어의 자리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 ①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함. 예 명수는 학생이다. 꽃이 피었다. ② 두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부사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예 그가 밥을 먹었다.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형은 의사가 되었다.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민들레는 썸바귀와 비슷하다.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③ 세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예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셨다.

※ ‘구’와 ‘절’

- 구(句):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말
- 절(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의미 단위로써 더 큰 문장의 일부를 이루는 말

※ 서술어의 구성

서술어는 보통 하나의 용언 혹은 ‘체언+이다’로 이루어지지만, 둘 이상의 용언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예 이 음식을 먹어 보아라.

☞ ‘먹어 보아라’는 본용언 ‘먹다’와 보조 용언 ‘보다’가 연결 어미를 매개로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가 됨.

※ 본용언과 보조 용언

보조 용언은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본용언) 뒤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함. 이때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은 하나의 서술어처럼 기능함.

(2) 목적어와 보어

문장 성분	특성
목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 나타나는데, 목적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예 나는 <u>빵</u>을 먹었다.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음.) 나는 <u>빵</u> 먹을래. (목적격 조사가 생략됨.) 나는 <u>빵도</u> 먹었다. (보조사 '도'가 붙음.)
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 보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서 실현됨. 보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보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음. 예 언니가 <u>대학생</u>이 되었다. (보격 조사 '이'가 붙음.) 언니가 <u>대학생</u> 되었어. (보격 조사가 생략됨.) 언니가 <u>대학생은</u> 아니야. (보조사 '은'이 붙음.)

(3) 관형어와 부사어

문장 성분	특성
관형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 •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며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나 용언의 관형사형(용언 어간+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ㄹ, -던')으로도 나타남. 예 그녀는 <u>옛</u> 물건을 꺼냈다. (관형사) / 시골 <u>풍경</u>이 아름답다. (체언) 나는 <u>어머니</u>의 모자를 집었다.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음.) <u>어머니</u>께서 <u>예쁜</u> 꽃을 사 오셨다.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음.)
부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관형사, 다른 부사 또는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함. 예 <u>아주</u> 오랜 세월이 흘렀다. (관형사를 꾸밈.) <u>회의</u>는 정말 빨리 끝났다. (다른 부사를 꾸밈.) <u>과연</u>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장 전체를 꾸밈.) •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나 용언의 부사형(용언 어간+부사형 어미)으로도 나타남. 예 <u>일단</u> 생각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부사가 부사어가 됨.) 나는 <u>집으로</u> 발길을 돌렸다. (체언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붙음.) 그들이 <u>깊게</u> 드리워졌다.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게'가 붙음.) •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므로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지만 세 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함. 또 두 자리 서술어 중의 일부도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함. 예 나는 그를 친구<u>로</u> 여긴다. / 이 옷이 너<u>에게</u> 어울린다.

(4) 독립어

문장 성분	특성
독립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 • 일반적으로 독립어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중간 혹은 끝에 올 수도 있음. 예 그렇게는, 음, 어렵네요. / 그렇게 하지요, 뭐. • 감탄사는 독립어로 쓰이며, 체언의 단독 형태나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 (이)여'가 결합된 형태로도 나타남. 예 <u>앗</u>, 아기가 넘어졌구나. (감탄사) / <u>선생님</u>, 질문이 있어요. (체언의 단독 형태) <u>민수야</u>,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체언에 호격 조사 '야'가 붙음.)

※ 관형어와 다른 문장 성분의 관계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예 모든 사람이 우리 형을 좋아한다.

주어는 '모든 사람이'이고 관형어 '모든'은 주어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목적어는 '우리 형을'이고, 관형어 '우리'는 목적어 속에 포함되어 나타남.

※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서술어 중에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음.

- 세 자리 서술어
 - 예 놓다, 주다, 삼다 등
- 두 자리 서술어 중 일부
 - 예 같다, 맞서다, 다르다 등

4 문장의 구조(짜임)

(1) **출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

(2) **겹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이 있음.

1) **이어진문장**: 두 절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p>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 '-고', '-(으)나', '-지만' 등의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열: ㉠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 대조: ㉡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다.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p>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된 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의 '원인·이유, 배경 상황, 조건·가정, 의도·목적, 양보, 중단·전환, 정도의 심화' 등의 의미를 지님. '-아서/-어서', '-(으)면' 등의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이유: ㉢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은 나가지 마. • 배경 상황: ㉣ 집에 가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 • 조건·가정: ㉤ 내일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놀러 가자. • 의도·목적: ㉥ 나는 어제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 • 양보: ㉦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 • 중단·전환: ㉧ 희주는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았다. • 정도의 심화: ㉨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

2) **안은문장**: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으로, 이때 안겨 있는 절을 '안긴절'이라고 함.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p>명사의 기능(주어, 목적어, 보어 등)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며', '-기' 등으로 실현됨.</p> <p>㉠ 우리는 그가 <u>울았음을</u> 깨달았다. 주인이 <u>강아지가 돌아오기를</u> 기다린다.</p>
관형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p>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관형사절은 관형사형 어미 '-(으)나, -는, -(으)르, -던' 등으로 실현됨.</p> <p>㉡ 나는 형이 <u>요리한</u> 음식을 좋아한다. 우리는 그가 <u>밥을 먹는</u> 모습을 보았다. 저것은 내가 <u>산을 신발이다</u>. / 저것은 내가 <u>쓰던</u> 모자이다.</p>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p>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부사절은 부사형 어미 '-이, -게, -도록, -듯이' 등으로 실현됨.</p> <p>㉢ 영수가 <u>돈도 없이</u> 여행을 떠났다. / <u>사람들이 지나가도록</u> 길을 비켜 주자.</p>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p>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서술절로 안길 경우에는 어미나 조사와 같은 표지가 없음.</p> <p>㉣ 할머니께서 <u>건강이 좋으시다</u>. / 언니는 <u>마음씨가 곱다</u>.</p>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	<p>어떤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 인용절이 될 절에 조사 '이'라고, '고'를 붙여 실현됨. 직접 인용에는 '이'라고'를, 간접 인용에는 '고'를 사용함.</p> <p>㉤ 동생이 친구에게 "<u>어디로 가니?</u>"라고 물었다. (직접 인용) 동생이 친구에게 <u>어디로 가냐고</u> 물었다. (간접 인용)</p>

3 문장 구조의 단계적 파악

겹문장에서는 문장의 짜임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 ㉠ •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 전체 문장의 주어는 '그가 범인임이'이고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밝혀졌다'임. 명사절 '그가 범인임'에서 주어는 '그가'이고 서술어는 '범인임'임.
- 이 집은 마당이 넓다.
 - ☞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이 집은'이고 서술어는 '마당이 넓다'임. 서술절 '마당이 넓다'에서 주어는 '마당이'이고 서술어는 '넓다'임.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 전체 문장의 주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이고 서술어는 '명언이다'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은 '말'을 꾸며 주는 관형어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인 관형사절임.

3 관형사절과 관형절

'관형사절'은 줄여서 '관형절'이라고도 함.

5 문장의 표현

(1) **문장 종결 표현**: 화자가 종결 어미를 통해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 줄여서 종결 표현이라고도 함.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뉨.

종결 표현	특성
평서문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이 자기의 생각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문장 예)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의문문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 판정 의문문: '예/아니요'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 밖에 비가 오니? • 설명 의문문: '언제, 누구, 무엇' 등의 의문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예) 언제부터 비가 내렸니? • 수사 의문문: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서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 예)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 (→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
명령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예) 학교에 일찍 와라.
청유문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문장 예) 우리 만나서 다 같이 출발하자.
감탄문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예)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③ 명령문과 청유문의 공통점과 차이점

명령문과 청유문의 서술어는 보통 동사로 한정되며,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 '-았-/~었-, -겠-, -더-'와 함께 쓰이지 않음. 일반적으로 명령문의 주어는 청자로 한정되는 반면, 청유문의 주어는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함.

(2) **높임 표현**: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뉨.

1) 주체 높임

- ① 화자가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주로 선어말 어미 '-(으)시-'에 의해 실현되지만, 주격 조사 '께서'나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함.
- ② 주체 높임 표현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소유물, 생각 등과 관련된 서술어에 '-(으)시-'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함. '있다'의 주체 높임 표현은 '계시다'인데, 간접 높임에서는 '있으시다'로 쓰임.
 - 예) 선생님께서서는 책을 읽으십니다. (직접 높임)
 - 선생님께서서는 책에 책이 많으십니다. (간접 높임)
 - 선생님께서서는 책에 계신다. (직접 높임)
 - 선생님께서서는 수업이 있으시다. (간접 높임)

2) 상대 높임: 화자가 청자,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됨. 상대 높임은 상대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며, 격식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뉨.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3) 객체 높임: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여쭙다, 뵈다/뵈다’ 등의 몇몇 동사에 의해 실현되거나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됨.

예) 나는 그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러 갔다.

(3) 시간 표현

1) 시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발화시(화자가 말하는 시점)와 사건시(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시점)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뉨.

시제	특성
과거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 • 주로 선어말 어미 ‘-았-/-었-’에 의해 실현됨. 예) 우리가 그를 막았다. / 어제는 오랜만에 라면을 먹었다. •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임을 표현하기 위해 ‘-았-/-었-’과 같은 형태를 쓰기도 함.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에는 ‘-던-’을 사용함. 예) 우리는 어릴 때 같은 집에 살았었다. / 어제 보니 새로 가게가 생겼더라. • 관형사절로 안길 때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던’이, 형용사와 ‘이다’에는 ‘-던’이 쓰임. 또 ‘-았-/-었-’ 다음에 ‘-던’을 덧붙여 쓸 수 있음. 예) 저것은 제가 (읽은/읽던/읽었던) 책입니다. 나는 그녀가 {학생이던/학생이었던} 시절을 회상했다.
현재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는-/-ㄴ-’에 의해 실현되고, 형용사나 ‘이다’의 경우에는 특정 어미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실현됨. 예) 나는 지금 학교에 간다. / 들판의 꽃이 정말 예쁘다. • 관형사절로 안길 때에는 일반적으로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형용사와 ‘이다’에는 ‘-(으)ㄴ’이 쓰임. 예)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 /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우리 학교 회장인 선주가 도착했다.
미래 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 • 주로 선어말 어미 ‘-겠-’에 의해 실현되며,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 명사가 합쳐진 ‘-(으)ㄹ 것(이)-’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예) 잠시 후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 그는 오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 관형사절로 안길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쓰임. 예) 저녁에 먹을 음식은 따로 덜어 두자.

☞ 현재 시제의 사용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확정적이라고 판단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함. 또 보편적인 사실을 말할 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함.

예) 버스가 곧 도착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 선어말 어미 ‘-겠-’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음.

예) 지금쯤 형은 부산에 도착했겠지.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

※ ‘-고 있다’의 중의적 의미

‘-고 있다’는 완료상과 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 형은 모자를 쓰고 있다.

☞ 문맥에 따라 모자를 쓰는 동작을 진행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모자를 쓰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의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음.

※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직접 사동은 행위를 시키는 주체가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함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고, 간접 사동은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키는 것임).

㉡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물렸다. (직접 사동)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한다. (간접 사동)

※ 그 밖의 피동,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은 접미사 ‘-되다’, ‘-발다’, ‘-당하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또한 사동 표현은 접미사 ‘-시키다’에 의해 실현되기도 함.

㉢ 그는 잘 훈련받은 군인이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 표현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지 말다’ 형태의 긴 부정 표현이 쓰임.

㉣ 그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지 말자.

2) 동작상: 완료, 진행과 같이 사건을 이루는 동작의 시간적 모습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 어미로 표현되거나 보조 용언 구성 등에 의해 표현됨.

① 진행상: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② 완료상: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냄.

㉥ 밥을 다 먹었다/먹어 버렸다. (완료)

꽃이 피어 있다. (완료된 결과 상태의 지속)

(4) 피동과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의미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능동 표현	의미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 주동 표현
피동사 피동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쓰임. ㉦ 아이가 어머니 품에 <u>안겼다</u> .	사동사 사동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쓰임. ㉧ 언니가 나에게 물을 <u>먹였다</u> .
‘-아지다/ -어지다’ 피동	용언 어간에 ‘-아지다/-어지다’가 결합함. ㉨ 많은 음식들이 아깝게 <u>버려졌다</u> .	‘-게 하다’ 사동	용언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함. ㉩ 선생님께서 나를 집에 <u>가게 하셨다</u> .

(5) 부정 표현

	‘안’ 부정문(단순 부정, 의지 부정)	‘못’ 부정문(능력 부정)
의미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거나, 동작을 행하는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냄.	주어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냄.
짧은 부정	부정하는 말 앞에 ‘안/아니’를 사용함. ㉪ 기름진 음식은 <u>안</u> 먹을래.	부정하는 말 앞에 ‘못’을 사용함. ㉫ 동생은 아파서 죽도 <u>못</u> 먹는다.
긴 부정	부정하는 말 뒤에 ‘-지 않다/-지 아니하다’를 사용함. ㉬ 기름진 음식은 <u>먹지 않을</u> 래.	부정하는 말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함. ㉭ 동생은 아파서 죽도 <u>먹지 못했다</u> .

(6) 인용 표현

- 1) 직접 인용: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 ”)나 작은따옴표(‘ ’)에 넣어 인용함. 직접 인용된 절에는 조사 ‘(이)라고’가 쓰임.
- 2) 간접 인용: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함. 인용절 속의 대명사, 시간 표현, 공간 표현, 서술어에 실현되는 높임 표현, 종결 표현 등이 원래의 발화와 달라질 수 있음. 간접 인용된 절에는 조사 ‘고’가 쓰임.

문제로 이해하기

[23004-0009]

01 <보기>를 참고하여 (1)~(4)의 밑줄 친 부분에서 특정 품사의 단어가 어떤 방식을 통해 특정한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는지 쓰시오.

[보기]

단어들은 품사에 따라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간식으로 빵을 제일 좋아한다.’에서 ‘빵을’은 명사가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고, ‘제일’은 부사가 단독으로 부사어로 쓰였으며, ‘좋아한다’는 동사 어간에 종결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였다.

- (1) 앞에 보이는 저곳이 후보지이다.
- (2) 기운을 회복한 말이 내닫기 시작하였다.
- (3) 적들은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 (4) 우리 이제 어른 돼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자.

[23004-0010]

02 ㉠~㉣에서 안간절의 종류를 밝히고, 그 절이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쓰시오.

문장	안간절의 종류	안간절의 기능
㉠ 그 사과는 값이 너무 비싸다.		서술어의 기능
㉡ 샘물은 이가 시리게 차가웠다.		
㉢ 어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있다.	관형사절	
㉣ 동생은 혼자 다니기를 무척이나 싫어했다.		

[23004-0011]

03 다음은 <보기>의 (가), (나) 문장에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을 찾아 그 실현 방법을 파악하는 학습 활동이다.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보기 |

명진: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좋겠네. 특별한 계획 있어?

나연: (가) 할머니 모시고 가족 여행을 떠날 예정이야.

명진: 그렇구나! 어디로 가는데?

나연: (나) 아버지께서 작년처럼 동해안으로 가자고 하셨어.

명진: 동해안이라…….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은 거기서 먹겠구나.

	(가)		(나)	
	실현된 부분	실현 방법	실현된 부분	실현 방법
높임 표현	모시고	㉠	아버지께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서’ 사용
			하셨어	㉡
시간 표현	떠날	㉢	㉣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사용

담화

1 담화의 개념 및 특성

- (1) **개념**: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발화나 문장이 맥락 속에서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드물게 하나의 발화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도 성립할 수 있음.
- (2) **특성**: 발화나 문장들이 모여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용 면에서 통일성, 형식 면에서 응집성을 갖추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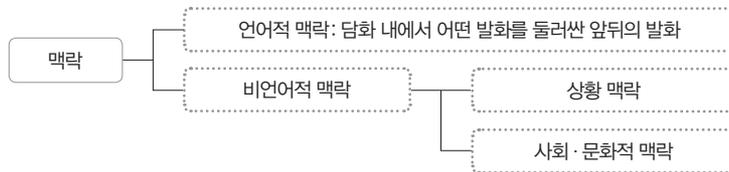
2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문장의 유형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는 발화를 직접 발화라고 하고, 일치하지 않는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함.

직접 발화의 예	간접 발화의 예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크게 말해 달라는 의도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가에 앉은 친구에게 창문을 닫아 달라는 의도로)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추워.

3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담화에서 맥락은 화자와 청자를 둘러싸고 존재하며, 발화를 표현하고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맥락은 크게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로 나뉨.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담화의 수용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 화자(필자), 청자(독자), 목적, 시간, 공간, 환경 등이 구성 요소임.	담화의 수용이나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 국가 및 권력 기관, 제도,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이 포함됨.

※ 담화의 통일성

통일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내용상 유기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을 가리킴.

※ 담화의 응집성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여러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등의 형식적인 요소들에 의해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가리킴.

국어사

1 국어사의 시대 구분

국어는 시대 변화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국어의 변화는 표기, 음운, 문법 등의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졌음. 국어사의 시대는 일반적으로 고대 국어(고려 건국 이전), 중세 국어(고려 건국 이후부터 16세기 말), 근대 국어(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 현대 국어(20세기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음.

2 고대 국어

(1) 표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함.

1) 고유 명사 표기: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인명, 지명 등을 표기함.

예) 素那(或云金川) 白城郡蛇山人也

[현대어 풀이] 소나(素那)(또는 금천(金川)이라고 한다.)는 백성군(白城郡) 사산(蛇山) 사람이다.

한자	뜻	음	한자	뜻	음
素	흰	소	金	쇠	금
那	어찌	나	川	내	천

→ ‘素那’와 ‘金川’은 각기 다른 인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명을 한자의 음을 이용한 방식과 뜻을 이용한 방식으로 표기한 것임.

2) 이두, 구결, 향찰

- ① 이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말의 문장 구성 방식에 따라 한문의 어순을 조정하고 이에 토를 붙인 것
- ② 구결: 한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구절 아래 해당 부분에 조사,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를 표기한 것
- ③ 향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으로, 향가 표기에 사용됨.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여 우리말 문장을 전면적으로 기록한 표기 체계임.

(2) 어휘

중세 국어의 어형과 일치하는 단어들 많이 발견됨. ‘공주(公主), 생사(生死), 혜성(彗星)’ 등의 일반적인 한자어뿐 아니라 ‘왕생(往生), 자비(慈悲)와 같은 불교계 한자어도 나타남. ‘분(筆), 먹(墨)’과 같은 외래어도 나타남.

③ 중세 국어

(1) 표기

- 1) 종성 표기: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여덟 가지(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었기 때문에 받침에도 이 자음들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이어 적기: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적음.
 - 예 ㉠ 누니(눈이), 소닐(손을), 노파(높아)

(2) 음운

1) 자음

- ① 경음(된소리) 계열이 등장함.
 - 예 ㉠ 꿈(꿈), 딸(딸), 뿔(뿔)
- ② ‘ㅃ, ㅍ’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이 존재함.
 - 예 ㉠ 뜯(뜯), 뿔(뿔)
- ③ ‘병(순경음 ㅂ), △(반치음)’ 등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이 쓰였음.
 - 예 ㉠ 셔불(서울), ㄱ술(가을)

2) 모음

- ① 일곱 개의 단모음(ㅏ, ㅑ, ㅣ, ㅓ, ㅕ, ㅗ, ㅛ)과 다양한 이중 모음(ㅑ, ㅓ, ㅕ, ㅗ, ㅛ, ㅜ, ㅠ, ……) 등이 사용됨.
- ② 모음 조화: ‘ㅏ, ㅓ, ㅕ, ㅗ, ㅛ’는 양성 모음이었고 ‘ㅑ, ㅑ, ㅛ, ㅜ’는 음성 모음이었음. ‘ㅣ’는 중성 모음. 현대 국어와 달리 ‘체언+조사’나 ‘용언 어간+어미’ 결합에서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졌음.
 - 예 ㉠ 꿈+을 → 꾸믈, 가+--+는 → 가는

(3) 문법

1) 조사

- ① 주격 조사가 환경에 따라 ‘이, ㅣ, ∅(영형태)’로 실현됨.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ㅣ’, 모음 ‘ㅣ’나 반모음 ‘j’ 뒤에서는 ‘∅’로 나타남.
 - 예 ㉠ 딸쓰미(딸+이), 네(너+ㅣ), 불휘(불휘+∅)
- ② 목적격 조사는 ‘을/를, 을/를, ㄹ’로 실현됨. 선행 체언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을/을’, 모음으로 끝날 때는 ‘를/를’로 나타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를/를’ 대신 ‘ㄹ’이 사용되기도 함.
 - 예 ㉠ 바불(밥+을), 나를(나+를), ㅃ들(ㅃ+을), 너를(너+를), 머릴(머리+ㄹ)

※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음.

예 ㉠ 제쁘들시러떠디물흙노미하니
라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성조의 표기

소리의 고저(높낮이)를 이용하여 단어의 뜻을 구분하기도 했음. 이러한 소리의 고저를 ‘성조’라고 부름. 성조는 방점으로 표기되었음.

예 ㉠ 나랏·말쌈·미(우리나라 말이)

③ 이인칭 주어 의문문

높임이 아닌 평칭에서 이인칭 주어 의문문에 '-니다', '-르다' 등을 사용하였음.

- ㉮ 네 겨집 그려 가던대네가 아 나를 그리워하여 갔느냐?, 네 가 어느 댁 올대(네가 가 어느 때 오겠느냐?)

③ 성조와 방점의 소멸

16세기 후반부터 동요하던 성조가 사라짐에 따라 점차 방점 표기가 없어짐.

- ③ 관형격 조사는 '의/의' 계열과 '사' 계열이 존재함. 평칭의 유정 체언에는 '의/의'로 나타남. 높임의 유정 체언, 또는 무정 체언에는 '사'이 나타남.

예 사스미(사슴+의), 거부빅(거북+의), 부텃(부터+사), 나뭇(나모+사)

- ④ 호격 조사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하'가 있었음.

예 님금하 아르쇼셔(임금이시여, 아소서.)

2) 의문문

- ① 의문사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은 '-뇨', '-료'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에 의해 실현됨.

예 므슴 마를 니르뇨(무슨 말을 이르느냐?)

이 엇던 사름고(이 어떤 사람인가?)

- ②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은 '-녀', '-려'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가/아'에 의해 실현됨.

예 저므며 늘구미 잇느냐(깊으며 늙음이 있느냐?)

이 썩리 너희 쯡가(이 딸이 너희들의 쯡이냐?)

3) 객체 높임 표현

-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존재함.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ㅎ'일 때는 '-습-', 'ㄷ, ㅌ, ㅈ, ㅊ'일 때는 '-줍-', 모음이나 'ㄴ, ㄹ'일 때는 '-습-'으로 실현됨. 또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습-', '-줍-', '-습-'은 각각 '-술-', '-줄-', '-술-'으로 실현됨.

예 如來스 우희 뉘습고(부처님 위에 덮고)

父母의 安否 묻줍고(부모께 안부를 여쭙고)

스승니를 보습고져(스승님을 뵈고자)

4 근대 국어

(1) 표기

- 1) 종성 표기: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를 주로 사용하였음. 발음상으로는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으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함.

예 밋어(믿어), 듯보다(듣보다)

- 2) 거듭 적기: 이어 적기 방식이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표기가 나타남.

예 먹글(먹을), 김피(깊이)

(2) 음운

1) 자음

- ① ‘ㄷ’이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소실됨.
예) 스시>스이>사이, 어버시>아버이
- ② ‘ㅂ’계, ‘ㅃ’계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뀜.
예) 뜯>쫄(뜻), 때>채(때)
- ③ 일부 단어들에서 격음화(거센소리되기)나 경음화(된소리되기)가 나타남.
예) 고키리>코키리(코끼리), 꽃>쑉(꽃)
- ④ 17~18세기에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남.
예) 티다>치다, 윙기디>윙기지

2) 모음

- ① ‘ㆍ’가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ㅡ’로 바뀌고, 18세기에는 첫째 음절에서 주로 ‘ㅏ’로 변화함.
예) 마르치다>마르치다>가르치다
- ②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었던 ‘ㅘ, ㅙ’가 단모음화하여 8개의 단모음 체계(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가 됨. 19세기에는 ‘ㅜ, ㅠ’의 단모음화가 일어남.
- ③ 양순음 아래에서 평순 모음인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변화함.
예) 물>물, 불>불, 붉다>붉다

(3) 문법

- 1) 주격 조사: ‘가’가 등장함. ‘가’는 초기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체언 뒤에 오다가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전체로 확대되어 현대 국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됨.
예) 빙가 올 거시니(배가 올 것이니), 우리가 모로논가(우리가 모르는가?)
- 2) 불규칙 활용: ‘ㄷ’이 소실되면서 ‘ㅅ’ 불규칙 활용으로 변함.
예) 지서>지어, 이서>이어
- 3)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엇-’이 확립됨.
예) 머거 마초앗느니(먹어 갖추었느니), 어미 병들엇거늘(어미 병들었거늘)

※ 두음 법칙의 변화

두음 법칙에 변화가 나타나 모음 ‘i’나 반모음 ‘j’ 앞에 오는 어두의 ‘ㄴ’이 탈락되기 시작함.

- 예) 남금>임금

※ 주격 조사 ‘가’의 출현 시기

16세기 후반의 중세 국어 시기에 도 출현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근대 국어 시기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쓰임.

문제로 이해하기

[23004-0012]

01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보기>의 ㉠~㉢이 가리키는 대상을 모두 밝히시오.

보기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난 상황)

수진: 민지야, ㉠우리가 얼굴 본 게 얼마 만이지?

민지: 아마 한 달 전쯤이었지.

수진: 그래. 내 친구 가은이하고 같이 만났었지.

민지: 맞아! 개하고 호수 공원에 갔었지. ㉡너희는 어떻게 지내?

수진: ㉢우리는 다른 동네 살아도 학교에서 늘 보고 잘 지내. 그런데 오늘 우리 뭐할까?

민지: 오랜만에 ㉣너희 동네 둘레길 갈까? 산책하기 좋은 날이잖아.

㉠	㉡	㉢	㉣

[23004-0013]

02 <보기>의 자료에서 ㉠~㉢과 같은 중세 국어의 특징이 나타나는 구절을 각각 있는 대로 찾아 쓰시오.

보기

- 길히 두 수풀 밧그로 낫고 [풀이] 길이 두 수풀 밖으로 나 있고
- 부텃 뜰들 기피 아습고 [풀이] 부처님의 뜻을 깊이 알고
- 알퓌는 어드본 길헤 [풀이] 앞에는 어두운 길에

중세 국어의 특징	나타나는 구절
㉠ 현대 국어에 없는 자음이 쓰였다.	아습고,
㉡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 무정 체언과 존칭의 대상이 되는 유정 체언 뒤에 ‘시’ 관형격 조사로 쓰였다.	수풀,
㉣ ‘ㅎ’을 끝소리로 가진 체언이 있었다.	

03

[23004-0014]

〈보기〉를 참조하여 제시된 자료에서 ‘제1단계 변화’와 ‘제2단계 변화’에 해당하는 사례를 모두 찾으시오.

[보기]

모음 ‘ㆍ’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단계 변화에서는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ㆍ’가 ‘ㅡ’로 변화하였다. 제2단계 변화에서는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으면서 ‘ㆍ’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자료]

- | | | |
|-----------|-----------|-----------|
| ㉠ 마늘 > 마늘 | ㉡ ㅏ장 > 가장 | ㉢ 오늘 > 오늘 |
| ㉣ 사람 > 사람 | ㉤ ㄷ리 > 다리 | ㉦ 아들 > 아들 |

[해당 사례]

제1단계 변화의 사례	제2단계 변화의 사례

※ 매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양과 질의 변화

매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크게 늘어나 정보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함. 이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정보의 유통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학습의 길잡이

매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매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또한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알고 매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을 알고 이를 의사소통에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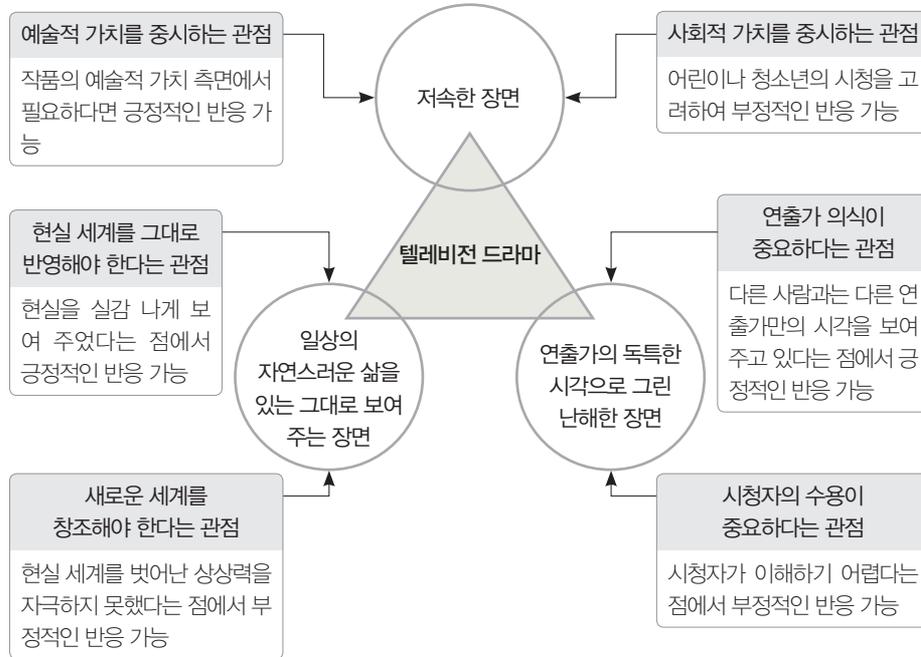
-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여 정보가 구성되고 유통되는 방식에 변화가 생김.
-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 정보의 양과 질,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 정보 제공자 범위의 폐쇄성과 개방성 등에서 차이를 보임.

	(종이)책	인터넷
정보를 제시하는 언어	문자, 사진, 그림, 도표 등	음성, 음향, 문자, 사진, 그림, 영상 등
정보의 양과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에 비해 적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함. • 인터넷보다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에 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용이함. • 책에 비해 검증되지 않은 다수의 정보 제공자가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짐.
정보 제공의 속도와 보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에 비해 정보의 가공과 유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정보 제공 속도가 느림. • 종이 등의 물리적 실체로 보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에 비해 정보 제공 속도가 빠름. • 디지털 저장 장치 등의 저장 기기에 보존함.
정보 제공자의 범위	인터넷에 비해 소수의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폐쇄성을 띠.	책에 비해 정보 제공자가 다양하여 개방성을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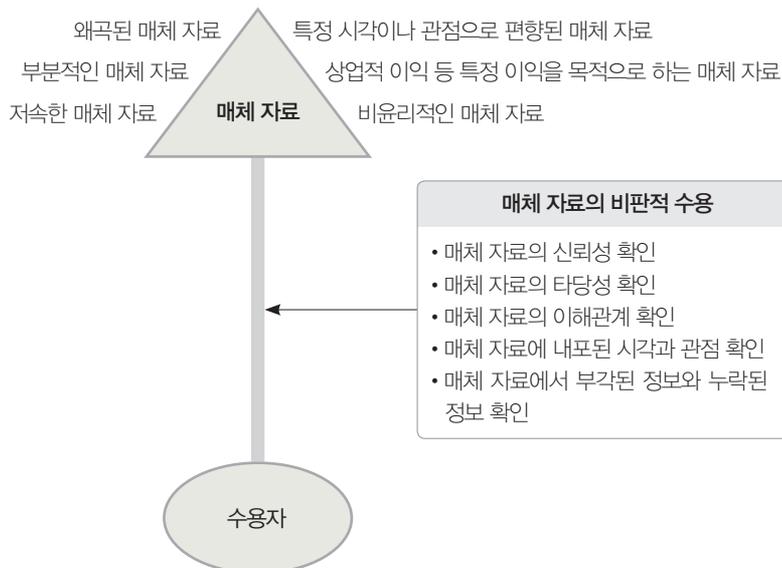
※ 전통적 매체와 뉴 미디어의 대표적 사례로 ‘(종이)책’과 ‘인터넷’을 선정했으며, 이들의 상대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한 것임.

②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 동일한 매체 자료라도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에 따라 평가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동일한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음.



- 정보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함.



※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 칼럼(column)

신문, 잡지 따위의 특별 기고, 또는 그 기고란. 주로 시사, 사회, 풍속 따위에 관하여 짧게 평을 함.

③ 목적, 수용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 소통 목적을 고려한 매체 자료 생산

소통 목적	방법	매체 활용의 예
정보 전달과 설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제시 •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신문의 뉴스나 인터넷 방송 등으로 보도할 때 •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칼럼이나 유시시(UCC) 등으로 밝힐 때
심미적 정서 표현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 제시	화목한 가정의 모습, 사랑하는 연인의 이야기, 뛰어난 자연 경관 등을 영화, 음악, 사진 등으로 나타낼 때
사회적 상호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인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내용 제시 • 공적인 사회적 관계를 위한 내용 제시 	친한 사람 혹은 공동체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휴대 전화, 모바일 메신저, 누리소통망(SNS), 전자 우편 등을 사용할 때

• 수용자를 고려한 매체 자료 생산

고려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의 성별이나 나이는 어떠한가? • 수용자가 다수에 속하는가 혹은 소수에 속하는가? •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배경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 수용자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매체 자료 생산

매체의 언어적 특성 고려	+	매체의 파급력 고려
<p>각 매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양식의 특성을 이해해야 함.</p> <p>예) 전통적 방식으로 볼 때, 신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만 사용하고, 라디오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만 사용함.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와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 모두 사용 가능함.</p>		<p>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파급력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p> <p>예) 신문에 비해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 층에 미치는 영향이 큼.</p>

④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

• 매체 언어의 창의적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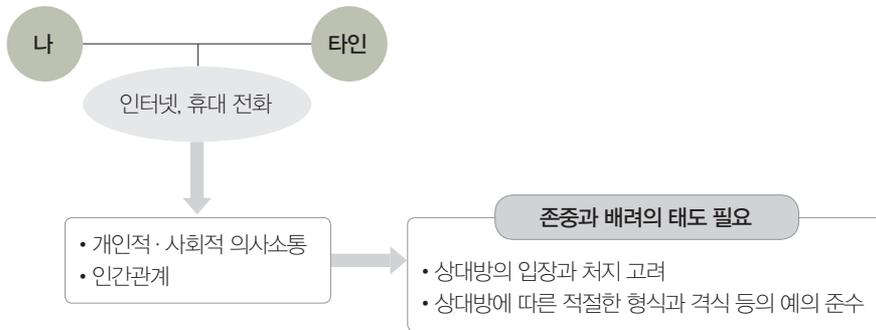
매체 자료	정보 표현에 사용되는 언어	효과
인쇄 매체	문자, 이미지 등의 매체 언어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거나 복합 양식성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영상 매체	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 등의 매체 언어	

•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

매체 자료	정보 표현에 사용되는 언어	효과
소설 (인쇄 매체)	문자(서술자의 서술 등)	사용되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하거나 복합 양식성을 활용하여 각 매체 특유의 심미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음.
영화 (영상 매체)	문자, 소리, 영상 등(배우의 말과 행동, 효과음과 배경 음악, 카메라 움직임과 각도, 화면 편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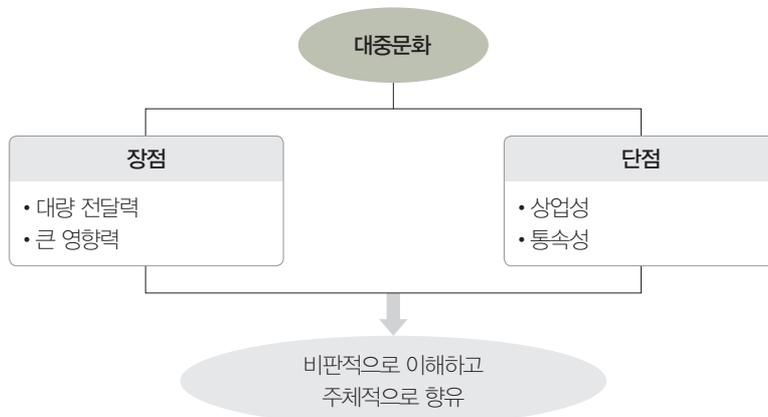
⑤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매체 언어는 개인적·사회적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길러야 함.



⑥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

- 대중 매체로 인해 형성되는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주체적으로 향유할 필요가 있음.



※ 통속성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성질

문제로 이해하기

[23004-0015]

01 <보기>는 현대 매체 언어의 정보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보기 |

오랫동안 인간은 음성과 문자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다.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서나 책을 통해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때도 주로 문자만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전자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음성과 문자뿐만 아니라, 소리와 영상 등을 통합하여 정보를 실재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매체 자료의 특성을 (㉠) (이)라고 한다.

[23004-0016]

02 다음은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떠나는 키팅 선생님을 위해 “오! 선생님, 나의 선생님.”이라고 외치면서 책상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남들이 정해 놓은 삶을 답습하지 말고 그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키팅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학생들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감독은 이 장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다보는 각도로 연출하여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성장하게 된 학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관객들은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보다 문학적으로 체험하면서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상이라는 매체 언어를 사용하는 영화 매체가 (㉠)을/를 활용하여 만든 장면 구도를 통해 영화 매체 특유의 심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3004-0017]

03 다음은 공익 광고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왼쪽은 널리 알려진 동화 「피노키오」의 주인공을 패러디하여 제작한 ‘피노키오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공익 광고이다. 광고는 동화의 주인공이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특징을 패러디하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상기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 광고를 보면 피노키오의 코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나사못은 길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이고, 피노키오의 말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문구는 “괜찮아, 안전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사못을 완전히 조이지 않은 채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에 해당한다. 나사못을 완전히 조여야 안전하다는 진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을 했을 경우 코가 길어진다는 동화 속 설정을 나사못이 튀어나와 있음에도 안전하다고 한 상황과 연결하여 진부한 내용을 (㉠)(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23004-0018]

04 다음 대화에서 학생들이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을 표시하시오.

- 희경: 정보 선생님께서 과목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는데, 생각 좀 해 봤니?
- 광기: 정보라는 과목의 특성상 대부분의 모듈이 정보와 관련된 기술적인 면 위주로 영상을 만들 것 같아. 다른 모듈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신선한 주제가 없을까?
- 범수: ‘인공 지능 윤리’에 대해 다루면 어떨까? 어떤 회사가 만든 챗봇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해서 사회적 파장이 컸었잖아.
- 광기: 좋은 주제 같아. 인공 지능 윤리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영상물로 홍보하면 많은 사람이 인공 지능 윤리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될 수 있을 거야.
- 범수: 인공 지능 윤리의 개념, 필요성, 위반 사례 등 전반적인 것을 담자.
- 희경: 인공 지능 윤리에 관한 것을 다 전달하면 정보의 과잉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영상물의 분량에도 한계가 있으니 다 담을 수도 없을 것이고, 수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중심으로 영상물을 제작하면 어떨까?
- 범수: 좋아. 그러면 영상물을 볼 사람들이 인공 지능 윤리의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는지 설문 조사를 해 보자.
- 희경: 그러려면 먼저 어떤 사람에게 이 영상물을 보여 줄 것인지 정해야 해. 그리고 영상물을 볼 사람들이 인공 지능 윤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 영상물을 만들 수 있을 거야.
- 광기: 영상물을 볼 사람을 우리 학교 학생으로 정하자.
- 희경: 찬성이야. 우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 때문에 영상물을 볼 수용자들의 입장을 좀 더 잘 감안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을 계기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인공 지능 윤리에 대해 잘 알게 된다면 최소한 우리 학교에서만만큼은 인공 지능 윤리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거야.
- 범수: 좋아.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설문지를 만들어 볼게. 다 만들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해 줘.

영상물 제작 시 고려 사항	고려 여부(○, ×)
영상물 제작 목적	
영상물 예상 수용자	
영상물 수용자의 관심 분야	
영상물 제작 시 투입 인원과 시간	
영상물 분량	
영상물의 기대 효과	

💡 학습의 길잡이

언어와 매체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우리 사회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바람직한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국어 생활 및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① 자신의 국어 생활 및 매체 언어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언어 규범과 언어 윤리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
- 맥락과 목적에 적합한 매체를 사용해야 함.

뉴 미디어를 통한 언어생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재미나 흥미를 위해 매체를 활용함. •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함.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설이나 폭언 등의 거친 표현, 차별 표현이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기도 함. • 은어나 언어 규범을 파괴하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함. •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기도 함.
바람직한 매체 언어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삼가야 함. • 매체 언어생활도 국어 생활의 일환인 만큼 언어 규범을 잘 지켜야 함. • 자신의 경험이나 의견 등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과장·왜곡하여 표현하지 않아야 함. • 개인 정보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함.

⊛ 매체 언어생활 성찰의 필요성
 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은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의 파급력이 상당히 큼.

⊛ 저작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

② 현대 사회에서 언어와 매체 언어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문화와 매체 문화의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현대 사회의 매체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매체를 통한 정보의 수용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음. •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비중이 높아지고, 영향력도 커짐. ➔ 매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를 활용한 정보와 지식의 수용 및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매체 언어 활동도 언어생활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맥락과 목적에 적합한 매체 언어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함. ➔ 바람직한 매체 언어생활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함.

문제로 이해하기

[01~02] (가)는 '현우'가 인터넷 친목 카페를 만들기 위해 누리 소통망(SNS)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제작한 인터넷 카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석형이는 발목 다친 거 다 나았어? 현우

석형 응, 이제 다 나았어. 걱정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무슨 일이야?

내가 이번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친목 카페를 인터넷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게 처음이라 너희들 조언 좀 듣고 싶어서 초대했어. 현우

주희 오, 좋은 생각! 카페 이름은 정했어? 카페 성격이 잘 드러나면서 친근감이 들면 좋을 듯. 음, '야옹 사랑' 어때?

민서 오, 이름 좋은데.

나도 마음에 드는데, 일단 후보작으로 올려 둘게. 그런데 어떤 메뉴들로 카페를 구성하면 좋을지 고민이야. 현우

민서 사실 나도 비슷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거든. 내가 가입된 동호회 카페를 참고 해 봐. 여기 주소, <http://www.ooo.kr>
우리 동호회에서는 자기 고양이를 소개하는 게시판이 가장 인기 있어. 이 고양이 사진도 우리 동호회 카페에서 가져온 사진이야. 귀엽지? [파일 전송] cat01.jpg

주희 나도 그 게시판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할 경우 ㉠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알았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 현우

석형 물론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 윤리에 어긋나는 글과 광고성 글들도 많이 생길 거야.

그렇네.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보도록 할게. 현우

(나)

고양이 친목 카페
야옹 사랑

즐거 찾는 멤버 90,334

카페 가입하기

공지 사항
가입 인사
출석 확인

우리 야옹이 소개

찰칵찰칵
함께 나눠요!

전체 글 보기

공지	고양이 건강 관리 강좌 안내 [53]	운영자	2022.12.09.
공지	윤리에 어긋나거나 광고성 글은 삭제 처리 예정 [84]	운영자	2022.12.09.
공지	가입 인사 나누어요. [96]	운영자	2022.12.04.
공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운영자	2022.12.04.
	우리 냥이와 처음 만난 날 [32]	냥이 엄마	2023.01.11.
	왜 밥을 잘 안 먹지??? [12]	냥집사	2023.01.08.
	고양이 탐구생활 1편 [74]	나비부인	2022.12.27.

[23004-0019]

01 (나)와 같은 매체에서 소통할 때의 유의점을 카드 뉴스로 제작하려고 한다. 카드 뉴스에 사용할 문구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 ㄱ.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나누는 소통임을 잊지 마세요.
- ㄴ. 대화 참여자들과 한 사람씩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소통하도록 하세요.
- ㄷ.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는 줄임말, 은어, 한글 파괴형 표현 등은 자제하세요.
- ㄹ. 불특정 다수가 소통 내용을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언어 예절을 지키세요.
- ㅁ. 다른 사람이 제작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려면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23004-0020]

02 ㉠과 ㉡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우'가 (나)에 반영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적용 학습

2
부

[23004-0021]

0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해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최소 대립쌍을 이루려면 두 단어의 분절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하고,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두 음운의 성질이 동질적이어야 해요. 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끼리, 비분절 음운은 비분절 음운끼리 대응해야 하며 자음, 모음, 반모음도 해당 종류끼리 대응해야 해요. 예를 들면 ‘살’과 ‘알’은 분절 음운의 개수가 다르므로, ‘살’과 ‘사이’는 ‘ㄹ’과 ‘ㅣ’가 각각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이제 아래 묶인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눈(目)[눈] - 눈(雪)[눈:], 마리 - 머리, 이마 - 치마, 하루 - 나라, 키 - 아이

학생: ㉠

선생님: 네, 맞아요.

- ① ‘눈(目)’과 ‘눈(雪)’은 장단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 ② ‘마리’와 ‘머리’는 ‘ㅍ’와 ‘ㄷ’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 ③ ‘이마’와 ‘치마’는 ‘ㅇ’과 ‘ㅈ’의 차이에 의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해요.
- ④ ‘하루’와 ‘나라’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음운이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 ⑤ ‘키’의 ‘ㄱ’과 ‘아이’의 ‘ㅏ’가 각각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므로 ‘키’와 ‘아이’는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못해요.

[23004-0022]

02 다음은 국어의 ‘음절’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만을 ㉡~㉣ 중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음절은 홀로 발음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 음절 유형은 크게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 국어는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만 보아도 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이 무엇인지 또는 음절 경계가 어디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나 ㉠ 표기 형태가 실제 발음상의 음절 유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 갓 구운 빵을 ㉡ 종이에 싸서 아이에게 건넸다.
- 아버지께서는 고등어보다는 ㉢ 갈치를 좀 더 선호하셔.
- 학문의 기초가 ㉣ 쌓임에 따라 그는 공부하는 데 점점 재미를 느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3004-0023]

03

〈보기〉는 자음 분류에 대한 학습 내용 및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습 내용] 국어에는 모두 19개의 자음이 존재하는데, 이 자음들은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의 다섯 가지로 나뉘고,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이때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파열음, 파찰음들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다시 평음, 경음, 격음의 세 부류로 나뉘는 것은 국어 자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한편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을 크게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큰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묶어서 장애음으로, 공기의 방해 정도가 약하고 입안이나 코안에서의 울림이 큰 비음과 유음을 묶어서 공명음이라고 부른다.

[학습 활동] 위에서 배운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자음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묶어 보자. (단, 모든 자음을 묶지는 않아도 됨.)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ㅌ, ㅍ, ㅎ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

- 보람: {ㄱ, ㄲ, ㄷ, ㄸ, ㅂ, ㅃ, ㅅ, ㅆ, ㅈ, ㅉ, ㅋ, ㆁ, ㅌ, ㅍ, ㅎ}, {ㄴ, ㄹ, ㅁ, ㅇ}
- 성준: {ㄱ, ㄲ, ㅇ, ㅋ}, {ㄴ, ㄷ, ㄸ, ㄹ, ㅅ, ㅆ, ㅌ}, {ㅁ, ㅂ, ㅃ, ㅍ}, {ㅈ, ㅉ, ㆁ}, {ㅎ}
- 수지: {ㄱ, ㄷ, ㅂ, ㅈ}, {ㄲ, ㄸ, ㅃ, ㅉ}, {ㅋ, ㆁ, ㅌ, ㆁ}
- 연경: {ㄱ, ㄲ, ㄷ, ㄸ, ㅂ, ㅃ, ㅋ, ㆁ, ㅌ, ㅍ}, {ㅈ, ㅉ, ㆁ}, {ㅅ, ㅆ, ㅎ}
- 혁준: {ㄴ, ㅁ, ㅇ}, {ㄹ}

- ① ‘보람’은 모든 자음을 대상으로,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었군.
- ② ‘성준’은 모든 자음을 대상으로, 조음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조음 위치만을 기준으로 묶었군.
- ③ ‘수지’는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약한 자음만을 대상으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 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군.
- ④ ‘연경’은 발음할 때 일어나는 공기의 방해 정도가 큰 자음만을 대상으로, 같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지니는 것끼리 묶었군.
- ⑤ ‘혁준’은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에서의 울림이 큰 자음만을 대상으로, 조음 방법은 적용하지 않고 소리의 세기에 따라 그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군.

[23004-0024]

04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단모음을 혀의 앞뒤 위치와 높낮이, 입술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ㅑ	ㅊ	ㅓ	ㅆ
저모음	ㅕ		ㅗ	

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데 그 위치는 대체로 경구개 부근이고, 후설 모음은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며 연구개 부근과 매우 가깝다. 혀의 높낮이는 입의 벌어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혀의 높이가 높으면 입이 적게 벌어지고 낮으면 입이 많이 벌어진다. 원순 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는 모음이고 평순 모음은 그러지 않는 모음이다.

단모음들 간의 차이는 단모음의 분류 기준과 관련된다.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을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차이점이 많아질수록 두 모음의 관계는 멀어진다. 예를 들어 ‘ㅓ’와 ‘ㅑ’는 혀의 앞뒤 위치에서만 차이를 보이므로 가까운 관계이지만 ‘ㅓ’와 ‘ㅊ’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서로 먼 관계이다.

- ① ‘ㅡ’를 발음할 때보다 ‘ㅓ’를 발음할 때 입이 보다 많이 벌어진다.
- ② ‘ㅊ’에서 ‘ㅆ’로 발음을 바꿀 때는 혀의 최고점이 연구개 부근으로 옮겨 간다.
- ③ ‘ㅑ’와 혀의 앞뒤 위치, 혀의 높낮이가 같으면서 입술 모양만 둥근 모음은 ‘ㅊ’이다.
- ④ ‘ㅊ’를 발음할 때와 ‘ㅆ’를 발음할 때 모두 혀의 높이가 고모음보다 낮고 저모음보다 높다.
- ⑤ 단모음의 분류 기준으로 두 모음의 관계를 판단하면, ‘ㅊ’와 ‘ㅑ’보다는 ‘ㅊ’와 ‘ㅆ’가 더 가깝다.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단모음 앞에서 단모음이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하며, 두 개의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 (1) 가. 쓰- + -어 → [씨]
 나. 가- + -아서 → [가서]
- (2) 가. 이기- + -어라 → [이겨라]
 나. 배우- + -어도 → [배워도]
- (3) 가. 뛰- + -어 → [뛰어/뛰여]
 나. 동생 + 이- + -오 → [동생이오/동생이요]

(1가)는 용언 어간 끝의 ‘-’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 탈락의 예이다. (1나)는 어간 끝 모음과 어미 첫 모음이 동일할 때 일어나는 동일 모음 탈락의 예이다. 모음 탈락은 매우 규칙적인 현상으로, ‘씨[씨]’와 ‘가서[가서]’에서 보는 것처럼 표기에도 적용되어 줄어든 대로 적는다.

(2)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남을 보여 주는 예이다. (2가)는 어간 ‘이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이겨라]로 발음될 때, 용언 어간의 단모음 ‘i’가 반모음 ‘j’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2나)는 어간 ‘배우-’와 어미 ‘-어도’가 결합해 [배워도]로 발음될 때, 단모음 ‘u’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이 두 가지 반모음화를 각각 ‘j’ 반모음화, ‘w’ 반모음화라고 부른다. 반모음화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음절 수는 줄게 된다.

(3)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가 활용할 때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는 예이다. 이것은 ‘ㄱ’과 ‘l’ 뒤에 오는 어미 ‘-어, -오’에 반모음 ‘j’가 덧붙여 [여, 요]로 발음되는 것인데, [어, 오]와 함께 [여, 요]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어간 모음의 종류에 따라 첨가되는 반모음이 달라지는데, 어간 모음이 ‘i, ɰ, ɰ’인 경우에는 반모음 ‘j’가 첨가되고 어간 모음이 ‘ɰ, ɰ’인 경우에는 반모음 ‘w’가 첨가된다. 반모음 ‘w’가 첨가되는 예로는 ‘보- + -아라 → [보와라]’ 등이 있는데, 이런 ‘w’ 첨가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음의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와 관련하여, 국어에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인접하는 것은 발음상 그리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이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23004-0025]

05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음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크-+-□서 → [커서], 나서-+-□도 → [나서도], 견디-+-□야 → [견더야]

- ① ㅡ ② ㄱ ③ ㅏ ④ j ⑤ w

[23004-0026]

0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이 젓갈은 6월에 잡은 새우로 ㉠답가서[답가서] 육젓이라고 한다.
- 그녀는 자랑삼아 보석 반지를 나에게 ㉡보여[보여] 주었다.
- 선원들은 거친 파도와 굽주림과 ㉢싸워야[싸워야] 했다.
- 여의도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피여] 있다.
- 나는 그의 보호자가 ㉤아니오[아니요].

- ① ㉠: 용언 어간의 끝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둘 다 ‘ㅏ’라서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② ㉡: 용언 어간 끝의 ‘ㅇ’ 뒤에 오는 어미 ‘-어’에 반모음 ‘j’가 덧붙은 것으로, 음절 수에는 변화가 없다.
 ③ ㉢: 용언 어간 끝의 ‘ㄴ’이 어미 ‘-어야’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뀐 것으로, 음절 수는 줄어들었다.
 ④ ㉣: 용언 어간 끝의 ‘ㅣ’가 어미 ‘-어’ 앞에서 반모음 ‘j’로 바뀐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⑤ ㉤: 용언 어간 끝의 ‘ㅣ’ 뒤에 오는 어미 ‘-오’에 반모음 ‘w’가 덧붙은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23004-0029]

03 (가)를 참고할 때, (나)의 음운 변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국어의 자음 체계

조음 위치		양순음 (입술소리)	치조음 (잇몸소리)	경구개음 (센입천장소리)	연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후음 (목청소리)
파열음	평음(예사소리)	ㅂ	ㄷ		ㄱ	
	경음(된소리)	ㅃ	ㄸ		ㄲ	
	격음(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평음(예사소리)			ㅈ		
	경음(된소리)			ㅉ		
	격음(거센소리)			ㅊ		
마찰음	평음(예사소리)		ㅅ			ㅎ
	경음(된소리)		ㅆ			
	격음(거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나)

닫는[닫는], 밥 먹는다[밤명는다], 신라[실라]

- ①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
- ②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은 바뀌지 않고 조음 위치만 바뀐다.
- ③ 서로 인접한 두 자음의 선행하는 자음과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뀐다.
- ④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와 같아진다.
- ⑤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이 선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과 같아진다.

[23004-0030]

04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우리말에는 음절의 구조에 제약이 존재한다. 그중 종성에 대한 제약으로는 ㉠종성에 오는 자음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과 ㉡종성에 오는 자음의 가짓수를 제한하는 것이 있다. 국어의 형태소 중에는 겹받침을 가지거나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지 못하는 자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은데, 이 경우 자음이 탈락하거나 다른 자음으로 바뀌어서 종성에 대한 제약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 ① ‘삶’이 [삼:]으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 ② ‘뭍자’가 [묵짜]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 ③ ‘값다’가 [갑따]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 ④ ‘빚다가’가 [빈따가]로 발음되는 것은 ㉡과 관련된다.
- ⑤ ‘옳고’가 [읍꼬]로 발음되는 것은 ㉠, ㉡ 모두와 관련된다.

[23004-0031]

0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표준 발음법 제12항은 받침 ‘ㅎ’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 받침으로 쓰인 ‘ㅎ’은 뒤에 어떤 말이 오든 원래 음가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교체, 탈락, 축약 등의 음운 변동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놓는[논는]’처럼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된다. ‘놓아[노아], 놓이다[노이다]’처럼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이 발음되지 않는다. 또 ‘놓고[노코], 놓다[노타], 놓자[노차]’처럼 ㉢‘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서 [ㅋ, ㅌ, ㅊ]으로 발음된다.

	㉠	㉡	㉢
①	닿아[다라]	많아[마:나]	낱은[나은]
②	쌍는[싼는]	싫어[시러]	닿지[달치]
③	낱아[나아]	쌍지[싸치]	종던[조:턴]
④	얹은[아는]	끓어[고라]	얹고[안코]
⑤	종네[존:네]	많고[만:코]	쌍인[싸인]

[23004-0032]

06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표준 발음법 자료]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붙임]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ㄹ ㄷ ㄱ ㄴ’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쯤, 처’는 [저, 쯤,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례’ 이외의 ‘ㄷ’는 [ㄷ]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는 [ㄴ]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로,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① ‘제4항’의 [붙임]을 보니, ‘기회’의 ‘ㅛ’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겠구나.
- ② ‘제5항’의 ‘다만 1’을 보니, ‘가져’의 ‘ㅊ’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하겠구나.
- ③ ‘제5항’의 ‘다만 2’를 보니, ‘예의’의 ‘ㄷ’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하겠구나.
- ④ ‘제5항’의 ‘다만 3’을 보니, ‘희망’의 ‘ㄴ’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하겠구나.
- ⑤ ‘제5항’의 ‘다만 4’를 보니, ‘의사의’의 첫음절의 ‘ㄴ’와 세 번째 음절의 ‘ㄴ’는 둘 다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겠구나.

[23004-0033]

0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가)~(다)의 형태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가리킨다. 형태소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분류할 수 있다.

- (가) 오늘은 꽃잎이 휘날렸다.
 (나) 살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다) 그곳은 아직도 많이 춥니?

- ① (가)는 4개의 실질 형태소와 6개의 형식 형태소로 분석된다.
- ② (가)의 ‘휘날렸다’에는 자립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나)의 ‘살-’과 ‘있-’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④ (나)의 ‘-다가’, ‘-면’, ‘-르’, ‘-다’는 어미이므로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 ⑤ (다)에는 3개의 자립 형태소와 5개의 실질 형태소가 존재한다.

[23004-0034]

02

〈보기〉를 바탕으로 단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단어의 구조를 분석할 때, 단어 형성의 각 단계의 구성에 참여하는 요소를 그 구성의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큰부리새’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부리’와 ‘새’, ‘큰부리’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과 ‘부리’, ‘큰’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크-’와 ‘-(으)ㄴ’이다. 셋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는 각 단계에서 분석되는 직접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그 역할에 따라 어근과 접사로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단한다. ‘큰부리새’의 경우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인 ‘큰부리’와 어근인 ‘새’이므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 ① ‘눈높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눈’과 어근 ‘높이’이므로 합성어이다.
- ② ‘팔죽집’은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팔죽’과 어근 ‘집’이므로 합성어이다.
- ③ ‘미담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미담-’과 접사 ‘-이’이므로 파생어이다.
- ④ ‘겉넓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겉’과 어근 ‘넓이’이므로 합성어이다.
- ⑤ ‘장대높이뛰기’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 ‘장대높이’와 어근 ‘뛰기’이므로 합성어이다.

[23004-0035]

03 <보기>를 바탕으로 접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접두사와 접미사는 다양한 품사의 어근에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다. 접두사는 어근에 어휘적 의미를 더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파생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접미사는 파생 과정에서 어근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경우가 있으며, 파생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 ① ‘덧저고리, 덧대다’를 보니 접두사 ‘덧-’은 명사에도 결합하고 동사에도 결합하는구나.
- ② ‘군말, 군살’을 보니 접두사 ‘군-’은 ‘쓸데없는’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어근에 더해 주는구나.
- ③ ‘잠꾸러기, 욕심꾸러기’를 보니 어근에 접미사 ‘-꾸러기’가 결합하면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지는구나.
- ④ ‘늦추다, 낮추다’를 보니 접미사 ‘-추-’는 어근 ‘늦-’과 ‘낮-’에 사동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구나.
- ⑤ ‘꽃과일, 헛디디다’를 보니 접두사 ‘꽃-’과 ‘헛-’이 어근에 결합해도 파생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와 달라지지 않는구나.

[23004-0036]

04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합성어는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뉩니다.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명사’, ‘관형사+명사’, ‘부사+부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와 같이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이 우리말 문장에서 단어들 배열되는 일반적인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가리키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명사’, ‘용언의 어간+용언의 어간’과 같이 어근의 결합 방식이 우리말 문장에서 단어들 배열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어긋난 합성어를 가리키지요. 그렇다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의 사례를 말해 볼까요?

학생:

㉠

- ① ‘곤잘’은 ‘부사+부사’의 구성을 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새신랑’은 ‘관형사+명사’의 구성을 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덮밥’은 ‘용언의 어간+명사’의 구성을 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④ ‘이른바’는 ‘용언의 관형사형+명사’의 구성을 보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⑤ ‘꿇주리다’는 ‘용언의 어간+용언의 어간’의 구성을 보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23004-0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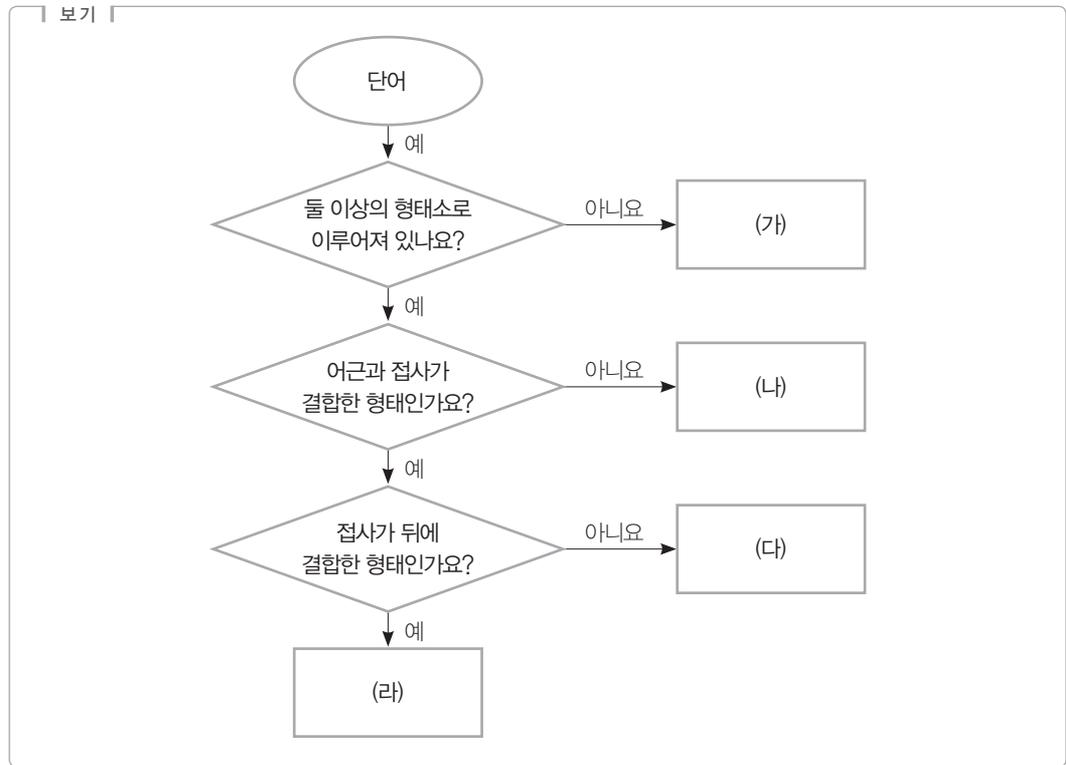
05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날 때,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주격 조사 ‘이’와 ‘가’는 문법적 기능은 같지만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는 ‘이’가 사용되고, 모음일 때는 ‘가’가 사용된다. 어떤 이형태는 앞에 오는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이나 모음이나 혹은 앞에 오는 어간의 모음이 ‘ㅏ, ㅑ’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분포가 달라지는 음운론적 조건을 따른다. 이처럼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교체되는 이형태를 ㉠ 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한다. 한편 음운론적 조건이 아닌 다른 조건에 따라 교체가 실현되는 이형태도 존재하는데, 형태론적 이형태는 앞에 오는 말의 형태에 따라 교체가 실현되는 이형태이다.

- ① — 나는 책을 읽는다.
— 어제 나무를 심었다.
- ② — 나는 어제 영화를 보았다.
— 작년 소풍날은 날씨가 긷었다.
- ③ — 도착하여서 연락해라.
—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한다.
- ④ — 개는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다.
— 저 웃은 내 것과 다르다.
- ⑤ — 내 손을 꼭 잡아라.
— 천천히 먹어라.

[23004-0038]

06 <보기>의 (가)~(라)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나)	(다)	(라)
①	구름	돌다리	민무늬	높푸르다
②	하늘	논밭	맨손	정답다
③	나비	일찍이	군식구	슬기롭다
④	나무	곳곳	힘세다	놀이
⑤	강물	하얀색	밤낮	넓이

[23004-0039]

01 <보기>의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에 소속된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 부류에 동시에 소속되는 일이 있는데 이를 ㉠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그는 합리적이다.’에서와 같이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는 합리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에서와 같이 명사인 ‘사고’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 또 ‘굳다’의 경우 ‘밀가루 반죽이 굳는다.’에서처럼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굳은 결심’에서처럼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 ① 그는 공을 차고 있다.
 └ 겨울 날씨가 매우 차다.
- ② 사과 다섯 개를 샀다.
 └ 돌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 ③ 주는 만큼 받는다.
 └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④ 이긴 정말이야.
 └ 그 약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⑤ 형이 동생보다 발이 더 크다.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23004-0040]

02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용언을 규칙 용언이라고 하고, 어간이나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용언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굽다’의 경우 ‘굽고, 굽으니, 굽어’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일정한 모습을 보이므로 규칙 용언입니다. 물론 ‘(과일을) 갈다’는 ‘갈다, 가니’와 같이 어간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해도 ‘ㄹ’을 어간 말음으로 갖는 용언의 활용은 항상 같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규칙 용언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굽다’의 경우 ‘굽고, 구우니, 구워’와 같이 어간의 형태가 변하며 이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불규칙 용언에 해당하지요. 다음 단어가 규칙 용언인지 불규칙 용언인지 판단해 볼까요?

(집을) 짓다

(가슴에 비밀을) 묻다

(밥을) 푸다

(꽃을) 뽑다

(국어를) 공부하다

학생:

㉠

- ① ‘짓다’는 ‘지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므로 불규칙 용언입니다.
- ② ‘묻다’는 ‘문어’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용언입니다.
- ③ ‘푸다’는 ‘퍼’와 같이 활용할 때 어미의 형태가 변하므로 불규칙 용언입니다.
- ④ ‘뽑다’는 ‘뽑아’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규칙 용언입니다.
- ⑤ ‘공부하다’는 ‘공부하여’와 같이 활용할 때 어미의 형태가 변하므로 불규칙 용언입니다.

[23004-0041]

03 <보기>의 ㉠~㉥에 쓰인 보조 용언의 기능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장 안에서 독자적으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용언을 본용언, 본용언과 함께 쓰여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 쓰여 다양한 기능을 한다.

- ㉠ 나는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썼다.
- ㉡ 나는 새로 장만한 옷을 입어 보았다.
- ㉢ 아이들이 깔깔 웃어 댄다.
- ㉣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
- ㉤ 동생이 간식을 다 먹어 버렸다.

- ① ㉠의 보조 용언 ‘나다’는 ‘책을 읽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② ㉡의 보조 용언 ‘보다’는 ‘옷을 입는’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③ ㉢의 보조 용언 ‘대다’는 ‘웃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그 행동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④ ㉣의 보조 용언 ‘싶다’는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⑤ ㉤의 보조 용언 ‘버리다’는 ‘간식을 먹는’ 행동의 지속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23004-0042]

04 다음은 부사격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단어 중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 조사들과 달리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이유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이 단순히 격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적인 것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또 부사격 조사는 같은 형태라도 쓰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부사격 조사 ‘에’는 문맥에 따라 ㉠처소, ㉡시간, ㉢이유나 원인, ㉣수단, ㉤기준이 되는 대상 또는 단위 등을 나타낸다.

- ① ㉠: 그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있다.
- ② ㉡: 오늘은 아침 6시에 일어났다.
- ③ ㉢: 나는 요란한 천둥소리에 잠을 깼다.
- ④ ㉣: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
- ⑤ ㉤: 나는 하루에 네 번씩 이를 닦는다.

[23004-0043]

05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지유는 옛 친구를 만났다.
 (나) 이 두 사람이 우리 반 대표로 뽑혔다.
 (다) 그것 말고 다른 물건을 좀 보여 주세요.
 (라) 이 모든 현 옷들을 다 갖다 버려라.

- ① (가)의 ‘옛’을 보니 관형사는 수식하는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를 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② (나)의 ‘이’를 보니 지시 관형사가 다른 관형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구나.
 ③ (나)의 ‘두’를 보니 관형사는 수식하는 체언의 수량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구나.
 ④ (다)의 ‘다른’을 보니 관형사의 형태가 용언의 활용형과 같은 경우도 있구나.
 ⑤ (라)의 ‘이 모든 현’을 보니 여러 개의 관형사를 나열할 때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가 맨 뒤에 놓이는구나.

[23004-0044]

06 ㉠, ㉡의 사례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의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 중심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확장되어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이러한 의미를 ㉡ 주변 의미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손’은 인체의 한 부분을 뜻하는데 이것이 ‘손’의 중심 의미이다. 그런데 ‘손’이 ‘손(노동력)이 모자라다.’, ‘손(쌈씀이)이 크다.’ 등 여러 상황에 옮겨 쓰이면서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가 주변 의미이다.

- ① 다리 { ㉠: 그는 축구를 하다 다리에 쥐가 났다.
 ㉡: 이 식탁은 다리가 짧아 사용하기 불편하다.
 ② 먹다 { ㉠: 나는 자꾸 기침이 나서 약을 먹었다.
 ㉡: 숨이 물을 먹어서 무겁다.
 ③ 살다 { ㉠: 그는 백 살까지 살았다.
 ㉡: 잿더미에 불씨가 아직 살아 있다.
 ④ 입 { ㉠: 아이가 밥을 먹으려 입을 벌렸다.
 ㉡: 아들이 떠나면서 집에 입이 하나 줄었다.
 ⑤ 뼈 { ㉠: 형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다.
 ㉡: 이 작품의 뼈만 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23004-0045]

01 <보기>에 제시된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활동]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예문]을 탐구해 보자.

문장 성분은 해당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문장의 구성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구분된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부분으로 필수 성분이고, 부속 성분은 주로 주성분을 꾸며 주는 성분이다. 그리고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 관계를 맺지 않는 성분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주성분에 속하고, 관형어, 부사어는 부속 성분에 속한다. 그리고 독립어는 독립 성분에 속한다.

[예문] ㉠물은 ㉡얼음이 ㉢되었다.

- ① ㉠ 앞에 ‘과연’을 삽입하면 부속 성분이 문장에 포함된다.
- ② ㉠ 앞에 ‘차가운’을 삽입해도 문장은 주성분으로만 구성된다.
- ③ ㉠을 ‘물이’로 바꾸어도 문장 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을 ‘얼음으로’로 바꾸면 보어 대신에 부사어가 문장에 포함된다.
- ⑤ ㉢을 ‘아니었다’로 바꾸어도 문장은 필수 성분으로만 구성된다.

[23004-0046]

0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한다. ㉠다의어의 경우 같은 형태의 서술어라도 의미에 따라 서술어의 자릿수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에게 책을 빌렸다.’에서 ‘빌리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지만, ‘나는 일손을 빌렸다.’에서 ‘빌리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① { 잘 가던 손목시계까지 멈추었다.
우리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 ② { 어제는 온종일 함박눈만 내렸다.
하늘에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 ③ { 동생은 형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그 사람들은 개울에 다리를 놓았다.
- ④ { 우리는 수레를 뒤에서 힘껏 밀었다.
그 친구들은 나를 반장으로 밀었다.
- ⑤ { 은행에서 고객의 집을 담보로 잡았다.
잠복하던 경찰이 범행 현장을 잡았다.

[23004-0047]

03 <보기>의 ㉠, ㉡에서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사실 그 아이는 맨 먼저 어머니의 옆을 지켰다.
 ㉡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지는 달을 바라보았다.

- ① ㉠의 ‘그’는 지시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② ㉠의 ‘맨’은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③ ㉠의 ‘어머니의’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④ ㉡의 ‘학교’는 관형격 조사의 결합 없이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⑤ ㉡의 ‘지는’은 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되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23004-0048]

04 <보기>의 ㉠~㉢에서 밑줄 친 부분의 시간 표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어제 보니 우리 동네에 가게가 새로 생겼더라.
 ㉡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을 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 이 강은 예전엔 맑았었는데 현재는 오염되었다.

- ① ㉠의 ‘생겼더라’에서 ‘-더라’는 과거에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의 ‘갈라진’에서 ‘-ㄴ’은 논바닥이 갈라진 것이 과거에 완료되어 갈라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의 ‘맑았었는데’에서 ‘-았었-’은 강이 맑은 것이 현재에 지속되지 않는 과거의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의 ‘생겼더라’, ㉡의 ‘지었다’에서 ‘-었-’은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일이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나타내고 있다.
 ⑤ ㉠의 ‘어제’, ㉢의 ‘예전’은 일이 일어난 시점이 과거임을 나타내고 있다.

[23004-0049]

05 <보기>를 참고하여 ㉠,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사동문은 주로 사동사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사동사는 대개 대응하는 주동문의 동사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동사가 쓰이지 않더라도 용언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되어 쓰이면 사동문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에는 여러 가지의 변화가 동반되는데, ㉠, ㉡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동문		사동문	
아들이 약을 먹었다.	→	어머니가 아들에게 약을 먹였다.	㉠
오빠가 집에 남았다.	→	우리가 오빠를 집에 남겼다.	㉡

- ① ㉠의 사동사에는 접미사 ‘-이-’, ㉡의 사동사에는 접미사 ‘-기-’가 결합되었다.
- ② ㉠, ㉡의 사동문에는 각각의 주동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 포함되었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주동사의 어간에 ‘-게 하다’를 붙여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 ④ ㉠, ㉡에서 사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동문의 서술어의 자릿수보다 각각 한 자리씩 늘었다.
- ⑤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은 사동문에서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고, ㉡의 주동문에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은 사동문에서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쓰였다.

[23004-0050]

06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객체 높임 표현은 화자가 문장의 객체, 곧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 높임 표현이 실현된 문장의 예를 들어 볼까요?

- ① 우리는 아버님께 용돈을 챙겨 드렸다.
- ② 그들은 손님을 안방으로 모시고 왔다.
- ③ 어머니께 여쭙어보니 궁금증이 풀렸다.
- ④ 엇그제 뵈 선생님은 누구보다 멋있었다.
- ⑤ 나는 그때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보았다.

[23004-0051]

01 <보기>에서 ㉠~㉣의 문장 성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그 형은 물도 샀다.
- ㉡ 경치도 아름다웠다.
- ㉢ 그는 대학생은 아니었다.
- ㉣ 나는 그에게 빵을 주었다.

- ① ㉠, ㉢은 주성분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다.
- ② ㉡, ㉣은 모두 주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 ③ ㉠, ㉣은 모두 목적어를 문장에 포함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은 부속 성분이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⑤ ㉡, ㉣의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동일하다.

[23004-0052]

02 <보기>의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그는 밥을 ㉠먹고 갔다.
- 그는 밥을 ㉡먹지 않았다.
- 그는 밥을 ㉢먹고 있지 않았다.
- 그는 밥을 ㉣먹고 가지 않았다.
- 그는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 ① ㉠: 본용언 두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 ② ㉡: 본용언 한 개, 보조 용언 한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 ③ ㉢: 본용언 한 개, 보조 용언 두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 ④ ㉣: 본용언 두 개, 보조 용언 한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 ⑤ ㉤: 본용언 두 개, 보조 용언 두 개로 구성된 서술어이다.

[23004-0053]

03 다음은 [활동]과 이를 수행한 '학생 1, 2'의 답이다. [A],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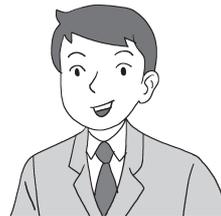
[활동] 문장의 구조(짜임)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워 ㉠~㉥을 분류하시오.

㉠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았다.
 ㉡ 비가 오니까 지금은 나가지 않겠다.
 ㉢ 음색이 부드러웠지만 성량은 풍부하지 않았다.
 ㉣ 전에 만난 형은 마음은 좋으나 현명하지 못했다.

학생 1: 나는 [A] 를
 기준으로 '㉢'과 '㉠, ㉡,
 ㉣'의 두 부류로 나누었어.



학생 2: 나는 [B] 를
 기준으로 '㉠, ㉢, ㉣'과
 '㉡'의 두 부류로 나누었어.



	[A]	[B]
①	안긴절을 포함한 겹문장인지의 여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겹문장인지의 여부
②	안긴절을 포함한 겹문장인지의 여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인지의 여부
③	두 절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인지의 여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겹문장인지의 여부
④	두 절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인지의 여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인지의 여부
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인지의 여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겹문장인지의 여부

[23004-0054]

04 <보기>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어떤 말이나 생각을 간접 인용한 내용이 절의 형식으로 포함될 것.
- 어떤 행동을 함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활용형이 포함될 것.

- ①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라고 말했다.
- ②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냐고 말했다.
- ③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자고 말했다.
- ④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해.”라고 말했다.
- ⑤ 형이 나에게 “만나서 같이 출발하자.”라고 말했다.

[23004-0055]

05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피동문에는 주로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가 쓰인다. 하지만 ㉠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능동사도 있고, ㉡ 접미사에 의한 피동사가 존재하지만 특정 문맥에서는 피동사가 쓰일 수 없는 능동사도 있다.

	㉠	㉡
①	그는 수능 성적표를 형에게 주었다.	외삼촌은 오빠한테 이 책을 얻었다.
②	그는 수능 성적표를 형에게 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배웠다.
③	그 언니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그는 수능 성적표를 형에게 주었다.
④	나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배웠다.	외삼촌은 오빠한테 이 책을 얻었다.
⑤	나는 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배웠다.	그 언니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23004-0056]

06 다음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선생님: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 ㉡을 여러 형태의 부정문으로 바꾸어 보고, 그 특징을 설명해 볼까요?

[자료]

‘안’ 부정문에서 짧은 부정은 부정하는 말 앞에 ‘안/아니’를 사용하고, 긴 부정은 부정하는 말 뒤에 ‘-지 않다/-지 아니하다’를 사용한다. 그리고 ‘못’ 부정문에서 짧은 부정은 부정하는 말 앞에 ‘못’을 사용하고, 긴 부정은 부정하는 말 뒤에 ‘-지 못하다’를 사용한다. 한편 ‘안’ 부정문이나 ‘못’ 부정문에는 ‘결코’, ‘전혀’ 등과 같은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 동생은 귀엽다.

㉡ 그는 교육자답다.

학생:

【 보기 】

- a. ㉠은 짧은 부정을 통해 ‘안’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b. ㉠은 짧은 부정이든 긴 부정이든 ‘안’ 부정문일 때 주어 뒤에 ‘결코’가 쓰일 수 있습니다.
 c. ㉠은 긴 부정을 통해 ‘안’ 부정문으로, ㉡은 긴 부정을 통해 ‘못’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d. ㉠, ㉡은 모두 ‘안’ 부정문이든 ‘못’ 부정문이든 긴 부정일 때 주어 뒤에 ‘전혀’가 쓰일 수 없습니다.

① a, d

② b, c

③ c, d

④ a, b, c

⑤ a, b, d

[23004-0057]

01 <보기>의 ㉠~㉣ 중 '주어'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주어는 문장이나 절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주체, 성질이나 상태를 지닌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이다. 주어는 체언 혹은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격 조사가 붙어 나타나는데, 격 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고 격 조사 대신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 ㉠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 오빠가 ㉡ 장학생이 아니라니 정말 의외였다.
- ㉢ 선생님께서 오시니 학생들이 인사를 했다.
- ㉣ 밤도 늦었고 비까지 내리니 갈 수 없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3004-0058]

02 <보기>에서 ㉠~㉣의 밑줄 친 부분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나는 무표정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사태가 진정되기만 기다렸다.
- ㉡ 나는 그가 냉소적인 것은 알았지만, 그가 내 잘못을 가감 없이 지적해 우울했다.
- ㉢ 당시 우리는 학생들이 지나가도록 비켜 주었으나, 학교로 뛰어가던 그들은 멈추었다.

- ① ㉠의 '사태가 진정되기'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지 않았지만 목적어 기능을 하는 명사절이다.
- ② ㉡의 '그가 냉소적인'은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어의 형식으로 나타낸 서술절이다.
- ③ ㉠의 '사태가 진정되기', ㉡의 '그가 냉소적인'은 모두 필수 성분을 다 갖춘 절이다.
- ④ ㉠의 '무표정한', ㉢의 '학교로 뛰어가던'은 모두 절에 주어와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형사절이다.
- ⑤ ㉡의 '가감 없이', ㉢의 '학생들이 지나가도록'은 모두 부사어 기능을 하는 절이다.

[23004-0059]

0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동작상은 사건을 이루는 동작의 시간적 모습을 표시하는 문법 범주인데, 이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동작상이 쓰인 문장 중에는 ㉠ 문맥에 따라 진행상과 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 ①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다.
- ② 아저씨는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 ③ 실험실의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 ④ 우리 형이 빵을 다 먹어 버렸다.
- ⑤ 아름다운 장미꽃이 시들어 갔다.

[23004-0060]

04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탐구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 ㉡에 공통적으로 쓰인 높임 표현을 탐구해 보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니는 어제 수업이 없으신 선생님께 틀린 문제를 여쭙어보았다. ㉡ 책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아끼시던 고서를 학교에 기증하셨어요. </div>
탐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서는 ‘없으신’, ‘선생님께’, ‘여쭙어보았다’에 높임 표현이 드러나 있고, ㉡에서는 ‘많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아끼시던’, ‘기증하셨어요’에 높임 표현이 드러나 있다. • ㉠에서는 ‘수업’, ‘선생님’이 높임 표현과 관련되고, ㉡에서는 ‘책’, ‘할아버지’, ‘청자가 높임 표현과 관련된다.
탐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에는 공통적으로 [A] 이 포함되어 있다.

- ① 보조사를 통해, 부사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인 객체 높임 표현
- ② 특수한 어휘를 통해,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인 주체 높임 표현
- ③ 특수한 어휘를 통해, 목적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높인 객체 높임 표현
- ④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높인 간접 주체 높임 표현
- ⑤ 부사격 조사를 통해,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대상을 높인 간접 주체 높임 표현

[23004-0061]

05 <보기>의 ㉠~㉣을 통해 피동·사동 표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피동문: ㉠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졌다.
 ㉡ 용광로에서 쇠가 녹여졌다.
- 사동문: ㉢ 외삼촌이 이삿짐을 옮겼다.

- ① ㉠을 ‘형’이 주어인 능동문으로 바꾸면 그 문장에는 목적어가 포함된다.
- ② ㉡은 피동 접미사가 두 번 결합된 서술어가 쓰였기 때문에 어법에 맞지 않는다.
- ③ ㉡을 ‘그’가 주어인 문장으로 바꾸면 ‘그가 용광로에서 쇠를 녹였다.’가 된다.
- ④ ㉢은 사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사동문으로, 대응되는 주동문을 만들기 어렵다.
- ⑤ ㉠, ㉡은 모두 용언 어간에 ‘-어지-’가 결합된 ‘-어지다’ 피동이 사용되었다.

[23004-0062]

06 [A]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선생님: 다음을 탐구하여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직접 인용] 어제 승찬이는 나에게 “내일 나는 영화관에 안 갈 것 같다.”라고 했다.

↓

[간접 인용] 어제 승찬이는 나에게 _____ 같다고 했다.

학생: 간접 인용이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 기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밑줄 친 부분에서는 [A]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 보기 」

시간 표현, 인칭 표현, 부정 표현

- ① 시간 표현
- ② 인칭 표현
- ③ 시간 표현, 인칭 표현
- ④ 시간 표현, 부정 표현
- ⑤ 인칭 표현, 부정 표현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담화의 응집성은 여러 가지 형식적 장치를 통해 각 문장이나 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을 말한다.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의미적 등가(等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제 문구점에서 볼펜을 샀는데, 그거 불량품이었나 봐.”에서 ‘볼펜’과 ‘그거’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앞에 나온 말을 뒤에서 의미적으로 등가인 말로 대체함으로써 응집성을 높이는 현상을 ‘재수용’이라고 한다.

“옛날에 어느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 나라 왕자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는 재수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로, 앞 문장에 나온 ‘공주님’을 뒤 문장에서 ‘그녀’로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재수용하는 말인 ‘그녀’를 ‘수용어’라고, 재수용되는 말인 ‘공주님’을 ‘피수용어’라고 부른다. 피수용어에는 ‘어느’, ‘어떤’, ‘한’ 등이 붙는 경우가 많고, 수용어에는 지시 관형사 ‘이’, ‘그’ 등이 붙거나 대명사 ‘이것, 그것, 그, 그녀’ 등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앞의 예에서 수용어로는 ‘그녀’뿐 아니라, 지시 관형사를 사용한 ‘그 공주님’이나 ‘이 공주님’도 가능하고 또는 지시 관형사 없이 ‘공주님’도 가능하다. 단, ‘저 공주님’은 가능하지 않다.

[A]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도 유의 관계, 상하 관계, 한 단어의 지시 대상이 다른 단어의 지시 대상의 일부분인 관계인 부분-전체 관계 등 의미 관계에 기대어 재수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에서는 상위어가 하위어의 뒤에 오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길모퉁이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 듯했다.”는 첫 문장의 ‘트럭’이 다음 문장에서 그 상위어인 ‘차’로 재수용된 예인데, 반대로 “길모퉁이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트럭에는 여자가 앉아 있는 듯했다.”는 매우 어색하다.

담화에서 피수용어는 표면에 보이지만 수용어가 표면에 보이지 않으면, 수용어가 생략된 것이다. 생략은 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응집성 형성의 수단이다. “우리 누나는 내년엔 미국에 갈 것이다. (그녀는) 거기서 올림픽에 출전할 것이다.”와 같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23004-0063]

0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에서 ‘소년’은 피수용어에, ‘소녀’는 수용어에 해당한다.
- ② “산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에서 수용어로는 ‘그 소년’도 사용이 가능하다.
- ③ “어제 휴대 전화를 떨어뜨렸는데, 이거 고장이 났나 봐.”에서 ‘이거’는 ‘휴대 전화’를 대체하고 있다.
- ④ “우리 할머니는 강릉에 계셔.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어.”에서 ‘거기’를 ‘강릉’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⑤ “우리 할머니는 강릉에 계셔.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어.”에는 생략된 수용어가 있다.

[23004-0064]

0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 땀별에 오래 서 있었더니 피부가 다 타 버렸다. 별장계 부은 살갓이 따끔거렸다.
- ㉡ 나는 친구를 잘 사귀는 편은 아니지만, 일단 벗을 사귀고 나면 끈끈한 우정을 나눈다.
- ㉢ 잘 준비를 마친 아이의 얼굴이 발그스름한 것이 이상해서 손을 대 보니 볼이 뜨거웠다.
- ㉣ 비 맞은 강아지가 내 앞에 앉았다. 동물도 이런 눈빛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다.
- ㉤ 그는 초조하면 손톱을 물어뜯는다.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니 또 시작된 모양이다.

- ① ㉠: ‘피부’와 ‘살갓’이 의미가 서로 비슷하므로, 유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② ㉡: ‘친구’와 ‘벗’이 의미가 서로 비슷하므로, 유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③ ㉢: ‘볼’이 ‘얼굴’의 일부분이므로, 부분-전체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④ ㉣: ‘동물’이 ‘강아지’의 상위어이므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 ⑤ ㉤: ‘손톱’이 ‘손’의 하위어이므로, 상하 관계에 의한 재수용으로 볼 수 있다.

[23004-0065]

03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지시 표현은 화자가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화자, 청자, 사물, 시간, 장소 등의 요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화자가 ‘이, 그, 저’ 등을 사용하는 것은 청자가 그 대상을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전제에는 ㉠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 ㉡ 발화 현장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는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 그 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 ① ㉠: (진열장의 상품을 가리키면서 점원에게) 저거 좀 꺼내 주실래요?
 ② ㉠: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친구에게) 지금 이 연주 정말 듣기 좋은데.
 ③ ㉠: (출근하려던 아버지가 거실에 있는 딸에게) 너 옆에 있는 그 가방 좀 줘라.
 ④ ㉡: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있는 동생에게) 그거 오래된 건데 유통 기한 확인해 봐.
 ⑤ ㉡: (약속 장소를 정하기 위해 통화를 하면서 동료에게) 그럼 어디서 만날까? 지난번 거기 어때?

[23004-0066]

0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수학 연구 동아리 임원인 ‘현수’, ‘영훈’, ‘용찬’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수: ㉠ 우리 동아리도 신입생 환영회를 해야 하는데, 모레 하는 게 어떨까?
 영훈: 이번 주 금요일? 난 좀 곤란해. ㉡ 우리 반 친구들이랑 박물관 견학 가기로 했거든.
 용찬: 영훈이네 반은 박물관 가는구나. 그럼 아무래도 영훈이는 학급 회장이라 바쁘니까, 동아리 모임은 ㉢ 우리 둘이 준비할까? 동아리 부원들도 다 신입생 환영회를 얼른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영훈: 아냐, ㉣ 우리 같이 하자. ㉣ 너희끼리 준비하기엔 너무 많잖아.
 현수: 좋아. (시계를 보며) 나는 5교시가 미술 시간이라, 준비물 챙기려면 이제 들어가야겠다.
 영훈: 나도 도서관 들러야 해. 용찬아, ㉣ 우리 먼저 가 볼게. 이따 다시 이야기하자.
 용찬: 그래. 그럼 수업 끝나고 ㉣ 너희가 ㉣ 우리 반으로 와.

- ①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③ ㉢이 가리키는 대상 모두는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④ ㉣과 ㉤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23004-0067]

0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주원’의 이모인 ‘보람’이 주원의 집을 방문하였다.

주원: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이모, 안녕하세요?

보람: 우아, 우리 조카 못 본 사이에 많이 컸네. ㉠ 외할머니 어디 계셔?

외할머니: (거실로 들어서는 이모를 향해) ㉡ 우리 딸 왔구나. 무슨 일로 왔어?

보람: ㉢ 엄마 보고 싶어서 왔죠. ㉣ 언니랑 의논할 것도 좀 있고요.

외할머니: 그렇구나. ㉤ 주원아, ㉥ 엄마 좀 불러 줄래?

주원: (안방으로 가서) ㉦ 엄마, ㉧ 이모께서 오셨어요.

엄마: (주원에게) ㉨ 엄마 금방 나갈게. (거실로 나가서 ‘보람’을 향해) ㉩ 보람아, 오랜만이야.

- ① ㉠과 ㉤은 화자가 지칭 대상인 인물과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인물을 지칭한 것이다.
- ② ㉡과 ㉣은 화자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이다.
- ③ ㉢과 ㉦, ㉥과 ㉨은 각각 동일한 인물을 가리킨 것이다.
- ④ ㉤과 ㉩은 화자가 자신보다 아랫사람을 호칭하면서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이다.
- ⑤ ㉤과 ㉦은 화자가 다르지만 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과 호칭하는 말이 동일하게 쓰인 것이다.

[23004-0068]

06 <보기>의 ㉠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직접 발화란 해당 문장의 종결 표현이 그것이 수행하는 목적, 즉 화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방을 청소할 것을 지시할 때 “방 좀 치워라.”라고 발화하면서 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 발화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간접 발화란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① (우산 없이 외출하려는 딸에게 우산을 챙기라고 권유하며) 밖에 비 오네.
- ②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에게 정숙 표시판을 가리키며) 저거 안 보이세요?
- ③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사다 줄 것을 남편에게 부탁하며) 지금 슈퍼 문 열렸겠지?
- ④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방에 있는 아이들을 부르며) 애들아, 이제 나와서 밥 먹어라.
- ⑤ (버스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에게 옆으로 비킬 것을 요구하며) 저 여기서 내립니다.

[23004-0069]

01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형태가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는 ‘ㅎ’을 종성으로 가진 명사가 존재하였다.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놓이는 경우에는 명사의 ‘ㅎ’이 사용되었고,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놓이는 경우에는 명사의 ‘ㅎ’과 조사의 ‘ㄱ, ㄷ’이 축약된 형태가 나타났다. 한편 명사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 쓰이면 ‘ㅎ’이 탈락되었다. 현대 국어에서의 ‘길’은 중세 국어에서는 ‘ㅎ’을 종성으로 가진 ‘깊’이었다.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의 ‘ㅎ’은 연음된 형태로, ‘ㅎ’과 조사의 ‘ㄱ, ㄷ’이 축약될 때에는 축약된 형태로 표기되었다.

- 복성화 선 ㉠ 외얏 선 ㉡ 히 비록 오라나
(복성화 선 길과 오얏 선 길이 해 비록 오래되었으나) - 『두시연해』 초간본 15:15
- ㉢ 우희т 五百 빌머글 아히 다 어더 빅 차 먹더라 - 『월인석보』 22:53
(길 위의 오백 명 빌어먹을 아이가 다 얻어 배가 차도록 먹더라.)

	㉠	㉡	㉢
①	길과	기리	깊
②	깊과	기리	깊
③	길과	길히	깊
④	깊과	길히	길
⑤	길과	길히	길

[23004-0070]

02 <보기>를 바탕으로 호격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의 호격 조사에는 ‘아’와 ‘하’가 있었다. ‘하’는 화자가윗사람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의 호격 조사였고, ‘아’는 같은 신분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호격 조사였다. ‘아’는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두루 쓰였으나, 모음 뒤에서는 ‘야’로도 나타났다. 존칭의 호격 조사 ‘하’는 근대 국어 시기에 소멸되었고, 상대를 존칭하여 부를 때는 조사 없이 접미사 ‘-님’이 체언과 결합된 형태를 사용하였다. 비존칭의 호격 조사는 근대 국어에서부터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아’,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 ‘야’가 되었다.

- ① 중세 국어의 ‘님금하’에 쓰인 ‘하’는 ‘님금’을 높이는 호격 조사구나.
- ② 중세 국어에서 ‘大王(대왕)하’에서는 ‘大王(대왕)’을 부르는 화자가 ‘대왕’보다 높은 사람이고, ‘大王(대왕)아’에서는 ‘大王(대왕)’을 부르는 화자가 ‘대왕’보다 낮은 사람이었겠구나.
- ③ 중세 국어에서 ‘得大勢(득대세)야’에서는 ‘得大勢(득대세)’가 모음으로 끝나 ‘야’라는 형태가 사용되었겠구나.
- ④ 현대 국어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대 국어 시기에 존칭의 호격 조사 ‘하’가 소멸되었기 때문이겠구나.
- ⑤ 현대 국어에서 ‘태훈아’, ‘윤우야’로 호격 조사가 달라지는 것은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과 모음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구나.

[23004-0071]

03

㉠~㉤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관형어 형성 방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耶輸 <u>그</u> 기별 드르시고(야수가 그 기별을 들으시고) | - 『석보상절』 6:2 |
| ㉡ <u>내</u> 지브 이쉴 저기(내가 집에 있을 적에) | - 『석보상절』 6:7 |
| ㉢ <u>부텃</u> 나히 설흔들히러시니(부처의 나이가 서른들이시더니) | - 『석보상절』 6:1 |
| ㉣ <u>아기아들</u> 의 각시를 求히더니(막내아들의 각시를 구하더니) | - 『월인천강지곡』 상:54 |
| ㉤ 廣熾는 <u>너비</u> 光明이 비취닷 뜨디오(광치는 널리 광명이 비친다는 뜻이고) | - 『월인석보』 2:9 |

- ① ㉠을 보니, 지시 관형사 ‘그’가 ‘기별’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② ㉡을 보니, ‘내 지브 이시-’에 관형사형 어미 ‘-ㅆ’이 결합하여 ‘적’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을 보니, 명사 ‘부텃’이 ‘나’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을 보니, 명사 ‘아기아들’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각시’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⑤ ㉤을 보니, ‘너비 光明이 비취다’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뜯’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군.

[23004-0072]

04 <보기>의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뵘씨 곳 도쿄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마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용비어천가』 제2장

여섯 놀이 디며 다섯 가마괴 디고 빗근 남굴 느라 나마시니
 石壁에 수멧던 네넛 글 아니라도 하눔 ㉣쁘들 뉘 ㉣모르스 불리

-『용비어천가』 제86장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어지지 않으므로, 내가 되어 바다에 갑니다.

여섯 노루가 떨어지며, 다섯 까마귀가 떨어지고, 비스듬한 나무를 날아 넘으시니
 석벽에 숨어 있던 옛 시대의 글 아니라도 하늘의 뜻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 ① ㉠: 이어 적기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 ③ ㉢: 주격 조사 ‘히’가 쓰였으므로 ‘내’의 옛말은 ‘넝’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어두에 서로 다른 자음이 연이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슬-’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004-0073]

05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으/으)시-’를 통해 실현되며, ‘아/어’나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으/으)샤-’로 교체된다. 객체 높임법은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오는 대상이 주어 자리에 오는 대상보다 높을 때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습-’인데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습-, -습-, -습-, -습-’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耶輸 | ㉠니르샤되 如來 太子샤 時節에 나를 겨집 ㉡사므시니 내 太子를 ㉢섬기스보되
하늘 ㉣섬기습듯 ㅎ야 ㅎ 번도 디만 ㅎ 일 업수니 妻眷 드외안 디 三年이 못 차 이서 世間
㉤버리시고
-『석보상절』 6:4~5

[현대어 풀이]

야수가 이르시기를 여래가 태자의 시절에 나를 아내로 삼으시니, 내가 태자를 섬기되 하늘
섬기듯 하여 한 번도 소홀한 일 없으니 처권(아내) 된 지 3년이 못 차서 세간 버리시고

- ① ㉠의 ‘-(으)샤-’는 서술자가 ‘耶輸(야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② ㉡의 ‘-으시-’는 ‘耶輸(야수)’가 ‘如來(여래)’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③ ㉢의 ‘-습-’은 ‘耶輸(야수)’가 ‘太子(태자)’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④ ㉣의 ‘-습-’은 ‘耶輸(야수)’가 ‘하늘’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⑤ ㉤의 ‘-시-’는 ‘耶輸(야수)’가 ‘妻眷(처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23004-0074]

06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중세 국어의 사동사는 동사 어근에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으-/-으-’가 붙어 형성되었습니다. 또 형용사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사동사가 형성되었는지 설명해 볼까요?

[자료]

	주동문의 사례	사동문의 사례
㉠	식미 기픈 <u>므른</u> 마래 아니 <u>그츨썩</u>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어지지 않으므로)	한비를 아니 <u>그치샤</u> (큰비를 그치지 않으시어)
㉡	그 술위 절로 <u>그우러</u> (그 수레가 절로 굴러)	轉輪은 술위를 <u>그우릴씨니</u> (전륜은 수레를 굴리는 것이니)
㉢	하늘토 <u>뒸며</u> (하늘도 움직이며)	하늘히 <u>므스믈 뒸우시니</u>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시니)
㉣	찬믈 <u>썩리여샤 썩시니라</u> (찬물 뿌리어야 깨시니라)	브라미 수를 <u>썩오느니</u> (바람이 술을 깨우니)
㉤	믈 <u>깊고</u> (물 깊고)	바르래 비 업거늘 <u>녀토시고 썩 기피시니</u> (바다에 배가 없거늘 알게 하시고 또 깊게 하시니)

학생:

㉠

- ① ㉠에서는 동사 어근 ‘긷-’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② ㉡에서는 동사 어근 ‘그울-’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③ ㉢에서는 동사 어근 ‘뒸-’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④ ㉣에서는 동사 어근 ‘썩-’에 사동 접미사 ‘-오-’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⑤ ㉤에서는 형용사 어근 ‘깊-’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의 반모음화는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 앞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반모음화는 ‘ㅣ’나 ‘ㅓ/ㅗ’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난다. ‘ㅣ’에 반모음화가 적용되면 ‘ㅓ’로 바뀌고, ‘ㅓ/ㅗ’에 반모음화가 적용되면 ‘ㅗ’로 바뀐다. 이 두 가지 반모음화를 각각 ‘j’ 반모음화, ‘w’ 반모음화라고 부른다. ‘ㅍㅏ-+-어’가 ‘ㅍㅑ[ㅑ:]’가 되는 것은 ‘j’ 반모음화의 예이고, ‘두-+-어’가 ‘뒤[뒤:]’가 되는 것은 ‘w’ 반모음화의 예이다. 이처럼 반모음화가 일어날 때, 용언 어간이 1음절일 경우 장음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보상적 장음화라고 부른다.

15세기에도 ‘j’ 반모음화와 ‘w’ 반모음화가 존재하였으나, 현대 국어와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j’ 반모음화의 경우 용언 어간 말의 ‘ㅣ’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었다. 15세기 국어에는 반모음 ‘j’로 끝나는 하향 이중모음이 많았기 때문에 단모음 ‘ㅣ’가 다른 모음 뒤에서 반모음화를 겪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격 조사 ‘이’와 서술격 조사 ‘이라’가 ‘ㅣ’를 제외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결합할 때, 용언 어간 뒤에 ‘이’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할 때 활발하게 일어났다. 또 용언 어간 말의 ‘ㅣ’의 경우에는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물론이고 ‘ㅓ/ㅗ’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반모음 ‘j’로 바뀌었다.

15세기의 ‘w’ 반모음화의 경우에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적용되었다. 그런데 ‘w’ 반모음화의 경우 15세기에는 세력이 약하였기 때문에 1음절 어간의 경우 ‘오-’와 ‘소-’를 제외하면 반모음화의 예가 보이지 않는다. 또 2음절 이상의 어간도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없거나 후음 ‘ㅎ’인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수의적으로 일어났다.

[23004-0075]

01 윗글에서 설명한 15세기의 반모음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티-+-음 → 튼
- ② 바+이라 → 배라
- ③ 꾸미-+-어 → 꾸며
- ④ 흐리-+-어 → 흐리어
- ⑤ 눈호-+-아 → 눈화

[23004-0076]

02 **윗글을 읽고 <보기>에 드러난 현대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이기-+-어라 → 이겨라[이겨러]
- ㉡ 지-+-어도 → 저도[저도]
- ㉢ 살피-+-어 → 살피[살피]
- ㉣ 나누-+-어 → 나뉘[나뉘]
- ㉤ 쓰-+-어 → 써[써]

- ① ㉠에서 ‘기’의 ‘ㅣ’가 반모음 ‘j’로 바뀌는 것은 ‘ㅣ’와 ‘j’가 음성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구나.
- ② ㉡의 ‘저도’의 경우 [저도]라고 발음되는 것은 반모음 ‘j’가 첨가되었기 때문이구나.
- ③ ㉢의 ‘살피[살피]’의 경우 ‘j’ 반모음화가 일어났으나 ‘피-+-어 → 피[피:]’와 달리 보상적 장음화가 일어나지는 않는구나.
- ④ ㉣의 ‘나뉘[나뉘]’의 경우 ‘뉘[뉘:]’와 마찬가지로 활용할 때 ‘w’ 반모음화가 일어나는구나.
- ⑤ ㉤의 ‘쓰-+-어 → 써[써]’의 경우 ‘피-+-어 → 피[피:]’와 달리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때 단모음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23004-0077]

03 **<보기>의 ㉠~㉤의 문장의 짜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서울은 인구가 많다.
- ㉡ 민재가 결백함이 밝혀졌다.
- ㉢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내 앞을 지나갔다.
- ㉣ 그는 자신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말했다.
- ㉤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 ①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성립하는 홑문장이다.
- ② ㉡에서는 ‘민재가 결백함’이라는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은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교복을 입은’을 안은 문장이다.
- ④ ㉣은 ‘대학에 입학했다고’라는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 ⑤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성립하는 겹문장이다.

[23004-0078]

04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여러 문장 성분들을 선택하고 제약하는 문장의 핵심은 서술어입니다.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에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를 먼저 분석하고, 필수적 부사어를 제외한 부사어나 관형어, 독립어를 나중에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먼저 분석하는 문장 성분을 1차 성분이라고 하고, 나중에 분석하는 문장 성분을 2차 성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친구의 공을 빌렸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인 '빌리다'를 고려하여 1차 성분으로 주어인 '나는'과 목적어 '친구의 공을'을 먼저 분석하고, 목적어 '친구의 공을' 중에서 '공'을 수식하는 관형어 '친구의'를 2차 성분으로 다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며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볼까요?

[자료] (가) 연재의 동생은 책을 많이 읽는다. (나) 나는 새 신발을 신발장에 넣었다.
(다) 그것은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학생:

㉠

- ① (가)의 '연재의'와 '많이'는 2차 성분에 해당한다.
- ② (가)에서 '읽는다'가 요구하는 1차 성분은 주어와 목적어이다.
- ③ (나)의 1차 성분은 '나는', '새 신발을', '신발장에'이다.
- ④ (다)의 서술어가 요구하는 1차 성분은 2개의 주어이다.
- ⑤ (나)와 (다)는 각각 1개의 2차 성분을 지니고 있다.

[23004-0079]

05 <보기>의 (가)~(마)를 바탕으로 부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 아마 내일쯤 물건이 도착할 것이다.
(나) 일을 빨리만 하지 말고 정확히 하란 말이야.
(다) 우리는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라)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마) 비행기가 아주 높이 날고 있다.

- ① (가)의 '아마'를 보니 부사는 문장 내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구나.
- ② (나)의 '빨리만'을 보니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부사도 있구나.
- ③ (다)의 '그러나'를 보니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도 있구나.
- ④ (라)의 '결코'를 보니 부정 표현과만 함께 쓰이는 부사가 있구나.
- ⑤ (마)의 '아주 높이'를 보니 부사가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구나.

[23004-0080]

01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말의 음운 중에는 서로 인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처럼 음운과 음운 사이의 결합이 제한되는 것을 음운 배열 제약이라 한다. ㉠대표적인 음운 배열 제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ㅂ, ㄷ, ㄱ’과 같은 파열음 예사소리 뒤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예사소리가 올 수 없다. 만약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뒤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바꾼다. 그리고 유음 ‘ㄹ’ 뒤에는 비음 ‘ㄴ’이 올 수 없다.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거나, 유음이 탈락된다. 또한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과 파찰음의 예사소리 ‘ㅈ’은 후음 ‘ㅎ’과 인접할 수 없다.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후음과 파열음의 예사소리, 후음과 파찰음의 예사소리가 축약되어 거센소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경구개음 ‘ㅅ, ㅆ, ㅌ’ 뒤에는 반모음 ‘j’가 올 수 없다. 만약 이 제약을 어기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반모음 ‘j’가 탈락한다.

- ㉠ ‘실’과 ‘눈’이 결합한 ‘실눈’이 [실:륄]으로 발음된다.
- ㉡ ‘곧-’에 ‘-고’가 결합한 ‘곧고’가 [곧꼬]로 발음된다.
- ㉢ ‘낱-’에 ‘-지’가 결합한 ‘낱지’가 [나:치]로 발음된다.
- ㉣ ‘많-’에 ‘-아’가 결합한 ‘많아’가 [마:나]로 발음된다.
- ㉤ ‘다치-’에 ‘-어’가 결합한 ‘다쳐’가 [다쳐]로 발음된다.

[23004-0081]

02 <보기>를 참고하여 제시된 문장의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 있다.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어미나 조사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파생 접사와는 달리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하여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눈에 ㉠덮인 낙엽들이 ㉡거센 ㉢바람에 하늘로 ㉣높이 ㉤날렸다.

- ㉠ ㉠에서 ‘-이-’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 접사이다.
- ㉡ ㉡에서 ‘-ㄴ’은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관형어임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 ㉢ ㉢에서 ‘에’는 체언과 결합하여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 ㉣ ㉣에서 ‘-이’는 용언의 어간 뒤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 접사이다.
- ㉤ ㉤에서 ‘-리-’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서술어임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23004-0082]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은 책이 정말 많았다.
 ㉡ 민수는 고향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다.
 ㉢ 현정이는 돈도 전혀 없이 일주일을 더 견뎌야 했다.
 ㉣ 우리 집 막내는 그저께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

- ① ㉠에는 두 개의 절이 안겨 있다.
 ② ㉡에 안겨 있는 명사절은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과 ㉢ 모두에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 안겨 있다.
 ④ ㉠과 ㉢에 안겨 있는 절은 모두 부사어를 포함하고 있다.
 ⑤ ㉠~㉢과 달리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23004-0083]

04 <보기>의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 선어말 어미와 ㉡ 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어말 어미는 다시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 어미, 다음 말에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연결 어미, 다른 품사로 기능하게 하는 전성 어미로 나뉜다. 그런데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어도 되지만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음에 제시된 문장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탐구해 보자.

- ㉠ 윤서가 바로 저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는 노래도 잘하며 운동도 잘한다.
 ㉣ 할머니께서는 기차역에 언제쯤 도착하셨니?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의 ‘심었구나’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② ㉡의 ‘청소하는’에는 ㉠는 없고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③ ㉢의 ‘잘하며’에는 ㉠는 없고 전성 어미 ‘-며’가 ㉡로 쓰였다.
 ④ ㉣의 ‘도착하셨니’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시-’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⑤ ㉤의 ‘불겠지만’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23004-0084]

0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에서 목적어가 실현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목적격 조사 ‘을’과 ‘을’이 붙었다.
 예 사름 물(사름 + 을) [사람을], 뜰 들(뜰 + 을) [뜻을]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는 목적격 조사 ‘를’과 ‘를’이 붙었다.
 예 한 쇼를(한 쇼 + 를) [큰 소를], 아즈미를(아즈미 + 를) [아주머니를]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목적격 조사 ‘르’이 쓰이기도 하였다. ……㉠
 예 가칠(가치 + 르) [까치를]
-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고 생략되기도 하였다. ……㉡
 예 天地(천지) 마르치샤 [하늘과 땅을 가리키시어], 님금 배반하야 [임금을 배반하여]
- 보조사가 실현되면 목적격 조사는 대개 실현되지 않았다. ……㉢
 예 내 말웃 아니 드르시면 [나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보기 2】

- ㉠: 그를 따러 [글을 물어]
- ㉡: 잡일 아니 하며 [잡일을 아니 하며]
- ㉢: 한 말도 못 하야 [한 말도 못 하고]
- ㉣: 한 아드를 나하니 [한 아들을 낳으니]
- ㉤: 개야밀 어엿비 너기고 [개미를 가엽게 여기고]
- ㉥: 모던 께를 일우리잇가 [모진 께를 이루겠습니까]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국어의 자음 체계에는 ‘빙’, ‘△’이 존재했다. 먼저 ‘빙’은 이미 15세기 후반에 이미 모습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중세 국어 시기에 거의 사라지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구체적인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 (1) 가. 글밭>글왁(>글월), 더벼>더워
나. 드빻니>드외니(>되니), 치브니>치우니(>추우니)

‘빙’은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변화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1가)와 같이 ‘ㅏ’ 또는 ‘ㅑ’ 앞에서는 반모음 ‘w’로 바뀌었고, (1나)와 같이 ‘ㄷ’, ‘ㄴ’이 이어진 경우에는 이 모음들과 결합하여 ‘ㄱ’나 ‘ㄴ’로 바뀌었다. 이러한 ‘빙’의 변화는 현대 국어의 ‘ㅂ’ 불규칙 용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덥고, 덥더라, 더벼, 더브니>덥고, 덥더라, 더워, 더우니’에서 보듯이 15세기 중엽에 ‘덥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ㅂ’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빙’으로 나타났다. ‘덥고, 덥더라’의 ‘빙’은 당시 ‘빙’이 음절 끝에서 ‘ㅂ’으로 소리 난 것을 표기한 것이고, ‘더벼, 더브니’의 ‘빙’은 ‘빙’이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다가 ‘빙’이 소멸하면서 ‘덥다’, ‘칩다(>춥다)’ 등 어간 말에 ‘빙’을 가지고 있던 용언들이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불규칙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 (2) 막슴>막음(>마음), 스시>스이(>사이)

(2)와 같은 ‘△’의 탈락은 16세기 문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의 변화는 현대 국어의 ‘ㅅ’ 불규칙 용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짓고, 짓더라, 지서, 지스니>짓고, 짓더라, 지어, 지으니’에서 보듯이 15세기 중엽에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ㅅ’으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말음이 ‘△’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이 소멸하면서 ‘짓다’, ‘넛다(>읷다)’ 등 어간 말에 ‘△’을 가지고 있던 용언들이 불규칙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23004-0085]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의 ‘빙’과 ‘△’은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들이군.
- ② 15세기 국어의 ‘글밭’이 ‘글왁’로 변화한 것은 ‘빙’이 ‘ㅏ’ 앞에서 ‘ㄱ’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치브니’는 어간 말음의 ‘빙’이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지서’가 ‘지어’로 변화한 것은 ‘△’의 소멸로 어간 말 ‘△’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⑤ 현대 국어의 ‘춥다’는 활용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용언이군.

[23004-0087]

0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보배로운’의 ‘-롭-’, ‘복된’의 ‘-되-’, ‘사랑스러운’의 ‘-스럽-’ 등은 명사나 명사성 어근과 주로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특히 ‘-스럽-’은 다른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 ㉠ ‘-롭-’, ‘-되-’ 등과 결합한 형용사가 존재하는데 ‘-스럽-’이 결합한 말이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일을 처리하기가 괴롭고 고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수고롭다’가 존재하는데 ‘수고스럽다’도 쓰이는 것은 ‘-스럽-’의 생산성이 높은 것, 즉 ‘-스럽-’이 많은 수의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 파생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 ① 국가 대표로 뽑히는 것은 여전히 영광된/영광스러운 일이다.
- ② 그녀의 문장에는 우아하고 신비로운/신비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 ③ 가장 걱정되는/걱정스러운 것은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의 건강 문제이다.
- ④ 아이들은 자유로운/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 내 철학이다.
- ⑤ 조국을 위해 싸우다 남은 이 상처가 나에게서 명예로운/명예스러운 훈장과 같다.

[23004-0088]

04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안은문장은 한 절이 그 속에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하나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이때 안겨 있는 절을 안긴절이라 하는데, 안긴절의 종류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은 주로 전성 어미를 통해 실현된다. 그런데 안긴절이 이루어질 때 전성 어미가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긴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 이를 서술절이라고 하는데, 서술절은 전성 어미 없이 실현된다. 또 인용절은 인용절이 될 절에 일반적으로 조사가 붙어 실현된다.

- ① ㉠: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었다.
- ② ㉡: 여름이 되자 키가 작은 채송화가 마당에 피었다.
- ③ ㉢: 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산에서 빨리 내려가야겠다.
- ④ ㉣: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이 확실히 밝혀져서 다행이다.
- ⑤ ㉤: 기상청은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23004-0089]

05 <보기>를 바탕으로 선어말 어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어말 어미는 크게 높임법 관련 선어말 어미와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높임법 관련 선어말 어미로는 주체 높임의 ‘-(으)시-’가 대표적이다.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에는 과거 시제의 ‘-었-/-았-/-였-’, 현재 시제의 ‘-는-/-ㄴ-’, 미래 시제의 ‘-겠-’ 등이 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로 쓰이기도 한다. ‘-겠-’은 화자의 추측 또는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 ‘-겠-’과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 문어체에서는 ‘-(으)리-’가 쓰이기도 한다. 선어말 어미의 차례는 일정하여 그 순서를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 ㉠ 형님께서 이 회사에 (근무하시는군요./^{*}근무하시는군요./근무하셨군요.)
 ㉡ 아마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내었겠다./^{*}끝내졌었다./끝내었으리라.)
 ㉢ 먼저 (간다고/갔다고/먹는다고/먹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을 보니,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시간 관련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결합하는군.
 ② ㉠을 보니,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와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었-’이 한 음절로 줄여 쓰일 수도 있군.
 ③ ㉡을 보니,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었-’이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보다 앞서 결합하는군.
 ④ ㉢을 보니, 미래 시제의 선어말 어미 ‘-겠-’은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으리-’로 바뀌어 쓰이기도 하는군.
 ⑤ ㉢을 보니,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와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는 결합하는 여간에 따라 형태가 달리 선택되는군.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규범으로, 표기의 기본 원칙, 표기 일람, 표기상의 유의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자음, 단모음, 이중 모음의 표기 일람은 다음과 같다.

(1) 자음의 로마자 표기

ㄱ	ㄲ	ㅋ	ㄷ	ㄸ	ㅌ	ㅃ	ㅍ	ㅍ	ㅈ	ㅊ	ㅅ	ㅆ	ㅎ	ㄴ	ㅇ	ㄹ		
g, k	kk	k	d, t	tt	t	b, 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 l

(2) 단모음의 로마자 표기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3) 이중 모음의 로마자 표기

ㅟ	ㅠ	ㅡ	ㅢ	ㅤ	ㅥ	ㅦ	ㅧ	ㅨ	ㅩ	ㅪ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A]

우선 자음의 표기 일람에서 ‘ㄱ, ㄷ, ㅃ’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그리고 ‘ㄹ’은 모음 앞에서는 ‘r’,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 ‘ㄹㄹ’은 ‘ll’로 적는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비음화나 유음화, 구개음화, 격음화(거센소리되기), ‘ㄴ’ 첨가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체언에서 ‘ㄱ, ㄷ, ㅃ’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하고,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모음의 표기 일람에서 ‘ㅟ’는 ‘i’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고,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23004-0090]

01 **윗글을 통해 <보기>의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활동] 다음 제시된 고유 명사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어 보자.

- 신라[실라]: ㉠Sila
- 목호[무코]: ㉡Mukho
- 팔당[팔탕]: ㉢Palttang
- 백마[뱅마]: ㉣Baengma
- 광희문[광히문]: ㉤Gwanghimun

- ① ㉠: ‘ㄹ’은 ‘ll’로 적어야 하므로, ‘Silla’로 표기해야 옳겠군.
- ② ㉡: 체언에서 ‘ㄱ’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옳은 표기이겠군.
- ③ ㉢: 경음화(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Paltang’로 표기해야 옳겠군.
- ④ ㉣: 비음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표기이겠군.
- ⑤ ㉤: ‘니’는 ‘i’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어야 하므로, ‘Gwanghuimun’으로 표기해야 옳겠군.

[23004-0091]

02 **[A]를 참고할 때, 제시된 두 말의 로마자 표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와:왜 → 모음 표기에 ‘e’가 후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 ② 우:유 → 모음 표기에 ‘y’가 선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 ③ 아:와 → 모음 표기에 ‘w’가 선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 ④ 야:애 → 모음 표기에 ‘e’가 후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 ⑤ 에:웨 → 모음 표기에 ‘u’가 선행하는지의 여부가 다르다.

[23004-0092]

03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합성어는 단어 형성 방식이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지의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명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등과 같은 구성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고, ‘용언 어간+명사’, ‘용언 어간+용언 어간’, ‘자립성이 없는 어근+명사’ 등과 같은 구성은 국어의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어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접칼 어린이 퍼내다 보슬비 우러러보다

학생:

- ① ‘접칼’은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붙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② ‘어린이’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명사가 붙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③ ‘퍼내다’는 용언의 연결형에 용언 어간이 붙어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④ ‘보슬비’는 자립성이 없는 어근에 명사가 직접 붙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 ⑤ ‘우러러보다’는 용언 어간에 용언 어간이 직접 붙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23004-0093]

0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언니는 사그라져 가는 난로의 불씨를 ㉠살려 놓았다.
- 싱그러운 나뭇잎이 우리 학생의 입맛을 ㉡돋워 주었다.
- 우리가 먹을 파인애플이 세 조각으로 ㉢나뉘어 있다.
- 우리 오빠는 시골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 돈을 마련했다.
-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둑은 노끈에 ㉤감겨 있었다.

- ① ㉠: 피동사로, 접미사 ‘-리-’가 결합되어 있다.
- ② ㉡: 사동사로, 접미사 ‘-우-’가 결합되어 있다.
- ③ ㉢: 피동사로,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있다.
- ④ ㉣: 사동사로,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있다.
- ⑤ ㉤: 피동사로,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다.

[23004-0094]

05 <보기>를 참고하여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손순득중」에서는 이어 적기나 거듭 적기의 표기 방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씨, 썸’과 같은 경음(된소리) 계열 자음의 표기, 관형격 조사 ‘이/의’나 부사격 조사 ‘이/의’, 보조사 ‘은/는’, 명사형 어미 ‘-기’ 등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손순은 신라 흥덕왕 시 사람이라 경주 **짜히** 사라 어미 **치기** 지회러니 조고만 아히 이서 락양 어미 **밥불** 안거늘 순이 그 안해드려 날러 그로되 아히 어미 **바불** 아으니 **아히**는 가히 어드러니 와 어미는 두 번 **구히기** 어려온디라 하고

-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손순득중」 중에서

[현대어 풀이]

손순은 신라 흥덕왕 때 사람이라. 경주 땅에 살아 어미 모시기 지효(至孝)이더니, 조그만 아이가 있어 매양 어미의 밥을 빼앗거늘 순이 그 아내에게 일러 가로되, “아이가 어미의 밥을 빼앗으니, 아이는 가히 얻으려니와 어미는 두 번 구하기 어려운지라.” 하고

- ① ‘바불’에서 이어 적기, ‘밥불’에서 거듭 적기의 표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짜히’에서 경음(된소리) 계열 자음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어미’에서 부사격 조사 ‘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손순은’과 ‘아히는’에서 ‘은/는’이 보조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치기’와 ‘구히기’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경구개음 ‘ㅅ, ㅆ’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한다. 이 현상은 치조음 ‘ㄷ, ㅌ’이 뒤에 오는 고모음 ‘ㅣ’의 조음 위치의 영향을 받아 경구개음 ‘ㅅ, ㅆ’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구개음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ㅅ, ㅆ, ㅈ’의 조음 위치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세 국어의 ‘ㅅ, ㅆ, ㅈ’은 치음(齒音)이었는데, 근대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조음 위치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ㅅ, ㅆ, ㅈ’의 경우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었다고 추측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로, 구개음화 현상이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디나다>지나다, 티다>치다’와 같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모음 ‘ㅣ’나 반모음 ‘j’ 앞에 오는 ‘ㄷ’이나 ‘ㅌ’이 ‘ㅅ’이나 ‘ㅆ’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는 자음 체계에서 경구개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ㅅ, ㅆ, ㅈ’이 아직 치음이었던 중세 국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으며, 이들이 경구개음으로 바뀐 근대 국어 시기에 와서 구개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

둘째로 ‘ㅅ, ㅆ, ㅈ’ 뒤의 반모음 ‘j’가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모두 탈락한다는 점이다. ‘ㅅ, ㅆ, ㅈ’이 치음이던 중세 국어 시기에는 그 뒤에 반모음 ‘j’가 자유롭게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자랑’과 같은 구조의 고유어도 많았고, ‘창(倉)’과 ‘창(昌)’처럼 반모음 ‘j’의 유무로 그 음이 구별되는 한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ㅅ, ㅆ, ㅈ’이 경구개음으로 바뀌면 ‘j’와 조음 위치가 중복되어서 경구개음 뒤에서는 ‘j’가 모두 탈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안도 방언에서 ‘ㅅ, ㅆ, ㅈ’은 여전히 치조 부근에서 발음된다는 점이다. 평안도 방언에서는 ‘ㅅ, ㅆ, ㅈ’이 예전의 음가를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구개음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근거들은 ‘ㅅ, ㅆ, ㅈ’의 조음 위치가 치음에서 경구개음으로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23004-0095]

01 윗글을 읽고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질문: ‘마디’와 ‘티끌’은 왜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를 겪지 않았을까?

근대 국어	현대 국어
ㅁ딛, ㅁ딛	마디
ㅌ꺄, ㅌ꺄	티끌

- ① ‘ㅅ, ㅆ’ 뒤에서는 반모음 ‘j’를 발음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ㅅ, ㅆ’의 조음 위치가 아직 치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 ③ ‘ㄷ, ㅌ’이 ‘ㅣ’와 만나는 환경이 형태소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④ 평안도 방언에서의 ‘ㅅ, ㅆ’은 경구개음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⑤ 근대 국어 시기에는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j’와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004-0096]

02 **윗글을 읽고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술이 걸려 있는 아궁이.
- ㉡ 그만 집에 가조.
- ㉢ 오늘은 발일을 거들어야 한다.
- ㉣ 끝으로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 ㉤ 오늘 점심에는 감자를 찌 먹자.

- ① ㉠의 ‘술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 [소치]로 발음되겠군.
- ② ㉡의 ‘가조’는 ‘z’ 뒤에서 반모음 ‘j’가 발음될 수 없으므로 [가조]로 발음되겠군.
- ③ ㉢의 ‘발일’은 ‘일’이 형식 형태소가 아니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 ④ ㉣의 ‘끝으로’는 ‘t’ 뒤에 ‘l’이 아닌 ‘-’가 놓여 있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겠군.
- ⑤ ㉤의 ‘찌’가 현대 국어에서 [찌]로 발음되는 것은 ‘ㅈ’의 조음 위치가 경구개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겠군.

[23004-0097]

03 **다음 문장의 밑줄 친 표현 중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상이란 일정 시간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의 양상을 동작의 완료나 진행처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문법 범주를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끝났거나 끝난 후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과 어떤 사건이 특정 시간 구간 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 진행상이 있다.

- ① 준비한 음식이 점점 식어 간다.
- ② 종소리를 들고서 교실을 나섰다.
- ③ 서우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본다.
- ④ 어제 학교에 가고 있는 아이를 불렀다.
- ⑤ 내 동생은 지금 백과사전을 읽는 중이다.

[23004-0098]

04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할 때 결합하는 어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로 동사가 ‘-(느)니다, -느냐, -는, -는구나’와 결합하는 것과 달리, 형용사는 ‘-다, -(으)냐, -(으)ㄴ, -구나’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보통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려’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다음 단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해 볼까요?

웃다, 찾다, 젊다, 좋다, 시끄럽다

학생:

㉠

- ① ‘웃어라, 웃자’와 같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웃다’는 동사입니다.
- ② ‘찾으냐, 찾구나’와 같은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찾다’는 동사입니다.
- ③ ‘젊다, 젊구나’와 같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 ④ ‘좋으냐, 좋은’과 같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좋다’는 형용사입니다.
- ⑤ ‘시끄러우려’와 같은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시끄럽다’는 동사입니다.

[23004-0099]

05 <보기>를 읽고 유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매우 비슷한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유의 관계라고 하고,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한다.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가 둘 이상 있을 경우 유의어들 사이에서는 피치 못할 충돌이 일어나면서 서로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하게 된다. 유의어 경쟁은 경쟁 관계에 있는 유의어가 계속 함께 사용되는 공존, 한쪽은 계속 쓰이고 한쪽은 사라지는 생존과 소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합쳐지는 합성, 한쪽의 의미가 변화하는 의미 변화 중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

- ① ‘틈새’는 유의어 경쟁을 하던 ‘틈’과 ‘새’가 합성한 것이겠구나.
- ② ‘달걀’과 ‘계란’은 유의어 경쟁의 결과 ‘계란’의 의미가 변화하였겠구나.
- ③ ‘시늉’과 ‘흉내’는 여전히 유의어 경쟁을 하며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구나.
- ④ ‘즈믄’과 ‘천’은 유의어 경쟁을 하다가 ‘즈믄’은 소멸하고 ‘천’이 생존하였겠구나.
- ⑤ ‘저녁’과 ‘나조’는 유의어 경쟁을 하다가 ‘저녁’은 생존하고 ‘나조’는 소멸하였겠구나.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 표기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라는 두 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음주의란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으로,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이라도 다르게 발음되면 달리 적는다. 반면 표의주의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이다. 한글이 창제된 이래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표기법은 주로 표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선 중세 국어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 이어 적기이다. 또한 음운 현상이 적용된 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형태소의 결합 과정에서 적용되는 여러 음운 현상들을 표기에 반영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현대 국어의 경우 일부 음운 현상만 표기에 반영하고 대부분은 잘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 뼈도(ㅼ-+-어도), 아눈(알-+-눈), 알코(알-+-고)

(나) 든노라(들-+-노라) ↔ 들눈(들-+-눈)

(가)는 중세 국어에서 음운 현상이 적용된 형태를 표기한 예이다. ‘ㄴ’ 탈락, 유음 탈락, ‘ㅎ’이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의 거센소리되기는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특히 ‘ㄴ’ 탈락이나 유음 탈락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현대 국어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반면 (나)는 음운 현상이 적용된 형태대로 표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사례로, 비음화가 대표적이다.

(다) 빛과(빛+과), 높고(높-+-고), 비왈디(비왈-+-디)

(라) 밧즈왓더니(밭-+-즈왓더니), 듯보다(들-+-보다), 밧ㅅ지(밧+ㅅ지), 꺄(꺄)

(다)는 중세 국어 종성 표기의 예이다. 『훈민정음』에서 종성 표기에 8개의 자음만으로 충분하다고 한 것은 당시 종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8가지였다는 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8개의 종성에 속하지 않는 자음이 종성에 놓이면 음운 현상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음운 현상이 표기에도 반영되었다. 한편 16세기 이후 종성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면서 종성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하게 되었다. 그러나 표기상으로는 오히려 ‘ㄷ’ 대신 ‘ㅅ’을 사용하였다. (라)는 ‘밭-, 들-’처럼 원래 ‘ㄷ’으로 끝나거나 ‘밧, 꺄’처럼 원래 ‘ㅌ’으로 끝나므로 그 말이 종성에서 ‘ㄷ’으로 표기되던 종성이 모두 ‘ㅅ’으로 표기되었음을 보여 준다. 발음상으로는 ‘ㄷ’이지만 표기상으로는 ‘ㅅ’으로 적은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 국어 시기의 경우 발음상의 7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지만 표기상으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모가 사용되어 발음과 표기가 서로 불일치하게 된다.

01

[23004-010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의 ‘뼈도’는 앞 형태소의 받침이 뒤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는 것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② (가)의 ‘아는’은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적용된 유음 탈락이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③ (가)의 ‘알코’는 ‘ㅎ’이 다른 자음에 선행하는 경우의 거센소리되기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④ (나)의 ‘든노라’는 ‘ㄷ’에 적용된 비음화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 ⑤ (다)의 ‘빛과’는 음절 말에서 ‘ㅈ’이 ‘ㅅ’으로 발음되는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 형태이다.

02

[23004-010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然 ㄱ ㅎ ㄷ ㄴ ㅂ ㅅ ㄹ 八字可足用也 如 빛꽃爲梨花 엿의갓爲狐皮 而 ㅅ 字可以通用 故只用 ㅅ 字

그러나 (중성은) ‘ㄱ, ㅎ, ㄷ, ㄴ, ㅂ, ㅅ, ㄹ’의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것은 ‘빛꽃’(梨花*에 해당), ‘엿의갓’(狐皮*에 해당)은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를 씀과 같다.

- 『훈민정음』 해례 중성해

*梨花: 배꽃.

*狐皮: 여우 가죽.

- ① ‘빛꽃’과 ‘엿의갓’은 표의주의 원리에 따른 표기 형태에 해당하겠군.
- ② ‘ㄱ, ㅎ, ㄷ, ㄴ, ㅂ, ㅅ, ㄹ’은 당시 중성에서 발음된 자음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8자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은 표음주의 원리에 따른 중성 표기로 볼 수 있겠군.
- ④ ‘빛꽃’의 중성에 쓰인 ‘ㅅ’과 ‘ㅈ’은 근대 국어 시기에는 모두 표기가 ‘ㄷ’으로 통일되었군.
- ⑤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다만 ㅅ자를 씀’이라는 것은 중성의 ‘ㅈ’과 ‘ㅊ’이 ‘ㅅ’으로 발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이겠군.

[23004-0102]

0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료	기분이 좋은지 그는 휘파람을 불었다.	이 집을 지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의문점	왜 ‘좋은지’의 ‘지’는 붙여 쓰고 ‘지은 지’의 ‘지’는 띄어 쓸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의 쓰임을 확인한다. ☞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인다.	‘자료’에서의 쓰임을 확인한다. ☞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한다. • 아이는 피곤하지도 않은지 밤새도록 놀았다. ☞ ‘지’는 형용사 어간 등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 ‘-(으)ㄴ지’의 일부이므로 붙여 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그를 만난 지가 꽤 오래되었다. • 한국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다.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10px auto;">㉠</div>
적용	“강아지가 집을 나간□사흘 만에 돌아왔다.”에서 □안에 들어갈 ‘지’는 앞말과 띄어 쓴다.	

㉠ 보기

- ㄱ. ‘지’는 어간과 결합하여 용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
- ㄴ. ‘지’는 조사가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 ㄷ. ‘지’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해서 문장의 첫머리에는 나타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3004-0103]

04 <보기>를 바탕으로 안은문장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안은문장은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이다. 이때 안겨 있는 절을 안긴절이라 하고, 안긴절의 종류로는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을 들 수 있다. 안긴절은 형성 과정에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 | |
|-------------------------|--------------------------|
| ㉠ 명수가 이번 사건의 범인임이 분명하다. | ㉡ 명수는 자전거가 지나가도록 길을 비켰다. |
| ㉢ 명수가 빵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 ㉢ 명수는 학교에 가기에 바빴다. |
| ㉣ 명수가 엄마가 사 오신 빵을 먹었다. | |

- ① ㉠과 ㉢의 안긴절은 종류가 다르고 전체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도 다르다.
- ② ㉢의 안긴절은 ㉣의 안긴절과 달리 안긴절 속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 ③ ㉣은 ㉠과 달리 안긴절을 생략하여도 문장이 성립한다.
- ④ ㉣과 ㉢의 안긴절의 주어는 전체 문장의 주어와 다르다.
- ⑤ ㉡과 ㉢의 안긴절은 종류는 다르나 전체 문장에서의 문장 성분은 같다.

[23004-0104]

0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같은 반 친구인 '준호'와 '지우'가 하룻길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준호: 친구가 전시회 초대권을 두 장 줬는데, 이번 주말에 뭐 해?

지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 어, ㉠그거 혹시 나한테 전시회에 같이 가자는 뜻?

준호: 괜찮다면, (초대권을 꺼내서 보여 주면서) 마침 전시회 주제가 '바다의 시선에서 본 해양 생태계'인데, ㉡절때 국어 수업 시간에 네가 평소 해양 환경 보호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발표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 ㉢더군다나 미술 수행 평가인 전시회 감상문 쓰기도 해야 하고.

지우: 재미있겠다. 전시회는 어디에서 열려?

준호: (들고 있던 초대권을 확인하면서) ㉣이거 보니까 장소는 '○○ 해양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네.

지우: 우아, ㉤거기 우리 집에서 진짜 가까워.

- ① ㉠은 앞에서 나온 '준호'의 발화를 가리킨다.
- ② ㉡은 과거의 시간을 가리키는 데에 쓰이고 있다.
- ③ ㉢은 앞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은 가리키는 대상이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 ⑤ ㉤은 가리키는 장소가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을 나타낸다.

[01~0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강○○ 소장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환경 사랑’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분리배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송 내용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강 소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자: 지난 시간에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물질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으로 나누어 설명하셨는데, 지난 방송을 듣지 못하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 소장: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재활용합니다. 분쇄, 용융 등 물리적으로 플라스틱을 가공해서 다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페비닐이나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을 탄화수소 등의 성분으로 분해해서 석유 제품 등의 원료를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을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물질 재활용 혹은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아예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인 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유리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 사용한 유리 제품의 분리배출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강 소장: 유리를 분리배출할 때 내열 유리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열 유리는 이름 그대로 열에 견디는 성질이 강한 유리를 말하며 일반 유리를 사용한 유리 제품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열 유리는 일반 유리와 함께 녹여서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유리와 내열 유리가 섞여 있는 경우 이를 함께 녹여서 재활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녹지 않은 내열 유리 알갱이가 박혀 있는 불량 유리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리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그러면 내열 유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 소장: 유리로 된 냄비나 주전자,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유리 용기도 대체로 내열 유리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 ‘내열 유리를 사용한 물품이 아니면 다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로 보면 되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강 소장님, 어떻습니까?

강 소장: 크리스털 유리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털 유리 안에는 고농도의 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유리를 녹이는 과정에서 다른 유리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털 유리도 일반 유리와 구별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거울이나 깨진 유리, 도자기, 사기그릇, 화분도 유리와 함께 배출하기 쉬운 제품입니다. 배출하실 때 유리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게 배출된 유리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일부 유리병은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병을 재사용합니까?

강 소장: 소주병이나 맥주병에는 라벨에 빈 용기 보증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으로도 준비해 봤습니다. 이 표시가 있는 것은 재사용을 위해 판매점에서 보증금을 주고 회수하는 유리병입니다. 이렇게 회수한 유리병을 다시 씻어서 재사용합니다.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청취자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빈 용기 보증금 표시는 내부에 금액이 적혀 있는 유리병 모양의 도형입니다. 청취자 게시판의 ◇◇◇ 님께서 ‘현재는 시민들의 판단에 의존해서 우리의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점은 없을까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 소장: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도 플라스틱처럼 재질 표시를 해서, 재활용이 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시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으로 선별한 후 재활용을 하는데, 요즘 백색, 갈색, 녹색 이외에 다양한 색의 유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유리 제품이 많이 섞이게 되면, 유리의 재활용이 좀 더 어렵게 됩니다.

사회자: 유리 제품을 잘 분리배출해서 재활용·재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3004-0105]

01 위 대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생산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이 드러난다.
- ② 대담 참여자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매체의 특성이 드러난다.
- ③ 대담 참여자가 서로 격식체를 사용하여 대화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공적 담화를 바탕으로 하는 매체의 특성이 드러난다.
- ④ 라디오의 청취자나 인터넷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대상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이 드러난다.
- ⑤ 청취자 게시판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이 드러난다.

[23004-0106]

02 위 대담에 나타난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담자의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여 청취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점을 바로 잡고 있다.
- ② 질문을 통해 대담자에게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끌어 내어 청취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지난 방송에서 잘못 설명한 내용을 정정하며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는 방송 내용에 대한 청취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있다.
- ⑤ 방송의 서두에 방송에서 전달할 내용을 순차적으로 밝혀 시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고 있다.

[23004-0107]

03 <보기>는 위 방송을 들은 청취자의 반응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사회자의 발언 중에 플라스틱보다 우리가 친환경적인 재료라는 내용이 있었어. 그런데 예전에 본 방송에서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에 비해 우리가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이 1,000배 정도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본 적 있어. 그리고 지난 ‘환경 사랑’ 방송에서 우리와 달리 플라스틱은 화학적 재활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방송에서 우리가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인 재료라는 특정한 관점에 따라 사회자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 ① 방송 내용에 대해 전문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수용자에 따라 방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분명한 사실만을 활용하여 방송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③ 방송 중 발언에 담긴 관점에 관해 수용자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므로 방송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발언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배경지식에 따라 방송 내용의 수용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방송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방송 중 발언에 대해 수용자가 수긍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회자가 수용자의 입장에서 대담자의 설명을 평가하며 방송을 진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04~05] 다음은 인터넷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학 생 ▶ 안녕하세요.

상담원 ▶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학 생 ▶ 학교 체육 대회에서 입을 단체복을 맞추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학 생 ▶ 누리집의 ‘고객 상담’ 배너를 눌렀더니 이런 대화 창으로 연결되었는데, 이 대화 창에서 상담하는 게 맞나요?.....㉠

상담원 ▶ 네. 학생용 단체복은 종류도 많고 가격도 다양한데, 원하는 옷이 있으신가요?

학 생 ▶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세트면 좋겠고, 가격은 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좋겠어요.

상담원 ▶ 봄옷으로 적당한 체육복 세트와 여름옷으로 적당한 체육복 세트가 있어요.

학 생 ▶ 체육 대회는 한 달 뒤여서, 날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옷으로 적당한 체육복 세트가 좋겠어요.

학 생 ▶ ㉡

학 생 ▶ 이런 스타일의 체육복도 있나요?

상담원 ▶ 그럼요. 가격은 3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옷에 원하시는 문구도 인쇄해 드릴 수 있어요.

상담원 ▶ www.◇◇◇◇◇◇◇.com/list/2022가 상품 소개 페이지예요.㉢

상담원 ▶ 상품 소개 페이지 보시고 원하시는 세트를 고르시고, 안내에 따라 주문해 주세요. _____

학 생 ▶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상담원 ▶ 배송일 기준으로 3주 전에 주문하시면 총액에서 5%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

학 생 ▶ 감사해요. 가급적 빨리 주문해야겠네요. ♡.♡

학 생 ▶ 인쇄하고 싶은 문구를 적어 놓은 파일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인쇄할 수 있나요?

학 생 ▶ 우리 반 옷에 인쇄할 문구.txt㉣

상담원 ▶ 잠시만요. 첨부 파일 확인해 볼게요.

학 생 ▶ 네~~.

상담원 ▶ 옷에 인쇄하기에는 글자가 좀 많은데, 분량을 1/4 정도만 줄이면 가능하겠어요.

학 생 ▶ 잠시만요. 이 정도면 될까요?

학 생 ▶ 우리 반 옷에 인쇄할 문구_분량 수정.txt㉤

상담원 ▶ 파일 열어서 확인했는데, 이 정도 분량이면 옷에 인쇄할 수 있어요. 몇 벌 필요하세요?

학 생 ▶ 25벌이요.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원 ▶ 주문일 기준 5일 내외예요.

학 생 ▶ 알겠습니다. 친구들과하고 상의하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해요.

+ 전송

[23004-0108]

04 ㉠~㉤을 통해 알 수 있는 매체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하이퍼링크를 통해 실시간 의사소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 별도의 웹 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 자신이 생산한 디지털 매체 자료를 공유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다.
- ⑤ ㉤: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여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다.

[23004-0109]

05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청각 자료와 음성 메시지를 통해 담화 참여자의 의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 ② 담화 참여자의 경험에 근거한 정보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되고 있다.
- ③ 공유하고 있는 매체 자료를 통해 담화 참여자 간의 견해 차이가 해소되고 있다.
- ④ 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통해 담화 참여자 간의 개인적 친분이 드러나고 있다.
- ⑤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 기호를 통해 담화 참여자의 심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01~03] (가)는 학생들이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제작해 학교 누리집에 올린 카드 뉴스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들 들어왔니? 교실에 게시된 건강 소식지 봤어? 청소년 카페인 섭취에 대한 거 말이야. 학생 1

학생 2 {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혹시 가지고 있니?

학생 3 { 그거 내가 사진 찍어 둔 거 있어! 보내 줄게. [파일 전송] 20230317.JPG

이거 맞아. 카페인이란 커피에만 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커피 말고도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랐어. 학생 1

학생 4 { 맞아. 나도 건강 소식지 보고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가 많은 것을 알고 나니 걱정되더라! 😞

학생 2 { 나도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를 다룬 영상을 본 적 있어. 잠깐만.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 찾아서 보내 줄게.

학생 2 { 찾았어. 여기 URL 주소 눌러서 봐. <http://www.◇◇◇◇.com/v/1010235h>

학생 4 { 이 영상은 외국 방송국에서 제작한 거라,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그렇지만 알아 두면 좋을 만한 일반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아.

학생 3 { 그렇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카페인 섭취와 관련해서 알아 두어야 할 점을 잘 간추려서 보여 주는 것 같아. 🤖

학생 2 { 건강 소식지를 보면서, 나도 이 영상이 생각났어.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고 있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면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와 관련된 내용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학교 누리집에 올리면 어때? 학생 1

학생 4 { 좋은 생각이야. 핵심 내용을 담은 문구를 정하고 디자인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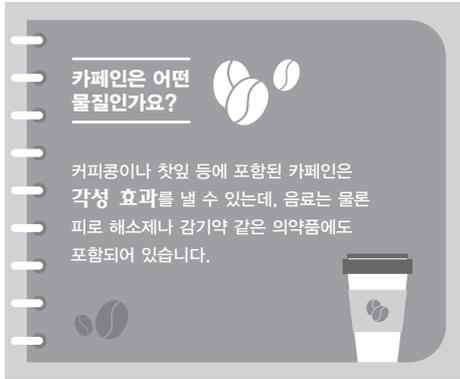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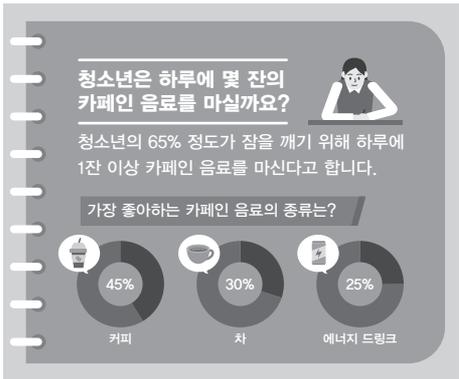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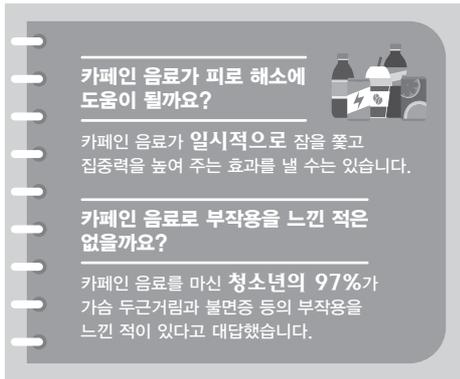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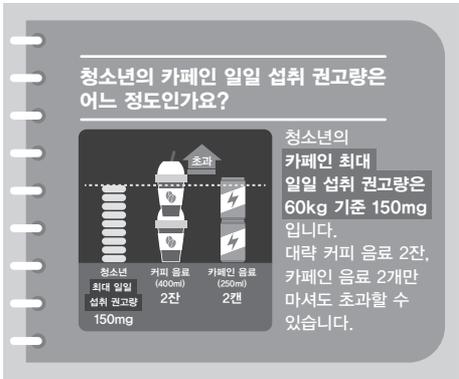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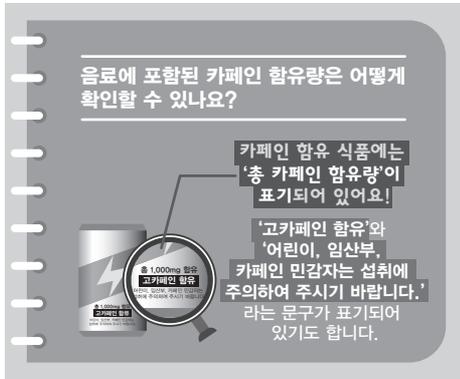
학생 3 { 문구의 표현 방식에 변화를 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각하거나, 이미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카드 뉴스의 장점을 살리면 좋겠다.

카드 뉴스를 보도록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학생 1 [A]

학생 2 {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볼 거니까, 건강 소식지의 내용과 영상 내용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 주면 좋을 것 같아.

좋아. 그럼 내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 대화방에 올릴게. 검토 부탁해. 학생 1

(나)

<p style="text-align: center;">카드 1</p> 	<p style="text-align: center;">카드 2</p> 
<p style="text-align: center;">카드 3</p> 	<p style="text-align: center;">카드 4</p> 
<p style="text-align: center;">카드 5</p> 	<p style="text-align: center;">카드 6</p> 

01

[23004-01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1’은 카드 뉴스의 제작을 제안하여 매체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 ② ‘학생 2’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생산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자신이 소유한 디지털 파일을 공유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학생 4’는 매체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전달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학생 1’과 ‘학생 4’는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대화 참여자의 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2

[23004-0111]

‘학생 1’이 [A]를 고려하여 세운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카드 뉴스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그래픽 이미지로 제시하여 카드 뉴스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②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보여 주는 문구가 두드러지도록 일부 구절의 글자 모양이나 크기를 달리해야겠어.
- ③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카페인 섭취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④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해 본 학생의 실제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 ⑤ 카드에서 다루고자 하는 화제를 의문형 문장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카드 뉴스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해야겠어.

[23004-0112]

03 <보기>는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보기>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청소년, 수분 '부족' 카페인 '과다'

국민 중에서 수분 섭취량이 가장 부족한 세대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0△△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 12~14세 남성의 75%와 여성의 84%, 15~18세 남성의 77%와 여성의 79%가 총 수분 섭취 기준 미만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대 중에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많은 집단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물 대신 음료를 섭취하는 10대 청소년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초등학생 5,000명, 중학생과 고등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카페인 음료 및 탄산음료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카페인 음료 섭취량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65%는 하루 1잔 이상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했다.

- ① <보기>와 (나)는 모두 참고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보기>와 (나)는 모두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에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보기>와 (나)는 모두 실태를 보여 주는 조사 결과를 들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는 (나)와 달리 기사에 대해 예상 가능한 비판과 반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보기>와 달리 문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

[04~05] 다음은 ‘인공 지능’에 대한 텔레비전 강연 내용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면 1] (강연자의 모습과 함께 ‘TV 특강’이라는 프로그램명과 강연자의 이름이 교실의 스마트 칠판 화면에 뜬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 지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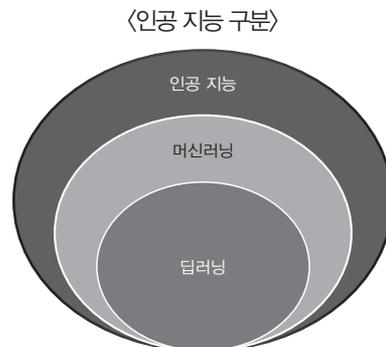
보통 ‘지능’이란 한 개인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하는 인지적인 능력과 학습 능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인공 지능입니다.

(영상이 재생된다.) 방금 보신 영상은 2016년 당대 최고의 바둑 기사와 한 IT 회사에서 만든 바둑 분야 인공 지능의 대국 장면의 일부입니다. 5번 치러진 대국에서 바둑 기사는 1번 이겼을 뿐입니다. 이러한 인공 지능은 인간의 사고, 학습 등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드웨어 성능의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면 2] (화면 하단에 ‘생활 속 인공 지능’이라는 문구가 제시된다.)

이미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자동 번역 기능은 대표적인 인공 지능 기술입니다. 인공 지능의 발전에 힘입어 문자 인식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어 이렇게 카메라로 문장을 찍어 문자를 인식하게 하면 매끄러운 번역 결과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음성을 인식하여 문자로 표시하거나 문자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인공 지능은 이미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 탑재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에 내장된 지문 인식 기능, 안면 인식 기능, 동작 인식 기능은 물론 자동차에 탑재된 자율 주행 기능 등도 인공 지능 기술이 상용화된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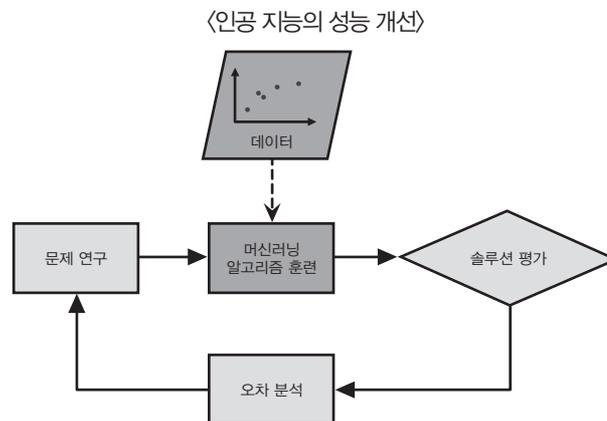
[장면 3] (화면에 ‘인공 지능 구분’이라는 제목과 함께 도식이 제시된다.)



최근 인공지능이라는 말 대신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심층 학습이라고 하는 딥러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딥러닝은 인공 신경망 원리에 기반한 머신러닝의 일종이며,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의 하나인 머신러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머신러닝은 명시적인 함수 구문에 의한 명시적인 규칙들이 프로그래밍된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규칙을 학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여러 층의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면 4] (화면에 ‘인공지능의 성능 개선’이 도식으로 제시된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학습시키고, 별도의 데이터로 솔루션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솔루션 평가를 통해 나타난 오차를 분석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문제를 연구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되는 데이터를 통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스스로를 수정합니다. 별도의 수정이나 조정 없이 새로운 상황에 따라 반응할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보장된다면 결과의 정확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23004-0113]

04 위 텔레비전 강연을 제작하기 위해 세운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인공 지능의 발전을 보여 주는 사례를 담은 영상을 제시하여 강연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①
- 인공 지능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 대략적인 과정을 설명하여 인공 지능의 구동 방식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②
- 인공 지능이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것을 직접 보여 주어 인공 지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켜야겠어. ③
-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술을 언급하여 시청자가 인공 지능의 상용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어. ④
- 인공 지능 분야의 개념들 간의 관계를 도식으로 제시하여 인공 지능과 혼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관계가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해야겠어. ⑤

[23004-0114]

05 <보기>는 위 강연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오늘 시청한 텔레비전 강연은 여러 가지로 유익했어. 인공 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했지만, 정작 그러한 용어들의 개념이나 의미 등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했거든. 전문 분야의 내용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쉽게 정리하여 텔레비전 강연 형식으로 전달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

- ① 전문적인 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하여 전달하는 방송 매체의 효용성에 주목하고 있군.
- ② 방송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 상황에서 시청자의 준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을 수반한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군.
- ③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강연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방송 매체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④ 구두 설명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전달의 장점과 시각 자료를 활용한 정보 전달의 한계를 대비하며 방송 매체의 내용 전달 방식을 검토하고 있군.
- ⑤ 시청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송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강연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오해가 해소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군.

[01~02] (가)는 신문사의 웹 페이지에 게재된 뉴스 기사이고, (나)는 종이 신문에 실린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신문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해’ 약 48.2%, A시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문제 심각

(2022. xx. xx. 09:12 최초 작성 / 2022. xx. xx. 20:53 수정)

글자 크기 /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다수가 여전히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일 A시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관내 청소년 1,1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 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수준과 근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중 약 48.2%가 아르바이트 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약 23.2%가 업주로부터 임금 체불, 지정 업무 외 지시, 주휴 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징적인 점은 노동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들 중 211명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상대하기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약 46.9%, ‘문제 제기를 해 봤자 달라질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약 20.9%,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약 12.3%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B 청소년 인권 센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B 청소년 인권 센터의 김△△ 센터장은 “청소년이 약자라는 점을 이용해 노동 인권을 침해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박□□ 기자(park@◇◇.kr)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 A시 의회,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재발의
- ▶ [현장 취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들

[댓글]

비단잉어: 좋은 내용이네요. 저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반감을 품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고양이: 맞아요. 노동 인권 침해로 청소년의 희망을 짓밟은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 비단잉어: 저도 고양이 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나)

3면 2022년 ××월 ××일 수요일

사회

제3753호 ㉠㉡일보

노동 인권 침해받은 A시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그냥 참아요.” 근로 중 부당 행위 당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많아

일하는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일 A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관내 청소년 1,105명 중 약 23.2%가 임금 체불, 지정 업무 외 지시, 주휴 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약 59.4%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후에도 참고 계속해서 일했다고 응답했다. 부당 행위에 대해 직접 항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211명에게 그 이유를

설문한 결과, ‘상대하기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약 46.9%로 가장 많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라는 응답도 약 12.3%를 차지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줌과 동시에 교육적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 준다. A시 청소년 9,292명 중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이 약 15.2%밖에 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A시 교육청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노동 인권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관내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시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 기자(lee@○○.kr)

[23004-0115]

01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수용자가 댓글을 통해 기사에 관한 의견을 다른 수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 ② (나)에서는 수용자가 신문에서 기사가 실린 지면의 위치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와 (나)에서는 모두 수용자가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각과 수정 시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④ (가)에서는 (나)와 달리 수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면의 글자 크기를 조절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 ⑤ (가)에서는 (나)와 달리 수용자가 관련 기사를 클릭함으로써 기사 내용과 관련 있는 정보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23004-0116]

02 <보기>를 참고할 때, (가)와 (나)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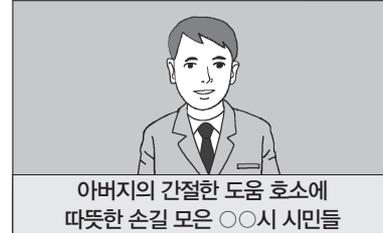
기사에는 객관적인 사실 외에도 언론사의 가치 판단에 의해 선택되고 재구성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기사에 반영된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사를 읽을 때 표제를 포함하여 본문, 인용한 자료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기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생산자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 어떤 정보를 부각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에서 청소년의 근로 계약서 작성 실태를 보여 주는 수치를 표제에 제시한 것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노동 인권 침해 행위를 경험한 청소년의 입장을 표제에 드러낸 것은, 많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침해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가)에서 (나)와 달리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를 본문에 제시한 것은, 노동 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④ (가)에서 (나)와 달리 청소년 인권 센터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본문에 인용한 것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문제를 업주의 처벌에 초점을 두어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나)에서 (가)와 달리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의 수치를 본문에 제시한 것은,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을 침해받는 문제의 배경에 교육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겠군.

[03~05] (가)는 텔레비전 뉴스 보도의 일부이고, (나)는 (가)의 보도 이후 보건 동아리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한 달 전 불의의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A 양을 위해 시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수술을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100명이 넘는 시민이 헌혈의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면 1]

기자: 이곳은 출근 시간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시 사거리입니다. 지난 ××월 고등학생 A 양은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고 ○○ 시립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장면 2]

기자: 수술을 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말에 A 양의 아버지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O형 혈액을 지정 헌혈해 줄 것을 호소했고, 이 글은 100명이 넘는 시민을 헌혈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재 A 양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5시간 이상의 수술을 마치고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장면 3]

A 양 아버지(인터뷰): 눈앞이 아찔했죠. 수술이 어렵다는데 가족들 다 동원해도 혈액은 부족하고,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민들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급한 고비를 넘겨 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기자: 시민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A 양을 살릴 수 있었던 일은 요즘처럼 헌혈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감동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BC 뉴스 기자 고△△이었습니다.



[장면 4]

(나)

보건 동아리 채팅 방(5명)

민서 <애들아, 뉴스 봤니?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해서 교통사고로 위중했던 A 양이 수술을 할 수 있었다는 뉴스 말이야. 아직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링크를 첨부할게.
https://ebcnews.kr/n2cv9**>

선호 <나도 봤어. 안 그래도 요즘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서 위급한 환자들이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 이는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은성 <맞아.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그런데 뉴스에서는 담담하게 A 양에 관련된 소식만 전할 뿐 시청자들에게 헌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내용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

도윤 <앗, 나 지금 보고 왔어. 뉴스를 보니 그동안 헌혈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하게 되더라. 어조가 담담하긴 하지만 나처럼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헌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A]

민서 <그렇구나. 나는 이 뉴스를 보고 동생이 아팠을 때가 떠올랐어. 동생이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헌혈을 하셨거든. 요즘처럼 헌혈자가 점점 줄면 혈액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어.>

채훈 <응, 지금처럼 헌혈자가 줄어들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게 걱정되네. 학교에서도 당장 다음 주에 헌혈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성한 학생들이 무척 적다고 해. 우리가 먼저 문제를 인식한 만큼 헌혈 독려 캠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도윤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날짜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여러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채훈 <맞아. 그래서 말인데 학생들이 헌혈의 필요성을 깨닫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을 제작해서 누리 소통망(SNS)에 올리면 어떨까? 동영상은 내가 만들 줄 알아.>

선호 <괜찮은 생각이다. 그럼 수혈을 위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을 글로 제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잠깐의 불편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멘트를 내레이션으로 제시하자.>

은성 <그 멘트를 내레이션으로 넣는 것에는 동의해. 그런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글을 줄여 내용을 간단하게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하면 어때? 내가 찾은 혈액 보유량 이미지를 공유할게.
[파일 전송] 혈액 보유량 이미지.jpg (4MB)>

도윤

오, 좋은데? 그럼 우리가 본 뉴스를 동영상으로 삽입하면 어떨까? 뉴스를 보면 학생들도 혈액 부족이 우리 친구들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느끼고 헌혈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괜찮은 생각이다. 대신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잊지 마. 아 참, 배경 음악은 어떻게 할까?

민서

선호

진지한 내용이니까 모든 장면에 잔잔한 음악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처럼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효과음을 추가하여 강조하자.

은성

효과음을 추가하는 것은 좋아. 그런데 분위기는 한 번 전환하는 게 어떨까? 혈액 부족 상황을 제시할 때는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에서는 경쾌한 배경 음악을 제시하는 거야.

채훈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볼게. 나중에 함께 검토하자.

[23004-0117]

03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보도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헌혈의 집에 방문한 시민의 의견을 취재하여 언급하고 있다.
- ②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진행자가 발화할 때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지난 보도 내용과의 관련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동영상을 삽입하여 사건의 개요를 요약하고 있다.
- ④ 인터뷰한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발언 내용의 일부를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진행자와 기자가 서로 다른 곳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한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하여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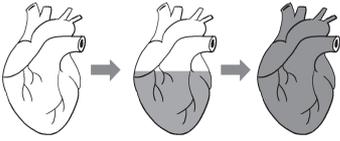
[23004-0118]

04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호'는 뉴스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석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은성'은 뉴스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음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도윤'은 뉴스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뉴스가 누구에게 유용할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④ '민서'는 뉴스에서 다른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 ⑤ '채훈'은 뉴스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친구들에게 관련된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23004-0119]

05 다음은 ‘채훈’이 제작한 스토리보드의 초안이다. (나)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다고 할 때, 이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면 구상	화면	내레이션 및 소리
#1 제목이 한 글자씩 나타난 후 뉴스 이미지가 제시됨.	<p>여러분, 이 사건을 아세요?</p>  <p>아버지의 간절한 도움 호소에 따뜻한 손길 모은 ○○시 시민들</p>	<p>혈액이 부족하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위협해질 수도 있습니다.</p> <p>[효과음] (제목 제시될 때) 타이핑 소리 [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음악</p>
#2 제목이 먼저 제시된 후 혈액 보유량 이미지가 떠오름.	<p>적정 혈액 보유량 = 5일분 이상</p>  <p>현재 혈액 보유량 = 3.4일분</p> <p>(2022. 3. X. 기준)</p> <p>이미지 출처: 대한적십자사</p>	<p>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적정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혈액 보유량은 일평균 3.4일분으로 혈액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p> <p>[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음악</p>
#3 글자와 빈 심장 이미지가 먼저 제시된 후, 빈 심장에 색이 서서히 차오르면서 혈액이 가득 찬 심장 이미지로 나타남.	 <p>3월 ** 일, 헌혈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p>	<p>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잠깐의 불편이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3월 ** 일, 헌혈 행사에 참여해 주세요!</p> <p>[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음악</p>

- ① 뉴스를 동영상으로 제시하기로 했으니 #1의 뉴스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교체한다.
- ② 뉴스 자료의 출처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니 #1에 자료의 출처를 삽입한다.
- ③ 강조할 부분에 효과음을 활용하기로 했으니 #2의 상황을 강조할 때 효과음을 삽입한다.
- ④ 분위기를 전환하기로 했으니 #3의 배경 음악을 경쾌한 느낌의 음악으로 교체한다.
- ⑤ 내용을 간단하게 구성하기로 했으니 #3의 내레이션 중에서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한다.

[01~03]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경쾌한 배경 음악이 흐르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5분 건강 정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질병 관리청이 발표한 국민 건강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평균 시간은 2014년 7.6시간에서 2020년 8.8시간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가정 의학과 전문의 신스△ 교수님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의: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성인들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지 설명해 주세요.

전문의: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신체 활동이 줄고 이에 따라 하루 총열량 소비량도 감소하여 비만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 당뇨 등 성인병의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지요. 이뿐만 아니라 목, 허리, 어깨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는데요, WHO에서는 이렇게 오랜 좌식 생활이 유발하는 질환들을 통틀어 ‘의자병’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적어도 34개의 만성 질환 위험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진행자: 오래 앉아 있는 생활로 인해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군요. 이를 예방하려면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데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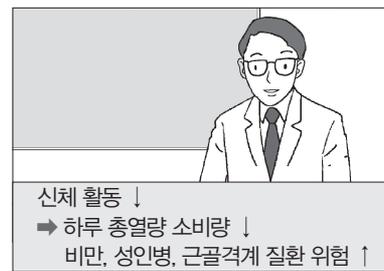
전문의: 먼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몸을 움직여 열량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시간과 돈이 들고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더 쉬운 실천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의: 대부분의 사람이 신체 활동과 운동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신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체 활동은 휴식할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체의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신체 활동은 직업 활동, 가사 활동, 통근이나 통학과 같은 이동, 놀이와 같은 여가 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운동보다 훨씬 큰 개념이지요. 따라서 신체 활동량은 생활 습관에 조금씩만 변화를 주어도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확대하여 주시겠습니



[장면 1]



[장면 2]

신체 활동량 늘리기, 이렇게 시작하세요!

1. 30분에 1번씩 일어서기
2. 이동 시 걷는 구간 늘리기
3.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장면 3]

까? (모니터 화면이 장면 전체로 확대된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신체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30분에 1번씩 일어서기, 이동 시 걷는 구간 늘리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네, 생활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체 활동량 늘리기를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 보건소에서 개발한 신체 활동 관리 앱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체 활동 관리 앱을 실행했을 때 ㉠ 처음으로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기 4개의 버튼이 보이지요? 여기서는 각 버튼에 연결된 메뉴의 이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원하는 버튼을 눌러 각각의 메뉴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신체 활동’ 메뉴를 누르면 기존에 스마트폰을 통해 인식된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용자가 별도로 신체 활동을 한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장면 4]

있습니다. ㉡ ‘식단 관리’ 메뉴는 카메라 앱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섭취하는 음식을 앱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사진으로 찍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건강 스트레칭’ 메뉴에서는 생활 속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글로 된 설명 외에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함께 게시해 두어 사용자가 이를 보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건강 상담’ 메뉴는 사용자가 건강과 관련한 질문을 글로 올릴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전문 의료진이 답변을 해주는데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 주민이 아니어도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경쾌한 배경 음악이 흐르며) 여러분, 혹시 지금도 텔레비전을 앉아서 시청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지금부터라도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려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면 5]

[23004-0120]

01 위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송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배경 음악을 삽입하여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시청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문의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방송에서 다룰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방송을 시작할 때 핵심 내용을 자막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시청자가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의의 설명 중 일부 내용은 확대한 화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음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을 마무리할 때 다음 방송의 주제를 예고하고 있다.

[23004-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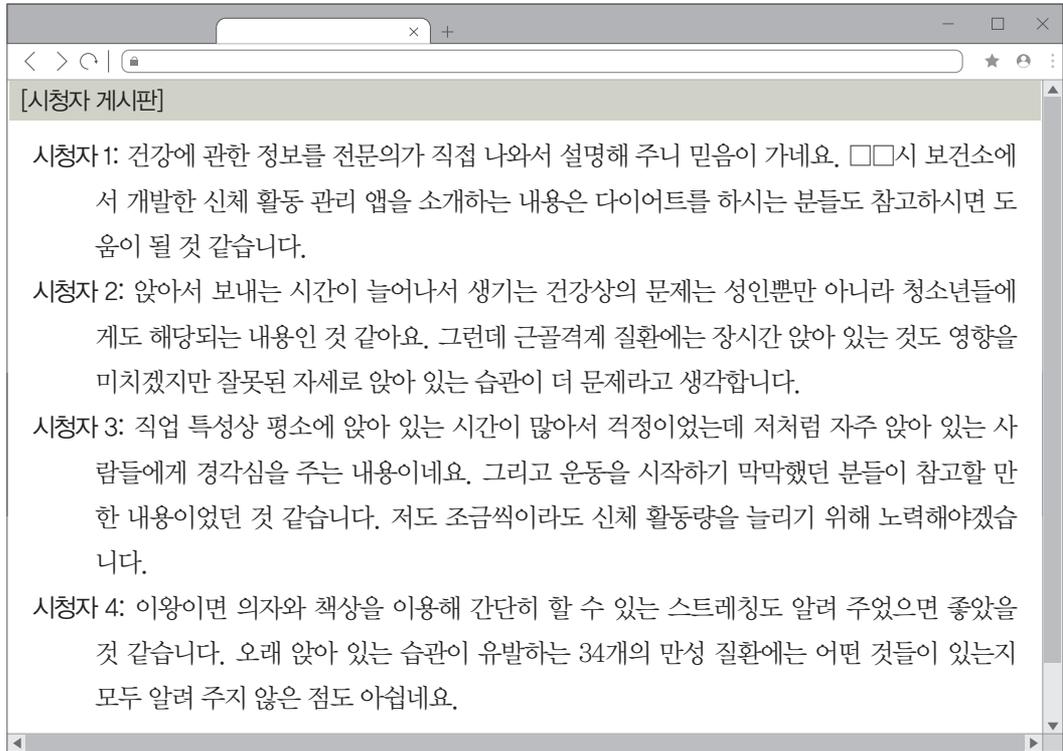
02 [A]를 바탕으로, ㉠~㉣에서 설명하고 있는 매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각 버튼에 연결된 메뉴의 이름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자는 앱의 개발자가 미리 배치해 놓은 버튼의 순서에 따라서만 앱 안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스마트폰에 인식된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고 활동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자는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수용할 수도 있고 정보를 새로 추가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연동된 카메라 앱으로 음식 사진을 언제 어디서든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자는 앱 안에 연결된 다른 앱을 사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스트레칭 방법을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자는 둘 이상의 양식이 결합된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건강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면 의료진과 댓글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자는 다른 사람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004-0122]

03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청자 1’과 ‘시청자 2’는 출연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방송 내용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② ‘시청자 1’과 ‘시청자 3’은 방송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며 방송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시청자 2’와 ‘시청자 3’은 방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언급하며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 ④ ‘시청자 2’와 ‘시청자 4’는 방송에 드러난 출연자의 견해가 상반된 두 입장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시청자 3’과 ‘시청자 4’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다룬 정보의 양이 충분했는지 점검하고 있다.

[04~05]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인터뷰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남의 직업 돋보기' 2회 - 의료 데이터 과학자

인터뷰 내용	채팅 창
<p>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의 직업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의료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을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 △△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료 데이터 과학자 김□□ 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p> <p>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p>	<p>빛나라: 오 내가 1등 생글이: ㅋㅋㅋㅋ 반가워요! 책벌레: 안녕하세요~! 금붕어: 제 친구가 그러는데 △△ 병원</p>
<p>진행자: 오늘은 평소보다 많은 분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네요. 지금 900명 정도 접속해 계시는데, 의료 데이터 과학자가 어떤 직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p>	<p>의사들이 엄청 별로래요~,㉠ 빛나라: 금붕어 님, 예의를 좀 지켜 주시죠.</p>
<p>김□□: 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 그 환자의 질환과 관련한 의료 데이터가 생산되겠지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이 바로 의료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일입니다.</p>	<p>: 침덩굴: 빅 데이터가 요즘 유행하다던데. 하얀미소: 혹시 허리 통증 치료로 유명한 병원 아시나요?</p>
<p>진행자: '보리밭' 님께서 듣기만 해도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보리밭: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커피줄아: 뽀스이!㉡</p>
<p>김□□: 네, 먼저 의사들과 의논하여 의학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한 문제를 결정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집해야 할 데이터 종류와 수집 방법,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할 인공지능 모델을 잠정적으로 정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의료 정보 팀과 의료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지요. 이렇게 원하는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면 저를 비롯한 데이터 과학자들이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면 의사들과 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모델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실제 병원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IT 팀에서 기술적인 일을 처리하지요.</p>	<p>보리밭: 커피줄아 님, 그게 무슨 뜻이죠? 하얀미소: 허리 통증 치료로 유명한 병원 아시는 분? 커피줄아: 보리밭 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하얀미소: 허리 통증 치료 잘하는 병원 아시는 분?㉢ 보리밭: 아, 그렇군요. 침덩굴: 하얀미소 님, 도배를 멈춰 주세요. 불편하네요.</p>

진행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만 듣고는 어렵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김□□ 님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요약, 정
리하여 동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지요.

(동영상을 보여 준다.)

진행자: 동영상으로 보니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 주세요. (채팅 창을 본
뒤) 오, ‘생글이’ 님이 좋은 질문을 올려 주셨네요. 의료 데이터 과학
자가 되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나요?

김□□: 아무래도 인공 지능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인공 지능 학과가 개설된 것이 최근의 일이다 보니, 현재는
주로 컴퓨터를 전공한 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
계학이나 수학을 전공한 분들도 있고, 의학을 전공한 분들도 있지
요. 특별히 전공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 데이터 분
야에 관심이 많다면 누구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단팔뿔’ 님이 유용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의료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김□□: 의료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를 위해서는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 지능 기술이 필요할 수밖
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의료 데이터 과학자가 미래를 위한 가장 중
요한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전망이 밝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 동시 접속해 계시는 분들이
3,000명을 돌파했는데요. ‘고양이’ 님은 제주도에서, ‘성공하자’ 님
은 경주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시청자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김□□: 제 직업에 대해 이렇게 전국 각지에 계시는 많은 분이 관심을 가
져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개
발하기 위해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사
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

빛나라: 잘 만든 동영상이에요.

끝까지: 영상을 보니 확실히 알겠네요.

생글이: 의료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죠?

은하수: 어, 저분 40살이시고 ◇◇동에
사세요.

은하수: ◇◇ 아파트 101동에서 왔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②

책벌레: 은하수 님, 자제해 주세요. 보기
불편합니다.

단팔뿔: 특정한 전공이 필요한지 궁금했
는데 유용한 내용이네요.

:

고양이: 저는 지금 제주도에서 방송을
시청하고 있어요.

성공하자: 저는 경주에 사는 수험생인데
이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단팔뿔: 자기 직업에 자부심 있는 모습
이 멋집니다.

보리밭: 오늘 방송 좋았어요.

조롱박: 수험생이면 나가서 공부나 해
라. 이럴 시간이 있나? ……………②

고양이: 조롱박 님, 말씀이 지나치시네
요. 불쾌하네요.

빛나라: 수고하셨습니다.

[23004-0123]

04 위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방송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가 동시 접속자 수를 언급하는 것을 보니,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군.
- ② 진행자가 전국 각지에 있는 시청자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방송에 접속할 수 있군.
- ③ 진행자가 시청자들을 언급할 때 각각의 별명을 부르는 것을 보니, 시청자들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방송에 참여할 수 있군.
- ④ 진행자가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의 의견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방송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군.
- ⑤ 진행자가 미리 준비해 둔 동영상을 방송 중에 제시하는 것을 보니, 시청자 개인의 요구에 따라 개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군.

[23004-0124]

05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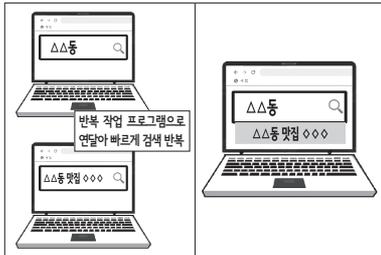
[보기]

인터넷 공간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인터넷 공간에서 생산된 정보들은 비교적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편이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소통할 때에는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신중한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 자음, 모음을 생략하는 등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줄 정도로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대화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표절이나 불법 복제 등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등은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① ㉠은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표현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군.
- ② ㉡은 맞춤법에 맞지 않는 언어 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겠군.
- ③ ㉢은 맥락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타인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겠군.
- ④ ㉣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여 유포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겠군.
- ⑤ ㉤은 타인의 상황에 관해 무분별하게 비방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군.

[01~03] (가)는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고, (나)는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p>앵커 멘트 화면</p>		<p>앵커: 2021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93%입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웹 포털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지요. 일부 웹 포털에서는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 있는 검색어 목록을 검색창 하단에 제시합니다. 편리한 서비스가기는 하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자의 보도입니다.</p>
<p>리포트 화면 (1)</p>		<p>기자: 따로 입력 장치에 손을 대지 않아도, 마우스의 움직임 등을 기억했다가 동일한 작업을 빠르게 반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동시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에 이어 특정 업체의 이름이 검색창 하단에 제시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천 검색어를 제시하는 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 검색 분야 전문가에게 이 사실에 관해 설명을 들어 보았습니다.</p>
<p>리포트 화면 (2)</p>		<p>전문가: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는 포털의 검색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 제시되면 특정 검색어로 이용자는 쓸릴 수밖에 없지요. 이 서비스는 이용상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점의 이면에 인위적으로 이용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성격을 감추고 있다고 봅니다. 웹 포털은 꾸준한 자체 필터링을 통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검색어가 추천되는 경우 그 검색어를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 완벽하게 걸러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p>

<p>리포트 화면 (3)</p>		<p>기자: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편리하게 포털 검색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의 관심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포털의 책임 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용자 역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상업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뉴스 ○○○입니다.</p>
---------------------------	---	--

(나)

x +
- □ x
★ 🌐 ⋮

‘온라인 **낙인찍기**나, 이용자의 알 권리나’ 논란

우리나라의 한 인터넷 포털에서는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아래 검색어와 관련한 키워드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해당 서비스를 두고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과 포털 이용자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 한쪽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거짓 정보가 특정 인물과 관련한 키워드로 제시되고 그것이 불특정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때, 2차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털의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추천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하더라도 심의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잘못된 정보가 대중에게 사실인 양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다른 한쪽에서는 해당 서비스는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의 기능을 하므로, 이용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되는 추천 검색어는 특정 정보로 이용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정보의 수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적절한 것은 추천 검색어가 아니라 검색어에 의해 발견되는 부적절한 정보이고 해당 서비스의 존폐 여부는 포털의 소관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달 초 한국 △△ 기구의 주관으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에 대한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 기자

▶ [관련 기사 2면](#)

[23004-0125]

0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앵커 멘트 화면’에서 앵커는 조사 결과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후에 안내할 정보가 다수의 수용자와 관련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군.
- ② ‘앵커 멘트 화면’에서는 앵커가 전달하는 음성 언어의 내용을 간략한 자막으로 제시하여 전달될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예측을 돕고 있군.
- ③ ‘리포트 화면 (1)’에서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할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군.
- ④ ‘리포트 화면 (2)’에서는 문제 상황을 균형 있게 진단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여 수용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⑤ ‘리포트 화면 (3)’에서 기자는 제시된 정보가 수용자의 실제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여 주의를 당부하고 있군.

[23004-0126]

02 (가)를 참고하여, (나)의 ㉠에 대해 ㉡와 ㉢가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은 웹 포털 검색의 필수 기능이 아니라 부가 기능이며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기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 ② ㉡: 웹 포털에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더라도 검색어가 부당한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 ③ ㉢: ㉠에 대한 관리 주체인 웹 포털에서 책임 있게 필터링한다면 부작용은 줄어들고 이용자의 알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 ④ ㉢: 이용자들에게 제시되는 정보의 적절성보다는 추천 검색어가 제시되는 과정의 적절성을 고민하는 것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적절한 길이므로 ㉠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 ⑤ ㉢: 검색하려는 단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알려 주는 기능은 특정한 정보로 이용자를 안내할 수 있지만 정보의 수용 여부까지 해당 포털이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23004-0127]

03 (가)의 **본래의 목적**과 (나)의 **낙인찍기**라는 표현을 통해 (가)와 (나)의 ‘기자’가 지닌 관점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본래의 목적’을 반복하여 언급한 데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이 그릇된 방식으로 유도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알 수 있었어.
- ② ‘본래의 목적’을 반복하여 언급한 데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
- ③ ‘본래의 목적’을 반복하여 언급한 데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가 상업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
- ④ ‘낙인찍기’를 표제어로 사용한 데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가 누군가에게 과도한 오명을 씌우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알 수 있었어.
- ⑤ ‘낙인찍기’를 표제어로 사용한 데서, 추천 검색어 제시 서비스를 통해 알 권리가 보장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왜곡된 선입견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알 수 있었어.

[04~05] (가)는 블로그 화면의 일부이고, (나)는 라디오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란하늘의 블로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체 공개 **오늘의 미담: 서울 △△동 '맛 1등 피자'**
작성: 2023. 12. 15. 14:06 / 수정: 2023. 12. 15. 15:19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맛 1등 피자' 누리집에 들어갔다가 [고객의 소리]에 올라온 미담 하나를 어제 보았는데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맛 1등 피자' 측에는 [고객의 소리] 게시 글을 사용하는 데 양해를 구했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의 사장님이 계시다니요, 아직 세상 살 만해요~!

맛 1등 피자 [고객의 소리]

맛 1등 피자 △△점 사장님 감사합니다 2023. 12. 10. 09:17

바사삭 |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동네 맛 1등 피자 사장님께 큰 도움을 받고, 감사를 따로 전할 방법을 찾다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과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주변에서 도와주시기에 배고프게 지내지는 않지만, 먹고 싶은 것을 늘 먹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하루는 동생이 피자가 먹고 싶다며 떼를 썼습니다. '맛 1등 피자'라는 간판 앞에 주뻗거리며 서 있는데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먹고 가라며 저희를 자리에 앉히고는 커다란 피자 한 판을 내어 주셨습니다.

다 먹고 나서 계산할 생각에 표정이 굳은 제게 사장님께서서는 피자값은 나중에 와서 계산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해서 다음 날 바로 찾아뵙고 계산하려 했지만, 한사코 돈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 보는 파스함이었는지 게시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선풍 피자를 내어 주신 사장님! 저도 성인이 되면 사장님께서 저와 동생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1,210) 댓글(32) 스크랩(206) 메시지 전송

[댓글]

비댓소리 @파란하늘 님, 제목에 동 이름이 □□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치셔야 할 것 같아요.
↳ **파란하늘** 이런, 제가 그런 큰 실수를! 수정했습니다~!

올빼미 간만에 게시 글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산위에서 @시원한숲, 이것 좀 봐! '맛 1등 피자 △△점'이면 딱 너희 동네 아니야?
↳ **시원한숲** 영, 나 저기 단골인데! 사장님 멋있으시군! [댓글 더 보기]

(나)

앵커: 한 피자 가게 본부 게시판에 고등학생이 쓴 게시 글이 누리 소통망(SNS)에서 화제입니다. 자신과 어린 동생에게 무료로 피자를 내주었던 사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 ▽▽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 기자: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는 며칠 전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쳤던 두 형제. 그중 형인 18살 A 군이 가게 본부에 감사의 게시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사장님을 만나 보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기억나십니까?

김◇◇ 씨: 네, 기억나지요. 최근에 손님이 많이 줄어서 답답한 마음에 가게 앞에 나와 있는데, 동생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형에게 투정을 부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은 동생을 달래며 한숨을 몇 번이나 쉬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박 기자: 형인 A 군이 올린 글에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는지 지금도 당시에 생생히 기억난다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을 알기에 그 고마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시 글을 보셨습니까?

김◇◇ 씨: 누리 소통망(SNS)에 게시 글을 갈무리한 화면이 많이 도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형과 동생을 다시 만나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앵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 12월 8일 정오 뉴스에서 전한 외국 유명 배우 ☆☆의 기부 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에 바로잡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12월 20일 12시 공영 방송 ○○○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정오에 다시 뵙겠습니다.

[23004-0128]

04 (가)와 (나)의 정보 생산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달리 (가)의 ‘파란하늘’은 정보 생산 과정에서 확인한 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② (가)와 달리 (나)의 ‘앵커’는 (나)가 공적인 매체로서 정보 전달을 시작하는 시각을 일정하게 정해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파란하늘’은 문자 언어를 통해, (나)의 ‘앵커’와 ‘박 기자’는 음성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④ (가)의 ‘파란하늘’과 (나)의 ‘앵커’는 모두 생산된 정보에서 잘못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수정하고 있다.
- ⑤ (가)의 ‘파란하늘’과 (나)의 ‘앵커’는 모두 불특정 다수의 정보 수용자를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23004-0129]

05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쌍방향 상호 작용이 가능한 인터넷의 등장으로 익명의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공영 방송의 텔레비전 뉴스에서 주목하는 경우가 생겼다. 개인이 생산한 처음의 정보를 직접 접한 이들이 많지 않더라도 초기 확산자 그룹을 통해 정보가 누리 소통망(SNS)으로 퍼지며 이슈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한 대중으로부터 공중의 관심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분은 희미해진다. 이때 텔레비전 뉴스는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의 사실 여부를 취재원을 통해 검증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 ① (가)의 ‘맛 1등 피자 [고객의 소리]’의 게시 글을 게시판을 통해 접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파란하늘’과 같은 초기 확산자 그룹으로 인해 (나)의 ‘기자’가 해당 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겠군.
- ② (가)의 ‘올빼미’가 게시 글에 대해 제기한 의문은 (나)의 ‘기자’가 ‘김◇◇ 씨’를 취재함으로써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산위에서’는 ‘파란하늘’이 게시한 정보의 수신자이지만, ‘시원한숲’에게는 정보의 전달자가 되겠군.
- ④ (나)의 ‘기자’가 ‘김◇◇ 씨’를 인터뷰한 것은 공인된 대중 매체를 통해 누리집의 게시 글이 누리 소통망(SNS)을 타고 더 빨리 확산되기를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이겠군.
- ⑤ (나)에서 (가)와 관련한 정보를 보도했다는 것은 공인된 대중 매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통해 공중의 관심사가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겠군.

[01~03] 다음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방송 내용	실시간 채팅 창 (현재 522명 시청 중)
<p>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의 첫날, 방송 시작과 함께 522분이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소소하지만 쓸모 있는 정보를 들려주는 방송 진행자 ○○○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p> <p>지금 띄워 드리는 자료 보이시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웹 화면을 토대로 띄워 드리는 거예요.</p> <p>[화면 1]</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 4월 5일(니목일), 7월 17일(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 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div> <p>화면이 새로 나가니, 질문들을 해 주시는군요! ‘단춧구멍’ 님,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휴무일로서 공휴일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반진고리’ 님, 일요일을 빼면 법으로 정해진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매년 약 15일입니다. 화면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공휴일을 합한 것과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 15일의 공휴일을 다 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 15일 중에 평균적으로 12일 정도만 쉬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모두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휴일로 지정된 국가적 기념일이 삼일절처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리려는 것이면 응당 날짜로 지정하는 것이 그 의미를 바르게 살릴 수 있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다 날짜로 지정한 경우는 또 흔하지 않대요. ‘피자’ 님께서 말씀한 걸 듣고 찾아보니, 미국의 노동절은 9월 첫째 주 월요일이군요. ‘피자’ 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딸기잼] 오늘은 공휴일 얘기? 재밌을 것 같아요!</p> <p>[단춧구멍] 토요일도 쉬는 날인데,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닌가요?</p> <p>[반진고리] 규정 내용이 그대로 제시되니 보기가 조금 어렵네요. ㅏ 일요일을 빼 공휴일은 합하면 며칠인가요?</p> <p>[바다구름] 광복절은 날짜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요일 지정 공휴일이 되기는 힘들겠군요.㉠</p> <p>[피자] 제가 살았던 미국의 노동절은 요일 지정 공휴일이었어요!</p>

왜 공휴일 중 며칠은 요일로 지정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날짜로만 정했기 때문에, 소중한 ‘빨간 날’이 때때로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그만큼 쉬는 날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요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요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휴식을 보장해 주는 방식인 겁니다. 2019년에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근로 시간이 두 번째로 길대요. 1년에 거의 이천 시간 가까이 일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공휴일이 하나씩 사라져 버리면 업무 능력을 유지하기가 아무래도 힘이 들겠죠.

공휴일은 우리 경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금요일이었던 2016년 5월 6일을 당시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어린이날인 5월 5일 목요일부터 5월 9일 일요일까지 4일간의 연휴가 생겼는데요, 임시 공휴일이 없이 징검다리로 어린이날만 쉬었던 그 전 해의 같은 달과 비교해서 2016년 5월의 국내 카드 승인액이 22% 정도 더 많았다고 해요. ‘열쇠고리’ 님, 정말입니다. 저도 찾아보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화면 2]

△△일보 5월 카드 승인액, 임시 공휴일 지정 영향 ‘전년 비 22.3% ↑’ (2016. 06. ××.)	□□신문 임시 공휴일 효과 톡톡, 5월 카드 승인액 전년 동월 대비 큰 폭 증가 (2016. 06. ××.)
--	---

정부에서는 2016년에 일부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뚜렷하게 결정되는 바가 없다가, 2021년에 대체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23년에도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될 내용까지 제가 간단히 표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3]

개정 전	개정 후
① ‘설날 연휴 중 하루’가 일요일 ② ‘추석 연휴 중 하루’가 일요일 ③ ‘어린이날’이 토/일요일 → ①~③의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기존의 대체 공휴일(①~③)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2021년 개정) +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토/일요일(2023년 개정 예정) →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이전에는 설날과 추석 당일이 일요일인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

라디오맨 어린이날은 특별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날짜로 정해야 하는 공휴일이 아니니 굳이 날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①

딸기잼 근로 시간이 너무 기네요. 말씀대로 휴일을 더 안정적으로 쉴 수 있다면…… 일할 힘도 더 생길 것 같아요.

열쇠고리 카드 승인액이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요? 놀라워라!

꽃서랍 **열쇠고리** 님, 저도 저 때 어린 나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효과가 정말 컸나 봐요!

딸기잼 저 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모처럼 휴일이 생겨서 초등학교 다니던 동생이랑 놀이공원을 다녀왔던 기억이 나요! ㅋㅋ

열쇠고리 **딸기잼** 님은 저 때 카드 승인액의 증가에 한몫하신 분이군요! ㅎㅎ

동글이 만약 개정 후 규정이 2016년 5월 6일에 적용됐다면 그 날은 임시 공휴일이 아니라 대체 공휴일이 되어 쉬었겠군요. …②

요일인 경우에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삼았는데요, 개정을 통해 대체 공휴일이 꽤 확대되죠? 요일을 지정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대체 공휴일의 확대로 더 많은 공휴일을 더 안정적으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지금, 올해 1월 달력 보시면 어떤 날을 왜 쉬게 되는지 아시겠죠?

[화면 4]

2023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연휴
29 설날	30 연휴	31 연휴				

물병자리 1월 달력을 보니 바뀐 법령으로도 2023년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법령에 규정된 15일의 공휴일을 다 쉬진 못하겠어요. ……………㉔

채소좋아 달력의 1월 29일은 법령의 개정과 무관하게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날이겠네요. ……………㉕

[23004-0130]

01 위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채팅 참여자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해 대답하고 있군.
- ② 진행자는 채팅 참여자를 통해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받고 있군.
- ③ 진행자는 방송 도중에 새로 참여한 시청자를 고려하여 앞서 다른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④ 채팅 참여자는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진행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군.
- ⑤ 채팅 참여자 중 일부는 진행자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방송 내용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고 있군.

[23004-0131]

02 위 실시간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가 방송을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의 내용 중 실제로 방송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근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야지.
- ②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확인하여 균형 있게 제시해야지.
- ③ 지난 5년간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중 실제 쉬는 날이 며칠이었는지를 직접 셈해 본 후 평균을 알려 주어야지.
- ④ 2016년에 임시 공휴일로 인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된 사실에 대한 근거로 당시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여 주어야지.
- ⑤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대해 설명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해당 규정의 본문을 화면에 띄워야지.

[23004-0132]

03 ㉠~㉤ 중 위 실시간 인터넷 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04~05] 다음은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앵커: 지금 10월은 온 세상이 울긋불긋 오색 빛깔로 물드는 단풍철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산행 많이들 하시죠? 보통 봄철이 산악 사고가 가장 많은 때라고 생각하시지만 연중 산악 사고가 가장 많은 때는 오히려 가을철입니다. ○○○ 기사가 안전한 가을 산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장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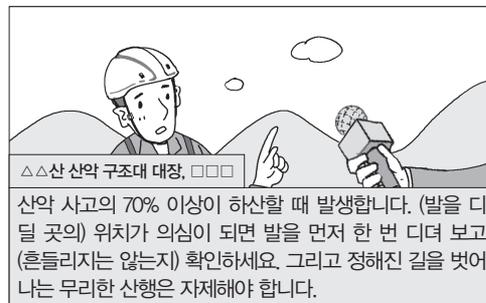
기자: 바로 어제 산악 구조대가 헬기를 이용해 산에서 내려오다 다친 등산객을 구조하는 영상입니다. 이 등산객은 등산로가 아닌 길로 다니다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달 들어 전국의 산에 가을맞이 등산객이 몰리면서 산악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월별 통계를 봐도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산악 사고 중 10월에 발생한 산악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장면 2]

기자: 유형별로는 발을 헛디디는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산 산악 구조대 대장 □□□ 님으로부터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을 들어 보았습니다.

△△산 산악 구조대 대장: 산악 사고의 70% 이상이 하산할 때 발생합니다. 위치가 의심이 되면 발을 먼저 한 번 디디고 보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무리한 산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장면 3]

기자: 구조 당국은 산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119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근처의 산악 위치 표지판을 유심히 봐 두었다가 해당 정보를 알려 주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 뉴스 ○○○입니다.



[장면 4]

[23004-0133]

04 위 뉴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 중 실제 뉴스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보도를 시작할 때 자막과 사진을 통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등산 안전에 대한 내용임을 시청자가 예상하며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② 출처가 명시된 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달리 봄철보다 가을철에 산악 사고 발생 건수가 많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③ 보도 내용과 관련한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시청자가 등산 안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④ 전문가 인터뷰에서 맥락상 생략되어 있는 내용은 자막으로 추가하여 시청자가 보도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⑤ 보도를 마칠 때 이미 전달한 정보를 요약해 제시함으로써 등산 안전을 위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을 시청자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23004-0134]

05 <보기>를 참고하여 위 뉴스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뉴스의 생산자는 정보 생산 과정에서 특정 정보가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비롯된 것인지, 지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수용자와 밀접한지 등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택, 가공하고 배치 순서를 조정한다. 텔레비전 뉴스의 생산 과정에서는 앵커와 기자의 발화에 해당하는 음성 언어뿐만 아니라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영상, 자막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해 의미가 구성되고 강조된다. 이를 통해 텔레비전 뉴스의 수용자는 정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 도움을 얻고,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뉴스의 수용자는 뉴스의 생산자가 활용한 다양한 양식 및 뉴스 생산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뉴스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을철에 등산객이 많다는 사실을 수용자가 자신과 밀접한 정보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앵커는 수용자의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건넸다.
- ② 안전한 가을 산행 방법에 대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필요함을 부각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등산객이 구조되는 영상을 앵커의 발화에 바로 이어서 배치하였다.
- ③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달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그래프에서 10월에 해당하는 부분의 색깔을 다른 달보다 더 짙게 표시하였다.
- ④ 등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수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문자, 음성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해 안전한 등산을 위한 여러 숙지 사항을 전달하였다.
- ⑤ 등산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수용자가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산악 위치 표지판을 확대하여 나타내고 산악 위치 표지판 속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01~03] 다음은 텔레비전 생방송 인터뷰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음악이 들리면서 화면에 식당 문이 열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카메라가 그 안을 따라 들어가면 대표가 식사하는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손님들: (대표가 다가가자) 여기 김치찌개 3인분하고 라면 사리 2개 추가해 주세요. 밥도 있나요?

대표: 네, 밥은 보시다시피 무한 리필입니다. 김치찌개 3인분에 라면 사리 2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스튜디오로 바뀌어 카메라가 진행자와 대표를 함께 비추며, 진행자 이름, 대표의 이름과 식당명이 자막으로 나타난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오늘 ‘나들이’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보신 밥집을 운영하는 청년 복지 사업단 대표 ○○○ 씨입니다. (대표에게)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이 운영하는 밥집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대표: 안녕하세요. 이 ‘청년 밥집’은 저희 청년 복지 사업단이 청년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화면과 같이 (메뉴판 사진이 화면에 점점 크게 나타남.) 메뉴는 김치찌개 한 종류로 단돈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밥은 무한 리필이고 라면, 어묵 등의 사리를 추가할 수 있고요, 김치, 콩나물, 김 등의 반찬도 있습니다.

진행자: 가격이 정말 저렴한데요, 어떻게 해서 청년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대표: 몇 년 전 한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하다가 고시원에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거든요. 특히 자신의 어려움을 남들과 나누지 못하고 고립되어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복지 사업단에서 종종 봤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곳이 청년들의 쉼터이자 만남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단에 집처럼 따뜻한 식당의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정말 훌륭한 취지로 식당 운영을 제안하셨네요. 그런데 무료로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대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면 오히려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 이용하기를 꺼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 편히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가격을 정했습니다.

진행자: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은 어디에서 조달하나요?

대표: 복지 사업단에서 제공한 기본 예산은 보증금과 주방, 식당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했고요,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 등은 식당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식당 옥상에 청년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시려면 재정적으로 힘드시겠어요.

대표: 지난해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그나마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돈을 기부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행입니다. 고마운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그러고 보니 청년을 위한 밥집인데 손님 연령대의 제한

은 없는 것 같네요. 주로 어떤 손님들이 오시나요?

대표: 네. 처음에는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특정 연령층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청년이면 모두 청년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도록 했는데 대체로 청년들이 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생이나 직장인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께서는 방문 후에 저희에게 돈이나 쌀, 배추 등을 보내 주시기도 하고, 청년들은 설거지 등의 자원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자: 훈훈한 이야기네요. 잠깐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볼게요. 예고편을 보신 뒤에 옥상에 만들고 계시는 만남의 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카메라가 식당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 여기저기와 전망을 보여 준다.)

대표: 이곳은 □□동 3층 건물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나지막한 주택가가 보여서 옥상 전망이 참 좋아요. 옥상의 절반은 건물이랑 연결된 실내 공간인데, 현재 여기에는 기증품으로 탁자도 마련하고 읽을 책도 분야별로 모아 두고 있습니다. 볼펜이나 공책과 같은 학용품도 기증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화면이 다시 스튜디오를 비춘다.)

진행자: 보기에는 편안한 도서관 겸 카페 같은데요, 식사하러 오는 손님만 이용하는 곳인가요?

대표: 네, 식사하고 커피를 한잔하고 가시도록 만들었는데요, 식사를 하지 않는 청년들도 여기에서 분야별로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식당에 오셔서 희망하는 모임과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끼리 연결해 옥상에서 소모임을 갖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 개 정도 소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모임 관련 온라인 모임 방도 구상하고 있어요.

진행자: 대표님께서 청년들을 위해 모임을 추진해 주시는군요. 주로 어떤 모임이 만들어졌나요?

대표: 취업 준비하는 모임이랑 창업 준비생 모임이 있고요, 비정규직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노동 관련 문제나 노동 인권 침해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와 정보를 교환할지 모르더라고요.

진행자: 옥상 모임이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대표: 저도 그랬는데 청년 시기는 누구나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혼자 남겨진 느낌이나 나만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니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끼니 거르지 말고,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위로를 받으러 오세요.

진행자: 네, 청년을 위한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23004-0135]

01 다음은 위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출자가 계획한 내용이다. 생방송 인터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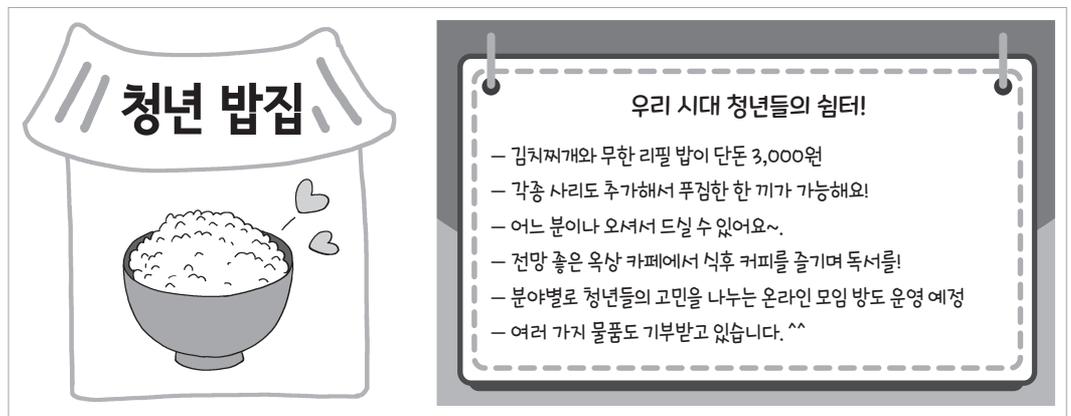
- ① 방송 첫 부분에 흥미를 유발하도록 식당에서 대표가 손님을 응대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 주어야겠어.
- 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는 중에 식당의 메뉴판을 자료 화면으로 클로즈업해 보여 주어야겠어.
- ③ 시청자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년들의 고민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자료 화면을 제시해야겠어.
- ④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당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식당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질문해야겠어.
- ⑤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야겠어.

[23004-0136]

02 <보기>는 위 인터뷰를 토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 밥집’의 홍보 포스터 제작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논의한 내용 중 포스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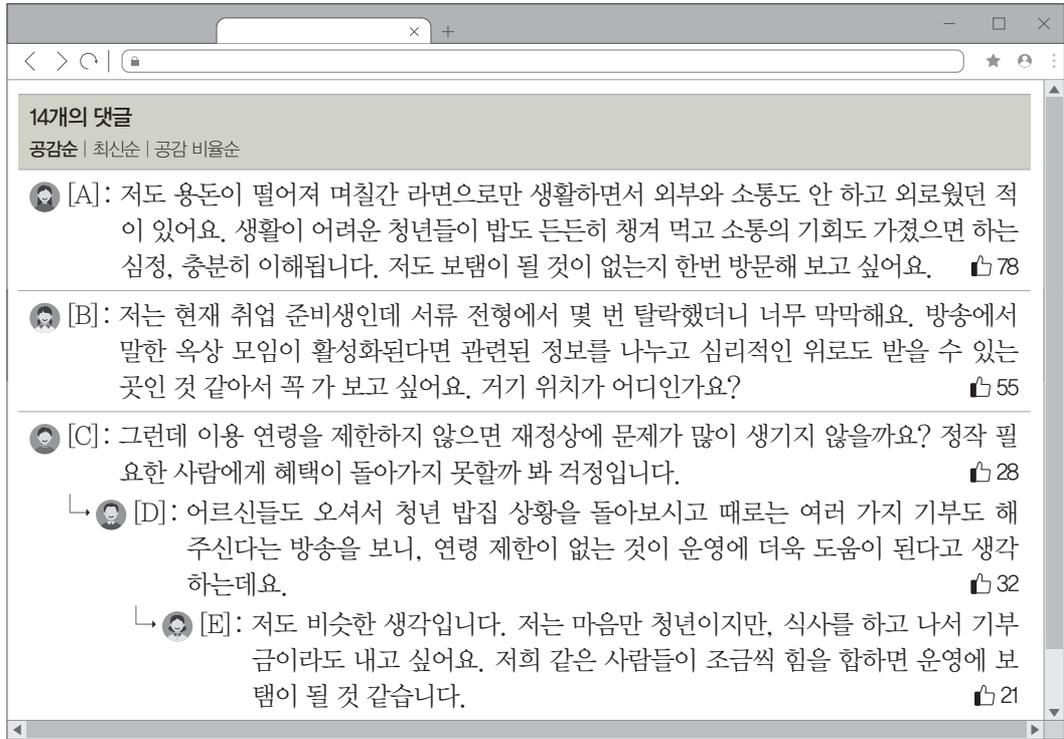
- 음식에 손님을 향한 정감이 담겨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을 추가해야겠어. ……………㉠
- 공간의 이미지를 보여 주면서 이러한 공간을 만든 취지를 문자로 제시해야겠어. ……………㉡
- 인터뷰에서 언급한 모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도 문자로 안내해야겠어. ……………㉢
- 인터뷰에 등장한, 식당 운영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홍보 내용으로 추가해야겠어. ……………㉣
- 식당의 특징을 알 수 있도록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그림 옆에 문자로 제시해야겠어.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23004-0137]

03 다음은 위 텔레비전 프로그램 누리집의 댓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밥집을 만든 취지에 대해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텔레비전에서 언급된 모임에 자신도 직접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는 실제 혜택이 필요한 대상을 고려하며 청년 밥집의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는 텔레비전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C]가 가진 우려를 해소하는 측면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⑤ [E]는 기부 활동의 참여 의사를 밝히며 기존 운영 방식의 개선을 주장하는 [D]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덧글]

방문자1: 저도 집을 정리한 다음 가방, 신발 등을 온라인 중고 시장에 내놓았는데, 은근히 수입이 쏠쏠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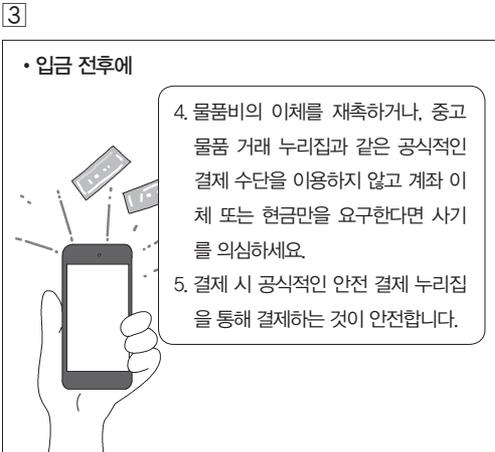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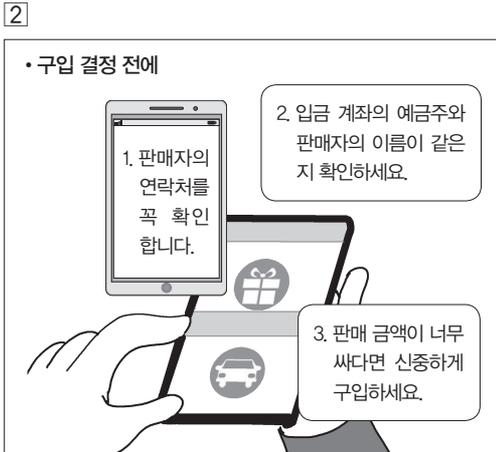
방문자2: 저는 직접 대면해서 물품을 전달했는데, 상대방이 도착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사기를 당하나 걱정했어요. 많이 기다렸지만 다행히 거래가 잘 이루어졌어요. ㅎㅎ

방문자3: 그런데 거래하면 안 되는 물품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 공정 거래 위원회는 온라인 중고 거래에 대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 조사를…… - △△ 신문

▶ [카드 뉴스] 온라인 중고 거래 시 유의할 점 - ◇◇ 신문

(나)



5

• 물품 수령 전후에

6. 거래 물품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본인이 구입하고자 한 물품인지 확인하세요.
7. 물품 수령 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의 AS 센터 등을 통해 물품 상태를 확인하세요.



6



8. 이 중의 어떤 과정에서든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용한 누리집이나 경찰청 사이버캅에 도움을 청하세요.

[23004-0138]

0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정보 수용자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정보를 제시할 때 문자 언어와 함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나)는 (가)보다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이퍼텍스트의 링크를 통해 연관된 자료에 대한 읽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수용자와 정보 생산자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3004-0139]

05 (가), (나)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전문 기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규모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군.
- ② (나)는 온라인 중고 거래 시 유의할 점에 대해 피해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 ③ (가)는 (나)와 달리 정보의 생산자가 입력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나)는 (가)에서 언급한 중고 거래 누리집의 유형에 따른 피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군.
- ⑤ (가)는 온라인 중고 거래가 증가한 이유를, (나)는 온라인 중고 거래 시 유의할 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01~03] (가)는 학생들이 인터넷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제작한 스토리보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원영 ▶ 다들 들어왔지? 늦어서 미안! 지난번에 디지털 데이터 쓰레기랑 전자 쓰레기 얘기하다가 끝났지?

상철 ▶ 그래. 오늘은 꼭 환경 지키미 행사에서 우리 모둠이 발표할 영상 주제랑 영상에 담을 내용까지 다 정하자.

수현 ▶ 디지털 데이터 쓰레기는 온라인상에 저장하고 지우지 않은 데이터라서 데이터 용량이나 전력량을 다루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되고, 일반인 실천 사항을 다루면 너무 간략하게 될 것 같더라. 이것 저것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걸 찾았거든. 지금 보낼 테니까 봐 봐. (www.****.com 링크를 공유한다.) 지구 전체에 전자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서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총 21%나 증가했다는 기사. 이런 내용으로 전 지구적인 전자 쓰레기 문제를 다루면 어때?

은정 ▶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 디지털 데이터 쓰레기는 환경이랑 관련지으면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 강조하게 될 것 같은데, 다른 모둠 발표 내용도 비슷한 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전자 쓰레기 문제를 다뤄 보자고 말하려고 했어. (www.◇◇◇.com 링크를 공유한다.)

원영 ▶ 가난한 나라에 기증품으로 위장해서 전자 쓰레기를 보내는 내용이구나.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 그런데 이번 행사 주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생활이랑 어떻게 관련시키지?

상철 ▶ 그러게. 소재는 좋은데, 우리 학생들이 직접 외국에 전자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니까. 이 내용도 포함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제시하는 게 좋을 듯한데.

은정 ▶ 한번 관련지어 보자. 저 안에 우리가 쓰던 휴대 전화도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니까. 일단 수현이가 찾은 전자 쓰레기 증가율에 대한 기사를 제시해서 경각심을 주면 어때?

원영 ▶ 좋아. 그리고 은정이가 찾은 기사 아래 있는 기사를 클릭했더니 전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이 나와 있어. (www.□□875.com 링크를 공유한다.) 이 내용들도 뒷부분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수현 ▶ 항목별로 잘 나와 있네. 이 기사를 참고해서 실천 방안을 제시하자. 스토리보드는 내가 만들게.

상철 ▶ 오우, 감사! 방금 나도 검색했더니 배출되는 유해 물질 종류를 정리한 파일이 있는데 그 종류가 엄청나네. (대화방에 파일을 올린다.) 이 자료로 전자 쓰레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시하면 좋겠어. 지구가 쓰레기를 안고 있는 그림 어때? 내가 그려 볼게. 수현이한테 먼저 보내면 되지?

은정 ▶ 그림까지 그린다니 대단해! 이걸 보면서 떠올랐는데 전자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 자료처럼 소각할 때랑 매립할 때로 나눠서 보여 주면 좋겠어.

수현 ▶ 그래. 두 상황이 차이가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위험성 제시할 때 효과음 어때? 지난번에 혜진이가 발표할 때 심각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폭발음이 들리니까 다들 집중했잖아.

원영 ▶ 효과음, 괜찮겠다. 집중도 유도하고 경각심도 갖게 하고. (소리 파일 두 개를 보내며) 이 두 가지 소리 중에서 골라 봐. 위험성이랑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효과음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하자.

상철 ▶ 나는 두 번째 소리가 마음에 들어.

	화면 설명	화면	내레이션 및 배경 음악
#4	매립된 전자 쓰레기를 가진 지구 옆에 ‘위험’ 표시된 말풍선이 있음. 내레이션이 끝나면 충격을 알리는 효과음을 제시함.		전자 쓰레기를 매립하면 납이나 수은, 카드뮴 등이 배출되어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 발생합니다. (충격 효과음)
#5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는 문장이 순차적으로 나타남.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새로 출시되는 기기가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고 구입합니다. 둘째,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씁시다. 셋째, 제품을 교체할 때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합니다. 넷째, 기업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합니다.

[23004-0140]

01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에서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여 주제 선정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에서는 친구가 제시한 자료의 연관 기사를 바탕으로 발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에서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에 대한 ‘수현’의 계획을 변경하여 제안하고 있다.
- ④ ㉤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에서는 발표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3004-0141]

02

〈보기〉는 (나)를 제작하며 수집한 인터넷 신문 기사이다. 〈보기〉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전자 쓰레기의 역습

○○○ 기자

입력: 202×. 11. 20. 13:30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 대학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자 쓰레기는 4,470만 톤(t)이고, 1인당 배출량도 6.1kg이나 된다. 보고서는 2021년 이후에는 1인당 전자 쓰레기 발생량이 6.8kg 정도까지 증가하고, 총 전자 쓰레기 발생량은 5,600만여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 쓰레기에는 에폭시 수지, 섬유 유리, 폴리염화 바이페닐(PCB), 폴리염화 비닐(PVC), 열경화성 플라스틱, 납, 주석, 구리, 알루미늄을 비롯해 카드뮴, 수은, 탈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전자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유독성 화학 물질이 배출된다. 문제는 전자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회수나 재활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아서 전 세계적으로 20%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들은 전자 기기를 자주 교체하지만 저가에 생산되는 많은 제품들의 수리나 재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각국 정부는 전자 쓰레기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 신문

- ① (나)는 〈보기〉와 달리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전문가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② (나)는 〈보기〉와 달리 정보 생산자가 장면별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대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보기〉는 공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보기〉는 정보 생산자가 특정한 대상을 예로 들어 대상의 이동 경로에 따라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나)는 매체의 복합 양식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보기〉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3004-0142]

03 다음은 인터넷 대화방에서 (나)를 제작하면서 논의한 내용이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는 지구가 여러 가지 전자 쓰레기를 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시하자.
- ② #2에는 연도별로 전자 쓰레기 배출량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제시하는 게 좋겠어.
- ③ #3과 #4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명칭을 제시해 주자.
- ④ #3과 #4에서 실제 영상을 재생할 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내레이션 뒤에 음향을 삽입하자.
- ⑤ #5에서 개인적 차원끼리, 사회적 차원끼리 묶어서 전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04~05] (가)는 청소년 대상 블로그에 올린 교육 영상이고, (나)는 같은 블로그에 올린 공익 광고 영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남녀 진행자: 청소년 여러분! 올해는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질 사람들을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이 선거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만 18세 이상이 되는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10대 청소년 여러분 중에도 이 역사적인 선거에 참여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친구들이 있으시죠? 오늘은 첫 선거 참여를 앞둔 여러분들을 위해 왜 투표를 하고, 어떻게 선거에 참여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화면이 바뀌어 리포터가 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며 방송을 진행함.)

리포터: 여러분, 유권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학생 1: 유권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학생 2: 유권자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리포터: 네, 유권자는 선거를 할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거권을 갖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연령입니다. 올해부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권자가 됩니다.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투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이유를 알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에 대해 토론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남녀 진행자가 등장하는 화면)

남자 진행자: 그럼, 투표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에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을 곱하고 유권자 수로 나누면 약 4,70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4,700만 원을 사용할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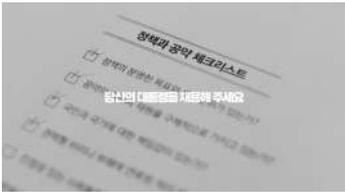
여자 진행자: 투표의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들의 정책에 따라 대학 입시, 청소년 보호 정책 등이 바뀌고, 그 영향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투표에서 한 표가 어떤 중요

성을 지닐까요? ‘나 한 사람쯤은 안 뽑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에서 공식 언어를 결정할 때 영어와 독일어를 공용하는 안건과 영어만을 사용하는 안건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단 한 표 차로 영어만 미국의 공식 언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느 지방 보궐 선거에서 군수를 뽑는데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일이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가 결정적인 한 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 진행자: (변갈아 말한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한 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가세요. 유의점도 있으니 알아보고 가세요. 우리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 [나도 유권자] 앗! 저도 드디어 유권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엄청 떨리네요.
- ↳ [내 한 표] 투표하고 인증샷을 올려도 될까요? 어떤 인증샷은 안 된다고 하던데…….
- ↳ [뗏글러] 저는 그때까지 생일이 돌아오지 않으니 투표를 할 수 없겠네요.

(나)

영상	화면 설명	내레이션
	<p>모자를 쓴 남자, 짧은 머리의 남자, 운동하는 여자, 요리사, 육아하는 남자와 그 아이, 여자 노인이 변갈아 나오며 서류를 검토하거나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p>	<p>짧은 머리의 남자: 자신 있죠? 네? 운동하는 여자: 국민의 건강을. 요리사: 서민 경제를. 운동하는 여자: 책임질 수 있나요? 육아하는 남자: 육아에 자신 있나요? 아이: 자신 있나요? 여자 노인: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중략)</p>
	<p>앞의 화면에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 면접 심사를 하는 장면이 보이며, 내레이션과 함께 내레이션의 내용이 자막으로 나타남.</p>	<p>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면접관이 되어</p>
	<p>화면에 면접용 체크리스트가 보이고, 내레이션과 함께 내레이션의 내용이 자막으로 나타남.</p>	<p>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 주세요.</p>

[23004-0143]

04 (가)와 (나)에 사용된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 구성의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수용자들이 제공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는 점에서,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정보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특정 연령층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나)는 수용자가 권리 행사를 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용자가 행동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정보의 양과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는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들 각각의 후보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나)에 비해 제시된 정보에 대한 수용자들의 가치 판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④ • (나)는 여러 차례 유사한 형태의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강조하려는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며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내용을 제시한 (가)에 비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23004-0144]

05 <보기>는 (가)와 (나)를 모두 접한 학생들의 반응이다.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학생 1: 선거가 진짜 중요하구나. 예전에 누가 선거에 대해 말하면 어른들의 일이라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어. 이번에 선거권은 없지만, 각 후보가 제시한 교육과 문화 분야 정책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 내용을 더 살펴보고 모의 선거에 참여해 보기로 결정했어.

학생 2: 수업 시간에 참정권은 국민 주권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국민 각자의 관심과 참여가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어.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던 복지 정책에 대해 평가하려면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했어.

학생 3: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니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번에 투표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 그런데 투표할 때 유의점이 뭘까? 나는 선거가 처음이니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 관련 영상 교육 자료를 찾아보고 투표장에 가야겠어.

- ① ‘학생 1’은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소홀히 했던 측면에 대해 돌아보고, (가)와 (나)에서 강조하는 선거의 중요성과 관련지어 선거와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학생 2’는 (가)와 (나)에서 제시한 내용과 관련지어 자신이 관심 있는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학생 3’은 (가)의 뒷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매체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가)와 (나)에서 언급한 정책 판단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가)와 (나)를 접하며 자신이 예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관련지어 투표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깨달은 점을 드러내고 있다.

[01~03] (가)는 모둠 활동을 통해 제작한 동영상 스토리보드이고, (나)는 온라인 서명 운동 누리집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장면 번호	화면 설명	배경 음악 및 음향 효과	자막
#1	우리 지역 멧꿩이 서식지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영상	밝은 느낌의 배경 음악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지역 멧꿩이 서식지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입니다.
			멧꿩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우리 지역 멧꿩이 서식지는 10년 전에 비해 80%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멧꿩이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하는 걸까요?
#2	복원에 성공한 산양의 모습		이 영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사업에 따라 복원에 성공한 산양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3	산양의 분변 발아율 관련 그래프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산양의 분변에서 나온 식물의 종자는 야생의 것보다 발아율이 네 배나 높다고 합니다.
			산양 복원 성공으로 다양한 식물군의 자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		이처럼 우리 사회는 산양, 반달가슴곰, 여우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복원하여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멧꿩이의 모습을 그린 그림		어두운 느낌의 배경 음악
#6	지역 생태 연구원 인터뷰 영상	“멧꿩이는 지역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알려 주는 환경 지표종으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7	멧꿩이 서식지 보전 온라인 서명 운동과 관련된 누리집 화면	밝은 느낌의 배경 음악	이 화면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 멧꿩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서명 운동 누리집의 모습입니다. 서식지 보전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8	영상에 대한 공감 권유 및 자유로운 배포 허용에 대한 안내		우리 지역에서 멧꿩이 울음소리를 다시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면 ‘공감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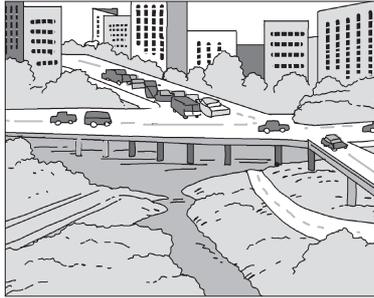
(나)

'○○동 맹꽁이네 집'을 보호해 주세요.

- 맹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 ○○동 맹꽁이 서식지



현재 ○○동 맹꽁이 서식지

Q. 맹꽁이를 왜 보호해야 할까요?

A. 맹꽁이는 양서류로서 육상 생태계와 수 생태계를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맹꽁이는 건강한 생태계의 필수 조건인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지표종으로,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 기관은 '○○동 맹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서명 운동'을 위해 서명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위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성명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연락처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23004-0145]

01 (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계획 중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지역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되기 전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삽입하여 맹꽁이가 멸종 위기 상황임을 알려야겠어.
-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사업에 의해 복원에 성공한 동물의 모습을 제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안내해야겠어.
- ③ 산양의 분변에서 나온 식물 종자의 발아율과 관련된 그래프를 제공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의 사례를 제시해야겠어.
- ④ 지역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제시하여 맹꽁이 서식지를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전달해야겠어.
- ⑤ 온라인 서명 운동을 위한 누리집 화면을 제시하여 맹꽁이 서식지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야겠어.

[23004-0146]

02 (가)를 바탕으로 동영상 제작할 때, 모듬원의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파괴된 현재의 모습을 제시할 때는 밝은 느낌보다는 어두운 느낌의 배경 음악으로 변경하는 건 어떨까?
- ② #2에서 복원에 성공한 산양의 모습을 제시할 때는 자막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역동적인 산양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하는 건 어떨까?
- ③ #5에서 맹꽁이의 모습을 그린 그림은 서식지를 잃고 멸종 위기에 처해 슬퍼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
- ④ #7에서 자막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음향 효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산양, 반달가슴곰, 여우의 울음소리를 추가 삽입하는 건 어떨까?
- ⑤ #8의 자막에 영상 배포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건 어떨까?

[23004-0147]

0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출처가 명확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② (가)와 달리 (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매체 수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04~05] (가)는 학생회 학생들이 온라인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들 잘 지냈어? 지난번에 논의한 대로 학생들에게 행사 뒷정리에 함께 참여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생각해 봤어? 정음

준수 매달 발행되는 ㉠ 학교 소식지 사설란에 글을 쓰는 건 어때?

소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에는 사실도 좋지만,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갖는 형식을 활용하면 어떨까? 게다가 학교 소식지의 구독자도 점차 줄고 있어서, 메시지를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워 보여.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정음

소연 ㉡ 학생회 누리집 웹툰은 어때? 사설은 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웹툰은 글보다는 그림 위주라서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 것 같아. 게다가 학생회 누리집 웹툰은 소식지 사설에 비해 다수의 학생들이 구독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해 보여.

준수 좋은 생각이야. 소식지는 종이로 발간되어서 학생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누리집 웹툰은 댓글이나 조회 수를 통해 학생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야. 그런데 그림 위주로 표현하다 보면 자칫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소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직접 웹툰에 삽입하면 해결할 수 있어.

좋아. 학생회 누리집 웹툰으로 정하자. 마침 웹툰 담당자가 소재를 찾고 있었거든. 혹시 웹툰에 대한 요청 사항이 있다면 말해 줘. 정음

준수 웹툰 배경은 얼마 전에 끝난 제10회 동아리 축제로 하고, 행사 뒷정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드러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 행사의 뒷정리에는 소수의 학생만 참여해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 행사 뒷정리에 소요된 시간도 표현해 주면 어떨까?

소연 동의해. '협동과 실천'이라는 이번 행사의 주제와 상반된 행동을 드러내 반성을 유도해 보는 건 어때? 서로 대비되는 장면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웹툰 담당자에게 전달할게. 정음

(나)



[23004-0148]

04 (가)의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 ㉡에 대해 판단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 비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형식이겠군.
- ② ㉠은 ㉡와 달리 수용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는 ㉠에 비해 많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유리하겠군.
- ④ ㉡는 ㉠에 비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에 용이하겠군.
- ⑤ ㉠, ㉡ 모두 글을 기반으로 그림을 덧붙이는 형식이겠군.

[23004-0149]

05 (가)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웹툰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행사 뒷정리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대비되도록 표현해야겠어.
- ② 제10회 동아리 축제에 사용된 플래카드를 제시하여 웹툰의 배경을 드러내야겠어.
- ③ 시작할 때 깨끗했던 행사장의 모습과 끝난 후 지저분해진 모습이 대비되도록 표현해야겠어.
- ④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웹툰을 마무리해야겠어.
- ⑤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여 행사를 즐긴 시간보다 행사 뒷정리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음을 강조해야겠어.

[01~03] (가)는 보도 자료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모둠 학생들이 발표를 위해 제작한 슬라이드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부	담당자: □□□	보도 일시: 10. ××. (금) 16:00 이후 보도 가능

한글날 맞아 고유어 지명 분석 결과 발표
- 가장 긴 우리말 지명은? ... 9자 고유어 '옥낭각씨베짜는바위' -

□ 국토지리정보원은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고시 지명* 약 10만 개를 분석한 결과(2020년 기준)를 발표했다.
* 고시 지명: 공간정보관리법 제외조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명.

○ 우리나라의 지명은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 이 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고유어 지명은 11,771개, 한자어 지명은 45,961개, 혼합어 지명은 17,657개로 나타났다.

○ 고유어 지명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새로 마을이 생겼다.”라는 의미의 ‘새터’이며 ‘새터’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을 비롯해 전국에 273개가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절골(142개)’, ‘새말(110개)’, ‘안골(96개)’, ‘새마을(89개)’, ‘큰골(68개)’, ‘뒷골(66개)’, ‘벌말(60개)’, ‘안말(58개)’, ‘골말(53개)’ 등이 있다.

○ 한자어 지명 중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의 ‘신촌(新村)’이 263개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서 ‘신기(新基, 192개)’, ‘평촌(坪村, 138개)’, ‘송정(松亭, 126개)’, ‘내동(內洞, 119개)’ 등이 있다.

○ 혼합어 지명 중 별이 잘 드는 마을이라는 뜻의 ‘양지말(陽地말)’이 97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점말(店말)’과 ‘장터(場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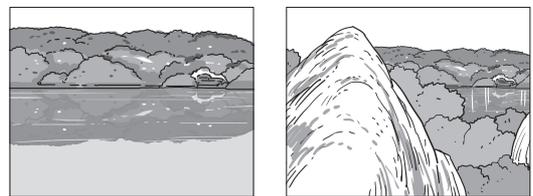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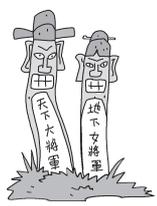
○ 가장 긴 우리말 지명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9자로 이루어진 고유어 ‘옥낭각씨베짜는바위’라고 밝혔다.

□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지명도 많이 있으며, 최근에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고유어 지명 대신 외래어 지명을 사용하는 등 지명을 상품화하고 상업화하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로, 이정표 또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장승’과 관련된 지명은 전국에 39곳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생활과 삶이 지명에 그대로 녹아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담당 부서 ○○○(☎ 000-000-00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

<p>[한글날 기념, 흥미로운 우리말 이야기] 1. 고유어 지명의 비율</p>  <p>전국의 고시된 지명은 약 10만 개인데, 그중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고유어 지명은 11,771개이다. 비율로는 12%에 가까운 수치이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보도 자료</p>	<p>[한글날 기념, 흥미로운 우리말 이야기] 2. 많이 쓰이는 고유어 지명</p>  <table border="1"> <caption>고유어 지명 빈도수(상위 10개)</caption> <thead> <tr> <th>지명</th> <th>빈도수</th> </tr> </thead> <tbody> <tr><td>새터</td><td>273개</td></tr> <tr><td>절골</td><td>142개</td></tr> <tr><td>새말</td><td>110개</td></tr> <tr><td>안골</td><td>96개</td></tr> <tr><td>새마을</td><td>89개</td></tr> <tr><td>큰골</td><td>68개</td></tr> <tr><td>윗골</td><td>66개</td></tr> <tr><td>별말</td><td>60개</td></tr> <tr><td>안말</td><td>58개</td></tr> <tr><td>골말</td><td>53개</td></tr> </tbody> </table> <p>고유어 지명 중 현재 '새터'라는 지명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보도 자료</p>	지명	빈도수	새터	273개	절골	142개	새말	110개	안골	96개	새마을	89개	큰골	68개	윗골	66개	별말	60개	안말	58개	골말	53개
지명	빈도수																						
새터	273개																						
절골	142개																						
새말	110개																						
안골	96개																						
새마을	89개																						
큰골	68개																						
윗골	66개																						
별말	60개																						
안말	58개																						
골말	53개																						
<p>[한글날 기념, 흥미로운 우리말 이야기] 3. 가장 긴 고유어 지명</p> <p>가장 긴 고유어 지명은 '옥낭각씨베짜는바위'이다. '바위산이 베를 짤 수 있을 정도로 넓어서 이 바위 속에서 옥낭이라는 각시가 베를 짜다가 하늘로 쫓겨 올라갔다.'라는 전설이 전해진다.</p>  <p>출처: 온라인 △△ 백과사전</p>	<p>[한글날 기념, 흥미로운 우리말 이야기] 4.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고유어 지명</p> <p>'장승'은 순우리말이다. '장승'과 관련된 지명은 '장승+거리', '장승+고개', '장승+백이' 등의 형식으로 전국에 39곳이 있다.</p>  <p>출처: 국토지리정보원 보도 자료</p>																						

[23004-0150]

01 (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목을 통해 전체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② 제공하는 정보를 배포할 수 있는 일시를 지정해 주고 있군.
- ③ 전국의 고시 지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보를 열거하고 있군.
- ④ 제공된 정보가 사실인지 의견인지에 따라 글자의 굵기를 달리하여 표시하고 있군.
- ⑤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자료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군.

[23004-0151]

02 (가)를 바탕으로 (나)를 제작하기 위한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고유어 지명의 수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비율로도 표시하여 제시해야겠어.
- ② 많이 사용되는 고유어 지명과 관련된 수치를 도표로 시각화해야겠어.
- ③ 가장 긴 고유어 지명에 대해서는 보충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여 제공해야겠어.
- ④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고유어 지명으로 보도 자료에서 제시한 지명의 사례를 활용해야겠어.
- ⑤ 인용한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매체 제작 윤리를 준수해야겠어.

[23004-0152]

03 다음은 모둠 회의를 통해 결정한 (나)의 보완 방향이다. 이 보완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수정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체 제목은 발표의 제재가 잘 드러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소제목과 슬라이드 내용이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자. 그리고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여, 소제목을 ‘전국 고시 지명’으로 수정한다.
- ②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소제목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새터’라는 지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추가한다.
- ③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각씨’가 표준어 ‘각시’의 지역어임을 안내한다.
- ④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소제목을 고려하여, ‘흥미로운 유래를 가진’ 한자어 지명의 사례를 추가한다.
- ⑤ 발표의 제재를 고려하여, 전체 제목을 ‘우리나라 한자어, 고유어, 혼합어 지명 이야기’로 수정한다.

[04~05] (가)는 방송 뉴스 보도이고, (나)는 보도에서 제시한 블로그 게시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최근 ‘뒷광고’라는 용어가 화제입니다. 강 기자, ‘뒷광고’가 대체 무엇인가요?

강 기자: 네, ‘뒷광고’는 일종의 간접 광고입니다. 일부 누리 소통망(SNS)을 중심으로 ‘뒷광고’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뒷광고’가 간접 광고라고 했는데, 간접 광고는 합법적인 것 아닌가요?

강 기자: 네, 맞습니다. 방송법 제73조 2항은 간접 광고를 ‘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뿐 아니라 게임, 누리 소통망(SNS)에서도 간접 광고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간접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광고인 줄 모르고 있던 대중은 배신감을 느끼겠군요.

강 기자: 그렇습니다. 대중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 ‘뒷광고’가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논란으로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지침을 개정하여 ‘뒷광고’ 규제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광고 또는 협찬을 받아 만든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진행자: 이제는 간접 광고임을 숨기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겠군요. 그런데 ‘뒷광고’의 반작용 때문인지 ‘앞광고’라는 새로운 광고 형식이 등장했더라고요.

강 기자: 네, 맞습니다. ‘앞광고’는 ‘뒷광고’와 달리 광고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형태로, 제품 협찬을 받은 사실을 솔직하게 드러낸 콘텐츠를 말합니다. ‘앞광고’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진행자: 잠시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광고임을 밝히고 있는 문구가 나온 장면을 확대해 주시겠어요?

강 기자: 네, 알겠습니다.

진행자: ‘뒷광고’와 달리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군요.

강 기자: 그렇습니다. ‘뒷광고’에 대한 반작용 덕분에 ‘앞광고’는 ‘솔직함’을 무기로 대중의 호감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중을 기만하는 것보다는 솔직한 태도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 대중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게 해 주는군요. 보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 기자: 감사합니다.

국물이 끝내주는
‘꼬치 어묵탕’ 만들기
검색 키워드: #어묵탕 #광고 #협찬

* 이번 게시 글에는 ‘어묵탕 밀키트’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물이 끝내주는 ‘꼬치 어묵탕’ 만들기

검색 키워드: #어묵탕 #광고 #협찬

* 이번 게시 글에는 ‘어묵탕 밀키트’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따끈한 국물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늘은 따끈한 국물과 어묵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인 ‘꼬치 어묵탕’ 조리법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다. 정석대로 요리하려면 아래와 같이 재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어묵 300g, 꼬치 20개
2. 육수용 재료: 무 350g, 대파 2대, 멸치, 다시마, 간장 2숟갈, 소금 1/2숟갈, 맛술 2숟갈
3. 간장 소스용 재료: 간장 1/3컵, 설탕 1/2숟갈, 참기름 1숟갈, 통깨, 다진 마늘 1/2숟갈, 맛술 1숟갈

좀 번거롭죠? 저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밀키트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해당 제품으로 어묵탕을 조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료 준비도 필요 없고 물만 끓이면 됩니다. 간단 하죠?



참 편리한 세상인 것 같아요.



오늘 게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게시 글은 어묵탕 밀키트 업체로부터 제품과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지난번 제가 작성한 사과 글은 못 보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구독자를 기만한 뒷광고 논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클릭](#)

공감 ♥939

[댓글]

□□□: 앞으로 잘하시길! 솔직한 광고 좋아요. 한번 써 볼게요.
 △△△: 재료 준비가 참 번거로웠는데, 좋은 상품 같아요. 광고지만 유용하네요.
 ▽▽▽: 이 게시글도 결국 상품 광고였군요. 실망입니다.

[23004-0153]

0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자료 화면을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보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작성자의 다른 글을 독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블로그 게시물을 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도록 주요 검색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문자와 음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23004-0154]

05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품 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한 독자들이 호의적인 ‘댓글’을 작성하였겠군.
- ②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을 노출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간접 광고’로 보기 어렵겠군.
- ③ ‘밀키트’ 제품의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독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글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앞광고’로 보기 어렵겠군.
- ⑤ ‘밀키트 업체’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군.

[01~03]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배경 음악과 함께 방송 시작

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 종목의 스타를 만나서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는 ‘스포츠 스타와의 수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스 링크에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 어디서 들어 보시지 않으셨나요? 음악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짐작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출연자는 바로 남자 피겨 스케이팅 최고의 스타죠. 이○○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역시 스케이트를 타고 멋지게 한 바퀴 돌며 등장하시네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출연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코치입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는 코치라는 직함보다는 선수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시작할 때 음악이 코치님이 올림픽에서 연기 음악으로 활용했던 곡이죠?

출연자: 네, 익숙한 곡을 준비해 주셔서 긴장된 마음이 좀 풀리네요.

진행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장면 전환, 대형 모니터를 사전에 설치해 놓은 촬영 장소로 이동해서 자리에 앉는 두 사람

진행자: 코치님 선수 시절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대단했는데요, 그 시절 잠깐 보실까요? (모니터를 통해 이○○ 코치의 연기 모습 송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다시 보아도 정말 멋진 연기이지 않나요? 코치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출연자: 저는 현재 피겨 스케이팅 코치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배우고 느낀 바를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최근에는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고, 경기를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국민적 관심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출연자: 많은 분이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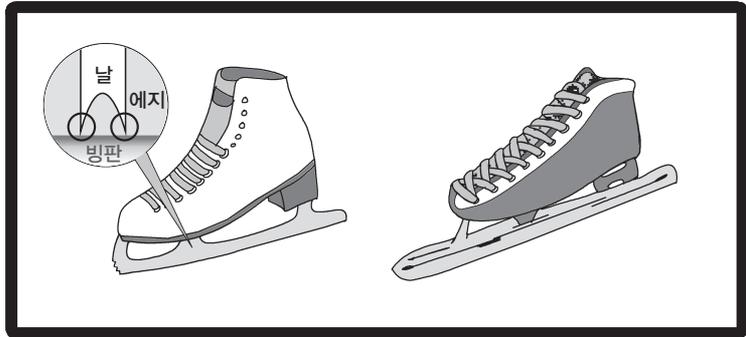
진행자: 코치님 덕이 큼니다. 얼마 후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 좀 더 알고 보면 경기를 훨씬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 어떤 점이 궁금한지 여쭙봤습니다.

출연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궁금증 풀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보시면요, (모니터를 통해 질문 관련 통계 제시) 점프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이 제일 많았네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름도, 점수도 다르니 어려우신가 봅니다. 트리플 토루프, 트리플 살코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 봤지만 사실 저도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출연자: 네, 아무래도 그러실 수 있죠. 점프가 워낙에 빠르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피겨 스케이팅의 꽃인 점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모니터를 통해 사진 제시) 우선, 이 스케이팅화 두 개를 비교해 보시겠어요?

[자료 1] 사진



진행자: 아, 둘 다 스케이트화이긴 한데, 모양이 다르네요. 아무래도 날의 길이가 다른 건 종목에 따라 적합한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출연자: 네, 맞습니다. 날이 짧은 것이 피겨 스케이팅용이고, 날이 긴 것이 스피드 스케이팅용입니다.

진행자: 그리고 왼쪽 것은 날 앞부분이 톱니 모양이네요?

출연자: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이 부분을 톱라고 하는데요, 얼음을 찍고 점프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화는 빙판과 맞닿는 날 가운데 홈이 파여 있어서 안쪽 날과 바깥쪽 날이 구분되고요, 점프에 따라서 둘 중 어느 쪽을 디디고 도약하는지도 달라집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같은 빙상 종목이지만 스케이트화부터 다른 이유가 있네요.

출연자: 이제 점프의 종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한번 보시죠. (모니터를 통해 표 제시)

[자료 2] 표

점프 유형	구분 기준(오른발잡이 기준)			
토루프	오른발 바깥쪽 날로 후진하다 반대 발 토로 얼음을 찍고 도약			
살코	왼발 안쪽 날로 후진하다 날로 얼음을 밀며 도약			
루프	오른발 바깥쪽 날로 후진하다 날로 얼음을 밀며 도약			
플립	왼발 안쪽 날로 후진하다 반대 발 토로 얼음을 찍고 도약			
러츠	왼발 바깥쪽 날로 후진하다 반대 발 토로 얼음을 찍고 도약			
악셀	왼발 바깥쪽 날로 전진하다 날로 얼음을 밀며 도약			
회전수	싱글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

진행자: 토루프, 살코, 루프, 플립, 러츠, 악셀 이렇게 여섯 개의 점프가 있군요. 그럼 싱글, 더블, 트리플은 무슨 의미인가요?

출연자: 더블이나 트리플 등은 점프의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토루프라는 용어는 세 바퀴를 도는 토루프 점프를 의미하겠죠? 여섯 개의 점프는 도약할 때 토로 얼음을 찍는가 날로 얼음을 미

는가, 도약할 때의 진행 방향이 앞인가 뒤인가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난도는 보시는 순서대로 악셀이 가장 높고, 당연히 회전수가 많을수록 어려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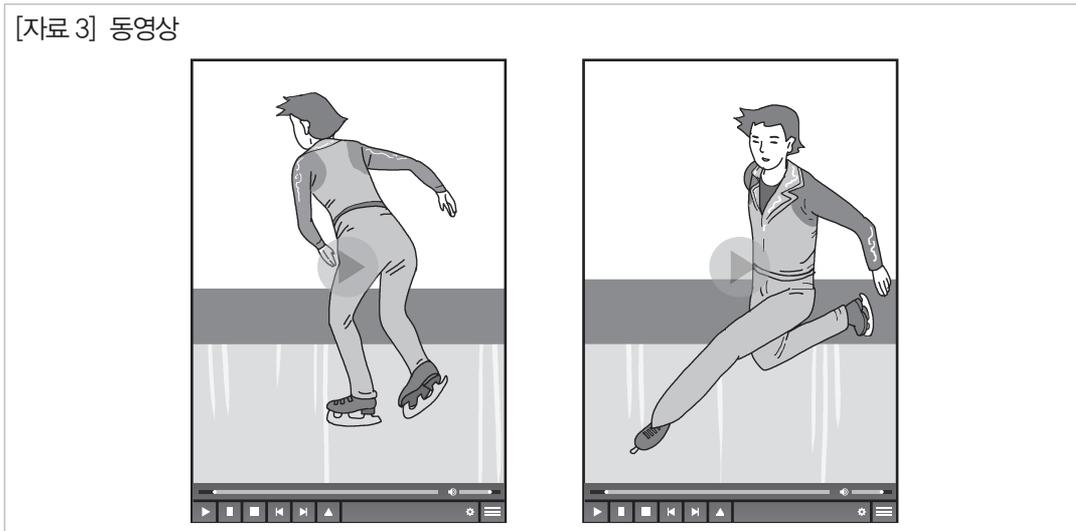
진행자: 이렇게 보니 비슷하게 보였던 점프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 있었군요. 그런데 여섯 개의 점프 중에서 악셀 점프가 다른 점프보다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출연자: 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악셀 점프만 전진하면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정면을 보고 도약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점프에 비해 선수들이 느끼는 공포심이 훨씬 크지요. 그리고 여섯 개의 점프 모두 착지는 뒤를 보며 하게 되는데, 그럼 정면을 보고 뛰는 악셀 점프는 다른 점프에 비해 반 바퀴를 더 회전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트리플 악셀 같은 점프는 3바퀴가 아니라 3바퀴 반을 뛰어야 하는 거네요.

출연자: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김□□ 선수에게 시범을 부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죠. (모니터를 통해 동영상 제시) 먼저, 트리플 러츠인데요, 점프하고, 하나, 둘, 세 바퀴를 돌고 내려오죠. 이어서 트리플 악셀은 점프하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반 바퀴를 더 돌고 내려옵니다.

[자료 3] 동영상



진행자: 이렇게 느린 화면으로 보니 점프 동작을 자세히 볼 수 있네요. 시범을 보여 주신 김□□ 선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코치님, 오늘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시청자분들이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셨을 거 같습니다.

출연자: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코치님, 앞으로의 활약상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출연자: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004-0155]

01 위 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방송 내용과 관련된 장소에서 촬영한 장면으로 방송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출연자’와 관련된 배경 음악을 통해 시청자가 방송에 누가 출연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방송에서 자료를 제시할 때 필요한 장비를 촬영 장소에 사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 ④ ‘진행자’가 ‘출연자’의 예전 영상을 본 소감을 질문의 형식으로 시청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자’가 ‘출연자’의 동작을 따라 해 보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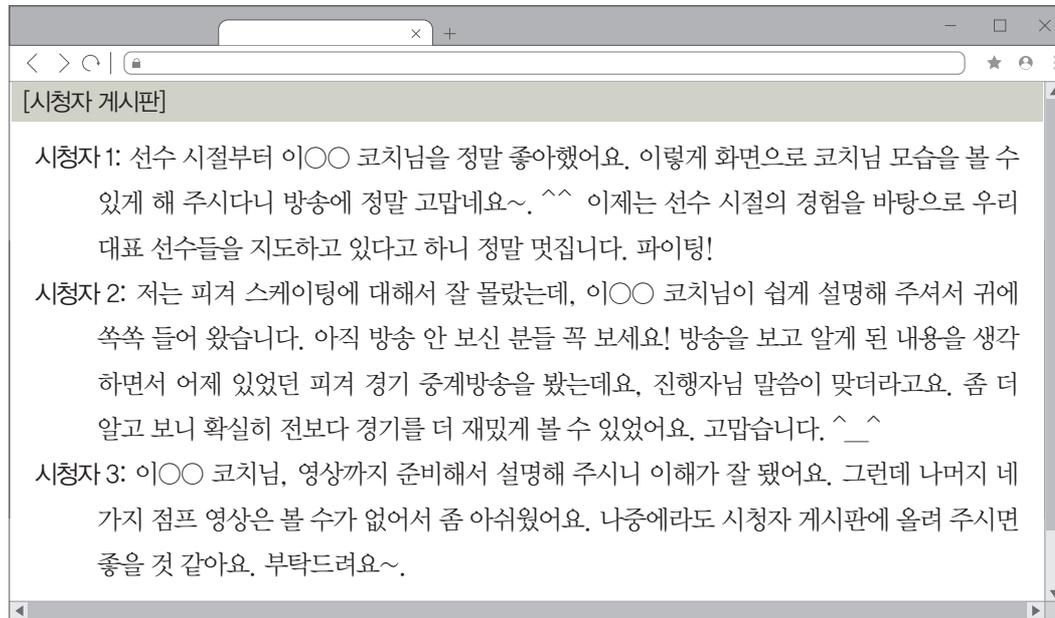
[23004-0156]

02 다음은 ‘출연자’가 방송을 준비하며 세운 자료 활용 계획이다. 위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 1]을 제시하며, 점프 동작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종목에 적합한 날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해야겠군.
- ② [자료 2]를 제시하며, 다른 다섯 개의 점프와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악셀 점프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려 주어야겠군.
- ③ [자료 2]를 제시하며, 피겨 스케이팅에서 점프를 칭하는 용어가 점프의 회전수와 점프 유형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야겠군.
- ④ [자료 3]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이 느린 화면을 통해 점프 동작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야겠군.
- ⑤ [자료 3]을 제시하며, 동영상에 제시된 두 가지 종류의 점프를 회전수를 중심으로 비교해 주어야겠군.

[23004-0157]

03 다음은 위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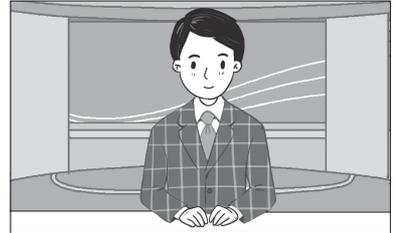


- ① ‘시청자 1’은 ‘진행자’가 ‘출연자’의 근황이 어떤지 알려 주어서 방송 내용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② ‘시청자 2’는 ‘진행자’가 한 말에 공감하며, ‘출연자’가 알려 준 점프에 대한 정보가 관련 프로그램을 볼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청자 3’은 방송에서 본 두 가지 점프에 대한 영상 자료는 자신이 원하던 내용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다른 영상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④ ‘시청자 1’과 ‘시청자 2’는 ‘출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방송에 고마움을 느꼈음을 이모티콘과 함께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청자 2’와 ‘시청자 3’은 ‘출연자’가 방송에서 설명을 잘해 주었다고 언급하며, 해당 방송을 다른 이에게 추천하고 있다.

[04~05] (가)는 텔레비전 뉴스의 일부이고, (나)는 학생이 (가)를 바탕으로 제작해서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총알 오징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식감이 연해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총알 오징어라는 용어부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김○○ 기자가 취재해 봤습니다.



기자: (손에 살오징어를 들고) 이건 (어선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어선을 단속해서 방금 압수한 어린 살오징어입니다. 흔히 총알 오징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부터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유통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총알 오징어라는 명칭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오징어의 한 종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총알 오징어는 우리가 흔히 먹는 살오징어의 어린 개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지나치게 어린 살오징어를 포획하게 되면, 수산 자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온 단속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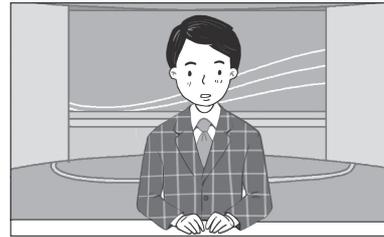


관계자: 살오징어 어획량은 2020년 5만 6천 톤으로 15만 6천 톤이었던 2015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리를 제외한 몸통의 길이가 15cm 이하인 살오징어에 대한 어획을 금지했으며, 의도치 않게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힌 경우라도 15cm 이하의 살오징어가 전체 어획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단속도 모두 어린 살오징어를 의도적으로 잡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어획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린 살오징어를 사려는 소비자의 수요가 있다 보니 불법 어획과 유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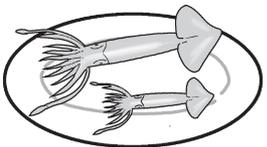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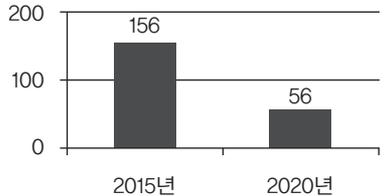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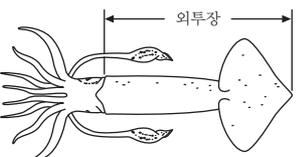


기자: 실상이 이렇다 보니, 어린 살오징어를 불법으로 잡거나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살오징어를 포함해서 지나치게 작은 생선을 소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치어렵’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어린 살오징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살오징어를 비롯한 주요 어종의 금지 체장, 즉 포획 금지 길이를 기록한 도구인 ‘치어렵’ 밴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어 총알 오징어, 아니 어린 살오징어가 더 이상 무분별하게 소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 뉴스 김○○이었습니다.

진행자: 어린 살오징어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문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개선되어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 가겠습니다.



(나)

카드 1	카드 2						
<p style="text-align: center;">여러분은 총알 오징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p>  <p>‘총알 오징어’는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하는 틀린 용어 총알 오징어 × 어린 살오징어 ○</p>	<p>어린 살오징어를 무분별하게 잡아서 소비하면, 어획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h>연도</th> <th>어획량 (천 톤)</th> </tr> <tr> <td>2015년</td> <td>156</td> </tr> <tr> <td>2020년</td> <td>56</td> </tr> </table> <p>〈살오징어 어획량(단위: 천 톤), 해양수산부〉</p>	연도	어획량 (천 톤)	2015년	156	2020년	56
연도	어획량 (천 톤)						
2015년	156						
2020년	56						
카드 3	카드 4						
<p style="text-align: center;">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살오징어의 금지 체장은 다리를 제외한 몸통(외투장) 기준 15cm 그 이하의 어린 살오징어는 어획 금지!</p> <p>* 금지 체장이란? 어린 해양 생물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길이를 정해 그 이하의 해양 생물은 포획을 금지하는데, 그렇게 정해 놓은 길이를 금지 체장이라고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치어럽’ 캠페인을 통해 우리도 어린 살오징어 보호에 동참해 보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치어를 사랑(LOVE)하자, ‘치어럽’ 캠페인!</p> <p style="text-align: center;">치어(어린 물고기) 사랑은 생활에 더하기 잘못된 소비는 생활에서 빼기</p>  <p style="text-align: center;">‘치어럽’ 밴드에 표시된 것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소비하지 마세요!</p>						

[23004-0158]

04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행자’는 보도의 소재와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밝히고 있다.
- ② ‘진행자’는 보도의 소재를 일관된 용어로 지칭하여 방송 내용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기자’는 보도의 소재와 관련된 장소에서 취재를 진행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기자’는 보도의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관계자’는 보도의 소재를 시청자들에게 실물로 보여 주며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3004-0159]

05 학생이 세운 카드 뉴스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기자’가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한다고 밝힌 잘못된 명칭을 적절한 명칭과 나란히 써 줘야겠군.
- ②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된 살오징어 어획량의 변화를 막대그래프로 보여 줘야겠군.
- ③ ‘기자’가 사용한 용어 중에서 학생들에게 생소한 것은 그 용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써 줘야겠군.
- ④ ‘관계자’가 알려 준, 잡을 수 있는 살오징어의 크기 기준이 살오징어의 어떠한 부위에 적용되는지 그림으로 보여 줘야겠군.
- ⑤ ‘기자’가 말한 캠페인 제목이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수학 기호를 활용해 제시해 줘야겠군.

[01~03] (가)는 학생들이 발표를 위해 열람한 지역 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이고, (나)는 학생들이 (가)를 바탕으로 제작해 수업 시간에 발표한 슬라이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보 인터넷 뉴스

입력 202×. 03. 18. 13:17
수정 202×. 03. 18. 16:15

정치 분야	사회 분야	경제 분야	생활 분야	국제 정세 분야
-------	-------	-------	-------	----------

‘바다랑 마을’, 일부 압채 ‘차박족’ 문제로 골머리



장기 주차, 쓰레기 투기 등으로 주민 피해 커... 대책 마련 필요

최근 ‘차박’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다. 풍광이 좋은 관광지에서 ‘차박’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시의 바다랑 마을도 예외는 아니다. 바다랑 마을은 멋진 해안가에 접해 있으며, 무료 공영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차박’을 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다. 그런데 ‘차박’ 수요가 늘어난 만큼 압채 ‘차박족’도 늘고 있어 바다랑 마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영 주차장 대부분을 ‘차박족’이 차지하고 있어 문제다. 몇 년 전 소수의 여행객이 ‘차박’을 위해 방문하던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일반 이용객보다 ‘차박’을 하려는 이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차박’을 하는 일부 여행객들은 며칠간 주차장에 머무르며 주차 면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는 바다가 보이는 좋은 자리에 차만 주차해 두고,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 자리 독점 행위도 성행하고 있다. 이에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 주민들과 일반 여행객들은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압채 ‘차박족’들은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주차장, 화장실 등에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바다랑 마을의 한 주민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 인근에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그 양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서 문제가 많아요. 또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인근 공중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많은 분이 우리 지역을 찾아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지금 같은 ‘차박’ 행태는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에서 계도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나는 압채 ‘차박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바다랑 마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차박’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차장 독점 금지와 쓰레기 수거 관련 캠페인을 벌였으나 아직 큰 효과는 없습니다. ‘차박’을 하는 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는 한편,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클릭 ▶ 김△△ 기자

😊 좋아요	😞 슬퍼요	😡 화나요	🗣️ 후속 기사 궁금해요
0	0	32	2

[댓글 5개]

- babam***: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차박이 사회적 문제가 된 듯.
- ↳ dew***: 저는 차박을 다니지만, 저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 babam***: 앗 죄송! 제가 너무 일반화했군요. 기사의 내용처럼 일부 업체 차박족이 문제인 것 같네요.
- roma***: 주차장 자리 독점을 막으려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 suk***: 차박을 하는 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나)

[우리 지역 탐구 발표(탐구 분야: 우리 지역의 사회 문제)]

**발표 제목: 바다랑 마을의
업체 '차박족' 문제와 해결 방안**

2학년 5반 3조

1. 문제의 배경

최근 '차박' 인기 급격히 증가

차박용 텐트 특히 출몰 건수 (출처: 특허청)

'차박족'에게 선호도가 높은 장소는?

- 바다, 계곡 등 풍경이 좋은 곳
- 주차장 이용이 편리한 곳
-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

바다랑 마을은 풍경으로 유명한 소담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 무료 공영 주차장 공중화장실 구비

바다랑 마을을 찾는 '차박족' 급증

업체 '차박족'도 함께 늘면서 피해 상황 발생

※ '차박'이란? 여행할 때에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것

2. 문제 상황

가. 주차장 자리를 장기간 점유해서 다른 이용객들의 불편 초래

■ : '차박' 차량 표시

〈바다랑 마을 공영 주차장의 '차박' 차량들(출처: ○○일보)〉

바다랑 마을 공영 주차장 '차박' 주차 현황
(20XX. 9. 5.(토) 15:30을 기준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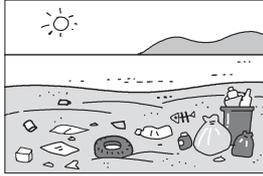
2. 문제 상황

나. 불법 취사 행위로 인한 화재 위험

〈불법 취사(출처: 인터넷 포털 ◇◇◇)〉

2. 문제 상황

다. 주차장, 화장실 등에 쓰레기 무단 투기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모습〉
(자체 촬영)



〈주민 인터뷰 동영상〉
(자체 촬영)

3. 해결 방안 제안

- 가.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주차장을 장기간 차지하는 문제 해결
- 나.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주차장 내 취사와 같은 불법 행위 엄격히 단속
- 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행사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 문제 해결
- 라. '차박'하는 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실시

[23004-0160]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댓글을 통해 기사의 수정을 위한 정보 수용자들 사이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나)는 정보 수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료에 담긴 정보의 제시 순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가 만든 다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정보 수용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언어적 표현과 이모티콘을 통해 드러나는 정보 수용자의 반응을 다른 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004-0161]

02 학생들의 슬라이드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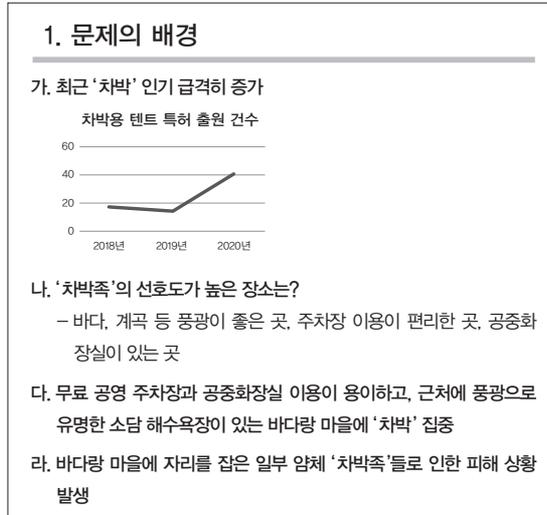
- ① 기사에서 밝힌 대로 최근 '차박' 수요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그래프 형태로 제시한다.
- ② 기사에서 다른 공영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해 본 결과를 수치화해서 이미지와 함께 제시한다.
- ③ 기사에 나온 것 외에 추가로 조사한 문제 상황에 대한 슬라이드를 기사에 나온 문제 상황을 담은 슬라이드들 사이에 배치한다.
- ④ 기사에서 다른 쓰레기 문제를 복합 양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다.
- ⑤ 기사의 '시청 관계자'의 발언과 댓글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에서 주차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방안을 제안한다.

[23004-0162]

03 <보기>는 (나)의 두 번째 슬라이드의 초안과 초안에 대한 학생들의 수정 의견이다. 학생들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점검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초안]



[수정 의견]

첫 번째: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 주면 좋겠어.

두 번째: 발표에 활용하는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임을 밝혀 주면 좋겠어.

세 번째: '차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에게 '차박'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면 좋겠어.

네 번째: 바다랑 마을이 '차박족'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좋겠어.

다섯 번째: '차박족'에게 선호도가 높은 장소의 조건을 표로 정리해서 가독성을 더 높여 주면 좋겠어.

- ① 화살표를 활용함으로써 첫 번째 수정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되었군.
- ② 통계 자료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두 번째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되었군.
- ③ 핵심 용어인 '차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세 번째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되었군.
- ④ 바다랑 마을에 대한 설명을 담은 말풍선을 추가함으로써 네 번째 의견이 수정안에 반영되었군.
- ⑤ '차박족'이 좋아하는 곳의 조건이 표로 제시되지 않은 것을 보니 다섯 번째 의견은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군.

[04~05] 다음은 라디오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영화 필름’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이 됩니다. 시청하실 분들은 ‘영화 필름’ 누리집을 통해 방송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휴대 전화 문자,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댓글 남겨 주세요. 오늘은 화제의 영화 「운영」의 주인공 배우 김○○ 님과 박△△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김 배우: 안녕하세요. 영화 「운영」에서 운영 역할을 맡은 배우 김○○입니다.

박 감독: 「운영」의 연출을 맡은 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자: 예고편을 봤는데요, 기대가 무척 큼니다. 영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 감독: 네, 영화 「운영」은 우리나라 고전 소설 「운영전」을 바탕으로 창작된 영화입니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궁녀 운영과 선비 김 진사의 아름다우면서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영화는 배우 김○○ 씨의 연기 변신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사극 출연은 처음이었던 걸로 아는데 촬영하면서 어떠셨나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김 배우: 사극에 출연하는 건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워낙에 시나리오도 훌륭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해 주셔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시조를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노래에는 익숙지 않다 보니 고생을 좀 했네요.

진행자: 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영화당’ 님께서 그 노래 들어 보고 싶다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셨네요. 비슷한 얘기들이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두 분이 출연하셔서인지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이네요. 김○○ 씨, 노래 이거 어찌죠?

김 배우: (웃으며) 그럼, 계획에는 없었지만 제가 여기서 공약 걸겠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가 지금 70,320명인데, 십만 명을 넘으면 영화 속 노래 한 소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진행자: 여러분 들으셨죠? 주변에 널리 홍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독님께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원작이 있는 영화다 보니 여러 가지를 신경 쓰셨을 텐데요, 고민하신 부분이 있나요?

박 감독: 「운영전」 자체가 원체 매력적인 이야기이다 보니 그 매력을 잘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연출 과정에서 이야기의 주인공인 운영과 김 진사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증을 통해서 조선 시대 의상과 주요 배경인 수성궁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재현했으니까 그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촬영하시면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지 궁금한데요, 명장면이라고 소개해 주실 장면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배우: 운영이 김 진사를 보고 처음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걸로 드러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연기해야 했는데, 운영의 절절했을 마음을 느끼며 촬영했습니다.

박 감독: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김○○ 씨는 물론이고 김 진사 역을 맡은 최□□ 씨 역시 배역의 감정을 너무나 잘 살려 줘서 훌륭한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 장면이 예고편에 살짝 나왔던 거 같네요. 우리 김 진사님 얘기도 들어 보면 좋은데, 오늘 안타깝게도 출연을 못 하셨죠?

박 감독: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해외 촬영이 잡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저희가 깜짝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배우, 감독 놀람.) 최□□ 씨 들리시나요?

최 배우: 네, 잘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에서 김 진사 역을 맡은 배우 최□□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야 했는데, 제가 영국에 있어서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거기는 지금 새벽이죠? 길게는 어려울 거 같고 「운영」에 출연한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최 배우: 네, 김○○ 씨가 마치 진짜 운영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해 주셔서 편한 마음으로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박 감독님과 작업한 것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김 배우: 새벽이라 비몽사몽일 텐데, 이야기를 정말 잘하네요.

진행자: 저희가 최□□ 씨 이제 재워 드려야 할 거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영화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최 배우: 여러분, 영화 「운영」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최□□ 씨, 목소리 출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휴대 전화 문자로 들어온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073’ 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영화도 소설처럼 비극적인 결말이냐고 물어보셨네요. 이거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김 배우: 그건 말이죠. (잠시 뜬을 들이고) 다음 주에 영화관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꼭 와서 확인해 주세요. (웃음.)

진행자: 아! 이러는 사이에 저희 동시 접속자 수가 100,020명이 됐네요. 김○○ 씨 노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웃음.)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서 김○○ 씨의 노래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4-0163]

04 출연자들의 발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위 방송 매체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의 발화를 통해, 라디오와 누리집을 통해서 방송 내용을 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김 배우’의 발화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는 사람의 숫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박 감독’의 발화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이들의 반응이 방송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최 배우’의 발화를 통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에 있더라도 전화 연결을 통해 방송 진행자와 소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진행자’의 발화를 통해, 방송 중간에 광고가 송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3004-0164]

05

다음은 위 방송이 끝난 후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화 필름' 게시판]

작은 숲: 김○○ 배우님이 하는 노래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못 부르신다더니 정말 잘 부르시네요. 그런데 영화 예고편은 어디 올라와 있나요? 진행자님은 보셨다는데 전 못 찾겠네요.

↳ 플랜더스: 맞아요. 저도 김○○ 배우님 노래 정말 좋았어요.

↳ 복순이: 이 주소 누르시면 돼요. www.운영.com 영화 공식 누리집이에요.

↳ 작은 숲: 감사해요.

플랜더스: 박△△ 감독님 전작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액션 영화 전문이시라 이번 영화는 좀 걱정되긴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공들의 심리를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 작은 숲: 박△△ 감독님 사랑 영화로 데뷔해서 섬세한 심리 묘사로 신인 감독상까지 받은 건 모르시는 듯.

↳ 하늘색: 액션 영화에서도 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탁월하기로 유명하셨으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색: 영화「운영」의 원작이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었군요. 몰랐던 정보네요. 영화 보기 전에 읽어 보고 가면 좋겠네요.

↳ 복순이: 저도 박 감독님 말을 듣고 알게 돼서 서점에서「운영전」 사서 읽고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작품 같은데 다시 보니까 또 새롭네요.

↳ 1987: 저도 방송에서「운영전」이 원작이라는 얘기를 듣고 소설 줄거리를 찾아봤어요. 영화 결말은 감추시던데, 제발 소설의 결말과는 달랐으면 좋겠네요.

↳ 하늘색: '1987'님은 해피 엔딩을 좋아하시는군요.

- ① '플랜더스'는 '김 배우'에 관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댓글을 달아서 공감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② '1987'은 '김 배우'가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정보와 관련된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복순이'는 '진행자'가 접했다고 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제공해 주고 있다.
- ④ '작은 숲'과 '하늘색'은 '박 감독'이 연출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복순이'와 '1987'은 '박 감독'이 방송에서 영화의 원작에 대해 한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01~04] 다음은 '의궤'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의 문화' 시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인 '의궤(儀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 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진행자: ㉠ 먼저 의궤를 낫설게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의궤는 무엇인지요?

전문가: 의궤는 조선 시대에 국가나 왕실에서 거행한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남긴 보고서 형식의 책을 말합니다. 의궤는 국가 행사를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보고서라니, 흥미로운데요, 의궤에 담긴 기록이 매우 자세한가요?

전문가: 네. 가례나 장례와 같은 왕실 행사에 관한 기록에는 동원된 인원의 명단, 행사에 사용된 각종 물품의 크기와 재료, 색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궁궐이나 성곽 건축에 관한 기록에는 건축물의 위치, 구조, 재료와 구입처에 관한 자료가 그림과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덕분에 오늘날 조선 시대의 특정 행사를 재현할 수도 있고, 당시의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10월, 수원 화성 문화제에서 재현하는 정조의 능행 행렬은 『원행음묘정리의궤』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정조의 능행 행렬 영상이 설명과 함께 지나간다.)

진행자: 네. 능행은 임금이 능으로 나들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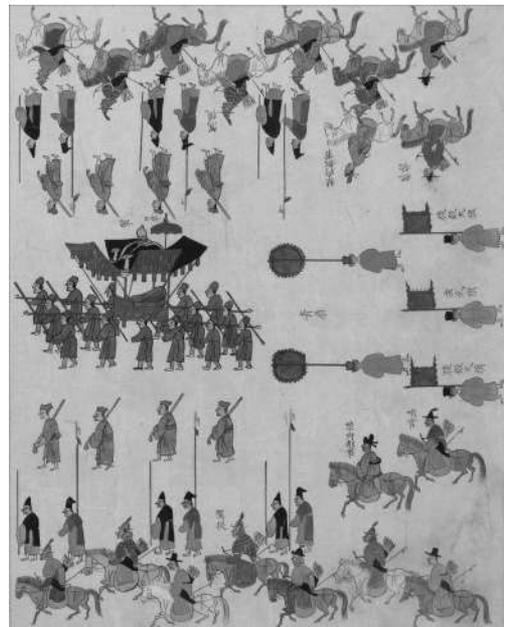
전문가: 맞습니다. 이 영상은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 사도 세자의 능이 있는 화성으로 가는 행렬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의궤가 다양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네요. 혹시 의궤를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의 일부가 제시된다.) 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의궤는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의 일부입니다. 반차도는 왕실 행사의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반차(班次)는 나누어진 소임에 따라 차례로 도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차도를 통해 의장기의 모습, 가마의 배치 등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여기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내부가 보이는 왕의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진행자: 네, 보입니다. 색채도 선명하고 마치 당시의 행사에 직접 참석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전문가: 의궤 제작에 사용된 깨끗하고 질긴 종이와 정성을 들인 유려한 필체, 25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깔끔하게 채색되어 전혀 변질되지 않은 그림 등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화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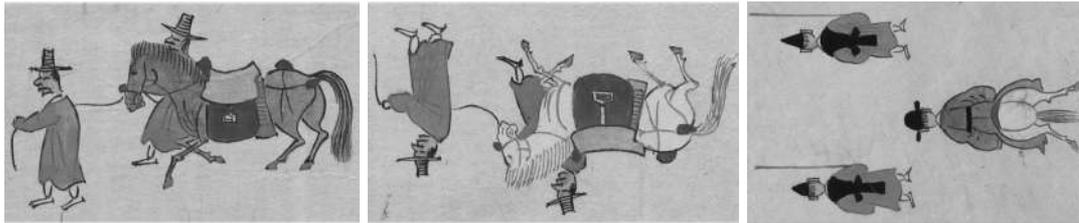
은 문화재로서의 의궤의 가치를 돋보이게 합니다. 반차도는 행사 당일이나 이후에 그린 것이 아니라, 행사 전에 미리 물품과 참여 인원을 배치해 봄으로써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㉔ 따라서 요즘 국가 행사나 군대의 작전 때 미리 실시하는 도상 연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요.

진행자: 의궤에는 예술적 가치는 물론 실용적 기능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반차도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전체가 화면으로 지나간다.) 네.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반차도는 크게 왕의 행차를 그린 앞부분과 왕비의 행차를 그린 뒷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왕의 가마는 사방을 열어 놓아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있게 하였으나, 왕비의 가마는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림 속의 각종 깃발, 부채류 등은 당시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며 수백 명이 대열을 이루어 가는 행렬은 바로 당시의 국력과 문화 수준을 보여 줍니다.

진행자: 근데, 자세히 보니 좌측, 우측, 후면에서 인물을 다양한 시점으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네. 맞습니다. 세부 그림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반차도의 일부를 확대한 그림이 제시된다.)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화면 2]

그림을 확대하니깐 깔끔한 색채가 더 잘 느껴지지시요? 여기를 보시면 다양한 각도에서 인물들을 묘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딱딱해지기 쉬운 행렬의 구도에 생동감을 부여하며 정지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㉕ 반차도에 나타난 인물들은 신분에 따라 착용하고 있는 복식이 서로 다른데요, 이런 모습은 당시의 복식 연구에도 귀중하고 생생한 자료가 됩니다. 이외에도 궁중 음식, 전통 음악, 건축사 등 의궤의 기록은 조선 시대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의 보고입니다.

진행자: 말씀을 듣다 보니, 의궤는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기록 유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의궤를 일부 약탈당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전문가: 맞습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는데요, 그때 약탈당한 의궤는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도서로 분류되어 오랜 시간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75년 파리 국립 도서관에서 일했던 우리나라의 한 연구자가 조선 시대의 어람용 의궤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의궤 반환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2011년 영구 대여의 형태로 의궤가 우리나라에 반환되었습니다.

진행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네, 맞습니다. 조선 시대의 의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철저한 기록 정신입니다. 조선 시대의 왕은 국정 운영에 대한 보고서라 할 수 있는 의궤를 통해 소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기록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처럼 철저하게 기록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적인 자금을 사사로이 유용할 가능성을 봉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네, 의궤에 담긴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게 되네요. 오늘 의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신 이○○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3004-0165]

01 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운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의궤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궤의 개념을 밝혀야겠군.
- ② 의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의궤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해야겠군.
- ③ 의궤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소개하기 위해 영상 자료를 활용해야겠군.
- ④ 시청자가 의궤를 볼 수 있도록 의궤에 관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야겠군.
- ⑤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의궤 약탈과 반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야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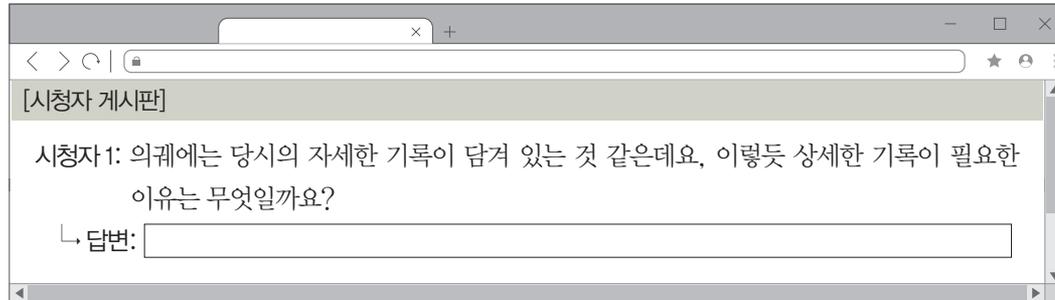
[23004-0166]

02 위 방송 프로그램을 본 후, 시청자가 [화면 1]과 [화면 2]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면 1]의 가마는 사방을 열어 놓아 내부에서 밖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왕비의 가마이군.
- ② [화면 2]는 반차도의 일부를 화면에 확대하여 제시한 것으로 특정 부분을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③ [화면 1]과 [화면 2]에 나타난 깔끔한 채색은 문화재로서의 의궤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군.
- ④ [화면 1]과 [화면 2]에 나타난 다양한 인물들의 복식은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군.
- ⑤ [화면 1]과 [화면 2] 모두 다양한 각도에서 인물들을 묘사함으로써 행렬의 구도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군.

[23004-0167]

03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위 방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할 때 시청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 행사와 차이는 있지만 화려하고 상세하게 그림으로써, 당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 ② 다른 나라의 행사와 비교하여 행사의 세부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당시의 국력과 문화 수준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 ③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행사와 관련된 각종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④ 행사가 끝난 후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지는 못하였으나 행사의 내용을 그림으로 담은 자료로서, 후대에 행사 기록과 관련된 문화유산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23004-0168]

04 위 방송 프로그램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묻고 있다.
- ② ㉡: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주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③ ㉢: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앞서 말한 내용을 오늘날의 유사한 상황과 연결하고 있다.
- ④ ㉣: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이미 언급한 내용을 대신하고 있다.
- ⑤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평가가 객관성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01~04] (가)는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실의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만든 카드 뉴스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학생 1 ▶ 이번 모듈별 수행 평가 과제는 카드 뉴스 ㉠만들기인데 우리 모듈은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카드 뉴스를 만든 후에는 모듈별 발표도 해야 하는데 말이야.

학생 2 ▶ 선생님께서 청중인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보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참고해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음…….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중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공통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얼마 전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해소 방안을 주제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학생 3 ▶ 좋은 생각이다. 근데 기사 내용이 궁금해지네. 어떤 ㉢내용인데?

학생 2 ▶ 응. 잠깐만. 내가 기사를 볼 수 있는 웹 페이지의 링크 주소를 보내 줄게.
<https://www.ooo.com> 여기를 보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2020년 중고등학생의 34.2%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며, 25.2%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더라고.

학생 1 ▶ 설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정도가 드러나는구나. 나도 여러 이유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책을 읽어 본 적이 ㉤있는데, 글쓰기가 치유의 힘이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 자신의 심리적 상처나 감정에 대해 글을 쓰는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학생 3 ▶ 그거 정말 재미있는데. 우리 그럼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글쓰기를 제안하는 카드 뉴스를 구성해 보면 어떨까?

학생 2 ▶ 좋아. 우리 생활과 관련된 주제이면서 카드 뉴스의 내용이 친구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 근데 글쓰기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어.

학생 1 ▶ 응. 그 책에 따르면, 자신의 심리적 상처나 감정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해. 그리고 심리적 상처에 대해 글을 쓰는 동안에는 잠깐 슬픔을 느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쓰기 전보다 부정적 감정을 덜 느끼게 된다고 되어 있어. 이런 경험을 통해 삶의 질도 향상할 수 있고.

학생 3 ▶ 흥미로운 내용이네. 이런 글쓰기의 효과를 카드 뉴스에 소개하면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아. 책에서 제시한 효과 외에도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네.

학생 1 ▶ 맞아. 책에서 글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 책은 다음 모듈 활동 시간에 가지고 와 볼게. 일단 파일을 먼저 보낼게. 내가 연구 결과를 정리한 파일이 있거든.
 [파일 전송] [△△△.hwp](#)

학생 2 ▶ 응. 고마워.

학생 1 ▶ 이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인데, 표현적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야. 이러한 결과를 제시하면 글쓰기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될 것 같아. 참, 책을 보면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되어 있었어.

학생 2 ▶ 그렇구나. 글을 쓰는 방법도 중요한 내용이니깐 카드 뉴스의 마지막에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카드 뉴스의 순서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나중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학생 3 ▶ 좋아.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실태, 글쓰기의 효과와 관련 자료, 글을 쓰는 방법 순으로 제시하면 좋겠다. 그럼 우리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 보자.



전송

(나)

카드 1	카드 2
<p>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실태</p> <p>2020년 중고등학생의 34.2%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며, 25.2%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p> <p>■ 예 ■ 아니요</p> <p>1.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p> <p>2.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p>	<p>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p> <p>심리적 상처나 감정에 대해 글을 쓰는 표현적 글쓰기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고, 장기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약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해 줍니다.</p> 
카드 3	카드 4
<p>글쓰기 연구 결과</p> <p>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스트레스와 정서적 안정감의 변화</p> <p>■ 예 ■ 아니요</p> <p>1. 표현적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스트레스가 감소하였습니까? </p> <p>2. 표현적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하였습니까? </p>	<p>자신이 정한 기간만큼 지속적으로 매일 20분씩, 자신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나 감정을 주제로 솔직하게 글을 써 보세요!</p>

[23004-0169]

01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학생 2’는 청증을 고려하여 ‘학생 1’의 의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논의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독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④ [C]에서 ‘학생 1’은 첨부 파일을 활용하여 자신이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⑤ [C]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에 동의하며,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발표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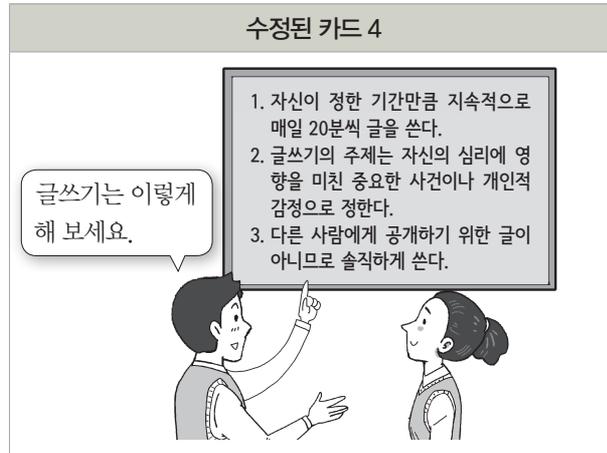
[23004-0170]

02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 반영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고등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정도를 밝히기 위해 ‘카드 1’에서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겠군.
- ② 해결 방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카드 2’에서 글쓰기의 효과를 제시해야겠군.
- ③ 글쓰기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카드 3’에서 글쓰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야겠군.
- ④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드 4’에서 글쓰기의 방법을 제시해야겠군.
- 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카드 1’~‘카드 4’는 글쓰기의 효과와 관련 자료,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실태, 글을 쓰는 방법의 순으로 제시해야겠군.

[23004-0171]

03 다음은 (나)의 '카드 4'를 수정한 것이다. 수정 과정 중에 반영된 수정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림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지속적인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어.
- ② 말풍선과 그림 이미지를 활용하고, 글쓰기의 방법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시하고, 글쓰기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글쓰기 방법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좋겠어.
- ④ 말풍선으로 중심 내용을 제시하고, 글쓰기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좋겠어.
- ⑤ 수업하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자신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좋겠어.

[23004-0172]

04 ㉠~㉤ 중 <보기>의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연결 어미 '-는데' 또는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인다. '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따위에는 '-는데'가 결합하고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따위에는 '-는데'가 결합한다. 그런데 '-는데' 또는 '-는데'가 종결 어미로 쓰이면 연결 어미로 쓰일 때와 의미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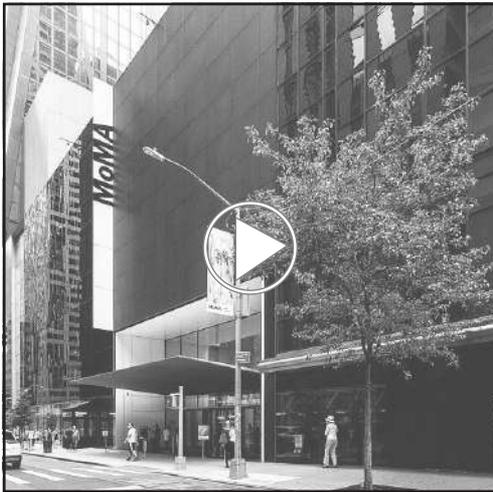
[01~04] 다음은 미술관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장면 1]

(‘TV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명과 강연자의 이름이 자막으로 화면 하단에 나타난다. 배경 음악이 흐른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미술관은 미국의 뉴욕 현대 미술관입니다.

[장면 2]

(뉴욕 현대 미술관 전경 및 내부 영상이 화면에 나타난다.)



뉴욕 현대 미술관은 흔히 약자로 모마(MoMA, Museum of Modern Art)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19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미술 작품을 폭넓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회화, 조각, 사진, 영화, 그래픽 아트 등 여러 영역에 걸쳐 14만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현대 미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과거의 전시 관련 자료를 누리집에 잘 정리해 두어 미술관 누리집 자체가 하나의 사이버 미술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현대 미술관은 자연 채광을 실내로 최대한 끌어들이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천장이 높은 중앙 홀 유리창 밖으로는 미술관의 명물인 조각 공원이 보입니다. 이 조각 공원은 관람객이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이지요.

[장면 3]

(뉴욕 현대 미술관의 여러 미술 작품이 화면에 하나하나 지나간다.)

뉴욕 현대 미술관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뛰어난 컬렉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술사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피카소의 〈아비뇰의 아가씨들〉, 마티스의 〈수영장〉, 모네의 〈수련〉,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샤갈의 〈나와 마을〉,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등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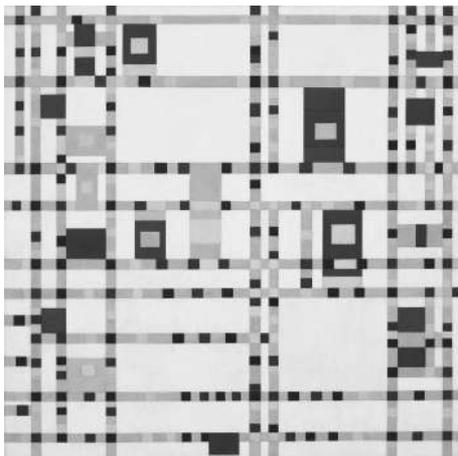
이번에 함께 감상하실 작품은 모네의 ㉠〈수련〉입니다. (모네의 〈수련〉이 화면에 제시된다.)



유럽에서도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작품을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 모네의 대형 수련 작품을 제대로 전시한 곳을 찾자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90년대 50대의 모네는 파리 근교 지베르니에서 정원과 연못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화가가 되지 않았다면 정원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원에 공을 들였는데, 수련을 기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수련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 단숨에 그려 나가던 것과 달리, 모네는 마치 고전주의 화가들이 유화를 다룬 것처럼 그리고 잠시 두었다가 또 그리는 식으로 천천히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런 작품은 한눈에 ㉢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감상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고요하게 들여다보면 물속도 보였다가, 수면 위에 비친 하늘도 보였다가 다양한 공간을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장면 5]

다음으로 만나 보실 작품은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로, 추상 미술 작품인 이 그림은 몬드리안 만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가 화면에 제시된다.)



이 작품은 뉴욕 맨해튼의 빌딩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린 것입니다. 가로세로 선으로 표현된 도로와 그 사이사이의 빌딩이 보이는 듯하고, 차들이 움직이고 신호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며 반짝이는 듯한 뉴욕의 바쁜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마치 어디선가 신나는 음악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에 ‘부기우기’라는 재즈 리듬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추상 미술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물의 형태를 최소화하고 점, 선, 면의 특징을 이용한 미술 사조입니다. 보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전통적인 미술의 가치와 개념을 전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몬드리안은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과 흰색과 검은색 등의 무채색, 수직선과 수평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통해 조화와 질서를 표현하였으며, 점, 선, 면만으로도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장면 6]

오늘 만나 본 뉴욕 현대 미술관과 작품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작품 앞에서 마치 시간이 **㉠** 멈춰 버린 것 같은 몰입을 느껴 보셨는지요? 오늘 **㉡** 소개해 드린 작품 외에도 뉴욕 현대 미술관에는 꼭 **㉢** 만나 보아야 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뉴욕 현대 미술관 2편으로 미술관에 소장된 다른 작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인사하는 장면과 함께 배경 음악이 흐른다.)

[23004-0173]

01 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세운 자료 활용 계획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미술관의 전경과 내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관련 영상을 제시해야겠어.
- ② 시청자가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림을 화면에 제시해야겠어.
- ③ 프로그램명과 강연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하단에 자막을 제시해야겠어.
- ④ 미술관의 여러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작품이 하나하나 지나가도록 화면을 구성해야겠어.
- ⑤ 시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강연 마무리 부분과 달리 강연 시작 부분에는 배경 음악을 활용해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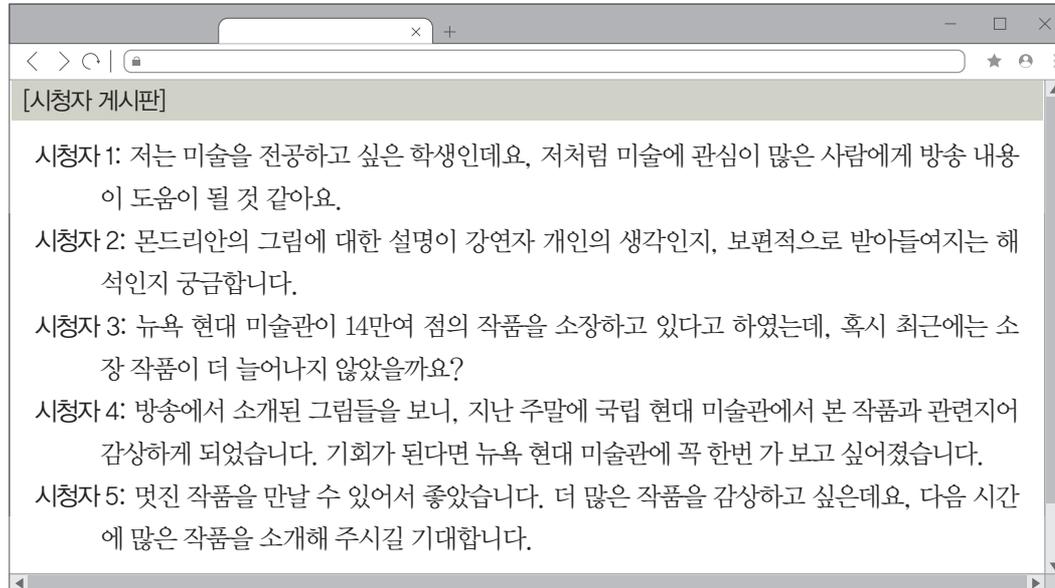
[23004-0174]

02 시청자가 위 방송 프로그램을 본 후,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모네가 자신의 정원과 연못을 가꾸며 그린 그림이군.
- ② ㉡은 점, 선, 면의 특징을 이용하여 보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그림이군.
- ③ ㉠과 달리 ㉡은 그림을 천천히 감상하는 태도가 필요하군.
- ④ ㉠과 ㉡은 모두 추상 미술 작품이군.
- ⑤ ㉠과 ㉡은 모두 고전주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방식처럼 단숨에 완성한 작품이군.

[23004-0175]

03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청자 1’은 방송 내용의 유용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② ‘시청자 2’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인지를 점검하고 있다.
- ③ ‘시청자 3’은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④ ‘시청자 4’는 방송에서 소개된 작품과 자신의 경험을 관련지어 감상하고 있다.
- ⑤ ‘시청자 5’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방송 내용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23004-0176]

0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보조 용언 ‘두다’를 사용하여 자료 정리가 끝나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② b에서는 보조 용언 ‘말다’를 사용하여 강연에서 소개한 작품을 보는 행동이 실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c에서는 보조 용언 ‘버리다’를 사용하여 시간이 멈추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보조 용언 ‘드리다’를 사용하여 작품 소개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보조 용언 ‘보다’를 사용하여 눈앞에 대하는 경험을 할 만한 다른 작품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01~04]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용한 생활 정보를 리포터들이 직접 찾아 전달해 드리는 ‘생생 생활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생활 정보를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리포터: 혹시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겼을 때, 어느 병원의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좋을지 몰라 고민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한두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질환별로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주는 앱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저도 얼마 전에 아버님이 어지러움을 많이 호소하셔서 어느 병원의 어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하나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앱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덜 수 있겠네요. 어떤 앱인지 궁금한데, 직접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리포터: 네, 알겠습니다. (화면 앞으로 나가 그 옆에 선다.) 여기 화면을 봐 주시죠. 이 앱은 크게 세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 ‘질환별 의사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증상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안내에 따라 자신의 여러 증상을 자세히 입력하면 증상과 관련이 있는 진료과나 클리닉이 관련도순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가려움증’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려움증과 관련이 있는 진료과나 클리닉이 관련도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줄에 있는 ‘피부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명성을 자랑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면 여기를 눌러 주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화면을 키우면서) 보시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의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인적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공유도 가능합니다.



진행자: 거기에 추천된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리포터: 인공 지능이 임상 경력 및 수술 횟수, 학회 활동 및 연구 성과, 환자들의 평판 및 전문가 평점 등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동 알고리즘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사용자의 80%가 이 앱에서 추천한 의사 선생님에 대해 만족한다고 하더군요.

진행자: 그렇다면 믿을 만하겠네요. 다른 메뉴에는 어떤 게 더 있죠?

리포터: 다음 메뉴는 ㉢ ‘우리 동네 병·의원’입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지도가 펼쳐지고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의원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의 병·의원을 선택하면 (화면을 키우면서) 보시는 것처럼 병원 주소, 영업시간, 병상 수, 실시간 진료 대기 시간 등 해당 병·의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갑자기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정말 편리하겠네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문을 연 병원을 찾고 싶을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길 안내 앱으로 바로 연결되어 병원까지 찾아가는 길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메뉴가 있는데요, ㉣ ‘병원 생활도우미’ 메뉴입니다. 병원에 입원했거나 장

기 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보험사 안내, 간병인 찾기, 응급차 호출,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병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이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많네요. 몸이 아픈 분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이 앱이 정말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겠어요.

리포터: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린 이 앱으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행자: 네,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소감이나 궁금하신 점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04-0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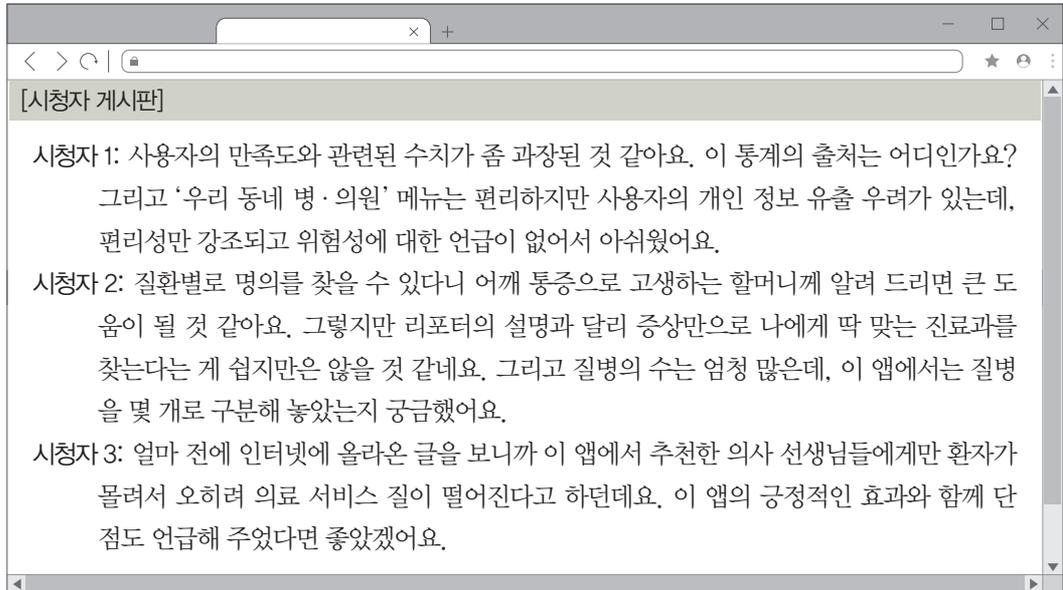
01 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가 화제와 관련이 있는 경험을 떠올리며 앱이 개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진행자가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리포터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③ 리포터가 진행자의 요청에 따라 앱의 개발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리포터가 앱의 메뉴 구성 및 이용 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각 메뉴를 하나씩 작동해서 시범을 보이고 있다.
- ⑤ 리포터가 앱의 특정 기능과 관련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메뉴의 실행 결과를 화면에 확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23004-0178]

02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다. 시청자들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청자 1’은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과 관련된 설문 자료의 표본 수가 충분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였다.
- ② ‘시청자 2’는 리포터가 추천해 준 앱의 유용성을 질환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 ③ ‘시청자 3’은 리포터가 제시한 앱의 기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였다.
- ④ ‘시청자 1’과 ‘시청자 2’는 리포터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수준이 적절한지 평가하였다.
- ⑤ ‘시청자 1’과 ‘시청자 3’은 앱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23004-0179]

03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메뉴의 매체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글로 표현된 정보뿐 아니라 사진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용자가 복합 양식으로 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정보를 누리 소통망(SNS)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가 얻은 정보를 다른 매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수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병·의원이 지도에 표시된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수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 수용자가 찾은 병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앱의 기능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수용자가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접근 인증 절차를 거치면 수용자도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004-0180]

0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별’을 활용해 질환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주는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를’을 활용해 질환에 따라 연결되는 의사가 달라져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는’을 활용해 앱의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에도 사용자에게 도움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어지-’를 활용해 앱이 개발된 사실을 드러내지만 앱을 만든 주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⑤ ‘-기’를 활용해 환자와 의사의 말을 직접 드러내어 성과에 초점을 두게 하고 있다.

[01~04] (가)는 종이로 된 학교 신문 기사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학생이 만든 카드 뉴스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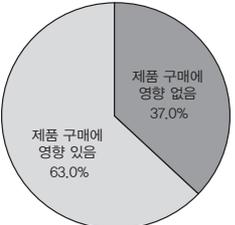
ESG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 크게 늘어

최근 ESG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한 지배 구조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업의 경영 방침을 말한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최근에는 ESG 경영 여부가 투자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식품(대표 김△△)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아이스 팩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방향제를 본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은 버려지는 아이스 팩을 재활용하기 위해 작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방향제 연구를 시작하여 올해 성공을 거두었다. ㉡○○식품은 이렇게 개발한 재활용 방향제를 올해 초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학교, 그리고 공공 도서관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무상으로 기부하여 ㉢사회적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를 계기로 ㉣○○식품에 대한 기업 이미지가 20%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대표인 김△△ 씨는 “㉤재활용 방향제 개발 및 제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투명 경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큰 부담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엄청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었고 사회적 나눔까지 실천할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했다.

최근 많은 소비자가 ESG 경영의 취지에 크게 공감하면서 ESG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식품의 기부 소식을 접한 본교 학생들도 ESG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하겠다고 했다.

(나)

카드 1	카드 2						
<div data-bbox="266 333 603 774">  <p>ESG 경영은 무엇을 말하나요?</p>  <p>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한 지배 구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p> </div>	<div data-bbox="838 333 1176 774">  <p>ESG 경영은 왜 중요한가요?</p> <p>“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면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 ▽ 경영 대학 박 ◊ ◊ 교수 ”</p> </div>						
카드 3	카드 4						
<div data-bbox="266 852 603 1303">  <p>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떤가요?</p> <p>ESG 경영이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p>  <table border="1"> <thead> <tr> <th>영향</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제품 구매에 영향 있음</td> <td>63.0%</td> </tr> <tr> <td>제품 구매에 영향 없음</td> <td>37.0%</td> </tr> </tbody> </table> <p>출처: □□ 소비자 연구원</p> </div>	영향	비율	제품 구매에 영향 있음	63.0%	제품 구매에 영향 없음	37.0%	<div data-bbox="838 852 1176 1303"> <p>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우리도 응원할게요</p>  </div>
영향	비율						
제품 구매에 영향 있음	63.0%						
제품 구매에 영향 없음	37.0%						

[23004-0181]

01 (가)와 (나)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정보에 대한 작성자의 평가가 잘 드러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② (가)는 수용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해 정보의 유용성을 점검해야 한다.
- ③ (나)에는 작성자의 주장이 나열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인용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인용한 말의 출처를 잘 밝혔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설문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작성자의 설문 조사 과정이 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3004-0182]

02 (나)를 제작한 학생이 계획 단계에서 구상한 내용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카드 1: (가)에서 언급한 ESG의 핵심 요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임을 보여 주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이미지를 사용해 표현해야겠군.
- ② 카드 2: (가)에서 언급한 ESG 경영의 중요성이 ESG 경영의 개념 형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카드 1’의 내용과 인과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해야겠군.
- ③ 카드 3: (가)에서 언급한 ESG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제시해야겠군.
- ④ 카드 4: (가)에서 언급한 ESG 경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부각하기 위해, 학생 반응과 관련된 언어와 이미지를 함께 사용해 표현해야겠군.
- ⑤ 카드 1~3: (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문문 형식으로 제목을 달아야겠군.

[23004-0183]

03 다음의 '카드 뉴스 보완 방향'을 고려할 때, '카드 A'와 '카드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카드 뉴스 보완 방향: ESG 경영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나)에 카드 추가

카드 A			카드 B	
<p>ESG 경영을 평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p> 			<p>ESG 경영이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되나요?</p> 	
<p>E 환경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 대기 및 수질 오염 생물의 다양성 삼림 벌채 에너지 효율 폐기물 관리 물 부족 	<p>S 사회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성별 및 다양성 직원 참여 지역 사회 관계 인권 노동 기준 	<p>G 지배 구조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구성 감사 위원회 구조 노동 및 부패 임원 보상 로비 정치 기부금 내부 고발자 제도 	<p>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에 ESG 요소 반영</p>	<p>기업 투자 유치에 ESG 공시 의무화 추진</p>

- ① (나)에서 ESG 기업의 경영을 평가하는 요소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 요소를 제시한다.
- ② (나)에서 ESG 경영이 기후 변화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카드 A'를 활용하여 그 이유를 밝혀 준다.
- ③ (나)에서 ESG 경영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ESG 경영이 기업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 ④ (나)에서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정부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 ⑤ (나)에서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제시했으므로 '카드 B'를 활용하여 이 관심이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23004-0184]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연결 어미 '-으나'를 사용하여 '과거'와 '최근'의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이렇게'를 사용하여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킴으로써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 ③ ㉢: '-고 있다'의 구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나눔'의 실천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조사사 '나'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 자료'의 결과를 어렵잡아 제시하고 있다.
- ⑤ ㉤: 부사 '및'을 사용하여 '개발'과 '제작'이라는 두 행위를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01~04] (가)는 웹툰 동아리 학생들이 온라인 화상 회의에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이 실린 누리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윤빈 ▶ 교장 선생님께서 요청한 웹툰 제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자.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회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온라인으로도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어서 좋네. 우선 교장 선생님께 받은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보낼게.

[전달] 웹툰 동아리 회원들에게
 최근 우리 지역에 난 큰 산불을 진화하느라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 학교에서 감사 전달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웹툰 동아리에서 이와 관련된 웹툰을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서 ▶ 한 달 동안이나 ㉠ 산불을 진화하느라 고생하신 소방대원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컸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런 캠페인을 한다니 우리도 열심히 힘을 보태자.

주원 ▶ 나도 좋다고 생각해.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으면 피해가 훨씬 컸을 거야. 그럼 우리 홍보 웹툰을 제작하기로 하자. 그런데 민서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려. ㉡ 오디오 볼륨을 조금만 높여 줄래?

민서 ▶ 어때? 지금은 잘 들려?

주원 ▶ 응. 이제 잘 들려.

민서 ▶ 웹툰을 모두 6개 정도의 장면으로 구성하고 각 장면마다 번호를 붙이도록 하자.

주원 ▶ ㉢ 그래. 6개의 장면으로 구성하면 좋을 듯해. 시작 장면은 산불과 맞서 싸우는 소방대원의 모습을 보여 주고, 그다음에는 지쳐 있는 소방대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겠어.

민서 ▶ 마지막에는 ‘감사 전달 캠페인’으로 힘을 얻고 표정이 밝아진 소방대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주원 ▶ 불을 끄느라 지친 한 소방대원의 모습을 부각해서 보여 주도록 하자. 반면에 마지막 장면은 여러 소방대원들이 함께 등장하도록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 그분들의 속마음을 그림 옆에 자막으로 표현하되, 핵심 단어가 강조되도록 하자.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감사’는 어떻게 표현하지?

윤빈 ▶ 그건 하트를 나타내는 손 모양 안에 ‘감사’라는 글자를 넣어 표현하면 어떨까?

민서 ▶ 좋은 생각인데. 그리고 캠페인을 하는 우리의 마음도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하니까 학생들의 마음을 말풍선에 담아 표현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 캠페인은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니까 우리 웹툰에서도 독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

윤빈 ▶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민서 ▶ 웹툰 중 일부 칸을 비워 놓고 독자들이 자신이 찍은 하트 손 모양 사진을 직접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주원 ▶ 아주 좋은 생각이야. ㉤ 그런데 그런 기능이 가능해?

민서 ▶ 내가 전에 봤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영상인데, 여기에 그 기능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내가 ‘발표하기’ 기능으로 영상을 공유해 볼게. 이 영상부터 먼저 보고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자.

+

전송

(나)

#1 “우리마저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은 잠시 내려 놓습니다.”

#2 “그렇지만 우리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3

여러분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4

감사합니다

#5

소방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접 참여해 주세요. [하트 손 모양 사진 파일 올리기]

#6

여러분 덕분에 다시 힘이 납니다.

[댓글]

몽클이: 산불 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소방대원 파이팅! 그림이 정말 멋있고 감동적이에요. 웹툰 동아리도 파이팅!

↳ 윤빈: ㅎㅎ 그림 그리느라 힘들었는데 보람이 있네요. 감사. ^^

↳ 몽클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마스크맨: 손 하트 올립니다. 아이디어

↳ 민서: 손 하트 올려 주셔서 감사!

↳ 마스크맨: ㅋㅋ 내 친구들도 모두 올리라고 할게요.

[23004-0185]

01 (가)의 매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웹툰 요청자가 보낸 문자를 그대로 회의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 ② 회의 참여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오디오의 음량을 즉각 조절할 수 있다.
- ③ 회의 참여자들이 한 공간에 모이지 않고도 얼굴을 보며 회의를 할 수 있다.
- ④ 웹툰 제작에 필요한 기능을 회의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미리 실행해 볼 수 있다.
- ⑤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 참여자들이 하나의 동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있다.

[23004-0186]

02 (가)에서 논의한 결과가 (나)에 실제로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사 전달 캠페인’의 의도가 드러나도록 이러한 의미를 함축한 손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 ② 독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웹툰에 첨부할 수 있게 하여 독자가 웹툰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소방대원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학생들의 마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말풍선을 사용하였다.
- ④ 공동체의 가치가 강조될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소방대원의 모습과 여럿이 함께 있는 소방대원의 모습을 대비하여 표현하였다.
- ⑤ 소방대원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심정을 표현한 문장 중 일부 단어는 글꼴을 다르게 하여 표현하였다.

[23004-0187]

03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글 자음자로 된 기호를 활용한 대화를 통해 독자에게 다량의 정보가 압축적으로 전달되고 있군.
- ② 독자와 웹툰 제작자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대화 당사자만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교환되고 있군.
- ③ 독자와 웹툰 제작자 사이의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화제가 웹툰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확장되고 있군.
- ④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와 웹툰 제작자 사이의 상호 작용이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군.
- ⑤ 독자와 웹툰 제작자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군.

[23004-0188]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소방대원’에 대한 존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의문형 종결 어미 ‘-르래’를 통해 상대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
- ③ ㉢: 보조 용언 ‘듯하다’를 통해 ‘장면’ 구성에 대해 상대와는 다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연결 어미 ‘-되’를 통해 ‘자막’에 ‘핵심 단어’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세부 사항을 덧붙이고 있다.
- ⑤ ㉤: 접속 부사 ‘그런데’를 통해 상대의 발언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능특강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실전 학습

3부

[23004-0189]

01 <보기>의 [활동]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활동] 다음 제시된 가사를 표준 발음으로 읽어 보며, ㉠~㉣에 대해 설명해 보자.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
 [백두사니] [달토록] [높꼬]

- ① ㉠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전의 음운의 전체 개수는 9개이다.
- ② ㉡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후의 음운의 전체 개수가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든다.
- ③ ㉢에서는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모두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과 ㉢에서는 공통적으로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23004-0190]

02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접칼’(접- + 칼), ‘뉘밥’(뉘- + 밥), ‘쭈쇠’(쭈- + 쇠)

- ① 어근의 뒤에 접미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② 어근의 앞에 접두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③ 용언 어간에 명사가 직접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④ 용언의 관형사형에 명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⑤ 비자립적 어근에 명사가 직접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

[23004-0191]

03 <보기>를 참고할 때, 제시된 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약이 쓰다.’에서 ‘쓰다’는 ‘쓰고’, ‘쓰니’를 볼 때, 활용하면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겠군.
- ② ‘언니가 웃다.’에서 ‘웃다’는 서술의 기능을 하는 용언이면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겠군.
- ③ ‘형이 너를 보았다.’에서 ‘이’와 ‘를’은 모두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관계언이겠군.
- ④ ‘여기에 큰 인형이 있다.’에서 ‘큰’은 뒤에 오는 ‘인형’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면서 관형사이겠군.
- ⑤ ‘앗! 뜨거워.’에서 ‘앗’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면서 놀람의 의미를 나타내는 감탄사이겠군.

[04~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가령 비가 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답을 요구하는 ‘밖에 비가 오니?’는 판정 의문문이다. 그리고 설명 의문문은 듣는 이에게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으로, 대개 ‘언제’, ‘누구’, ‘무엇’ 등의 의문 대명사가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대답을 요구하는 ‘언제부터 비가 내렸니?’는 설명 의문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사 의문문은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서 서술, 명령, 감탄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안다는 의도로 ‘누가 그 사실을 모르겠어?’라고 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A] 현대 국어에서처럼 중세 국어에서도 의문문은 존재하였는데, 판정 의문문은 ‘-녀’, ‘-려’ 등의 의문형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가/아’에 의해 실현되었다. 그리고 설명 의문문은 ‘-뇨’, ‘-료’ 등의 의문형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에 의해 실현되었다. 예를 들어 ‘저므며 늘구미 잇느녀(짧으며 늙음이 있느냐?)’는 의문형 종결 어미 ‘-녀’가 결합된 판정 의문문이고, ‘이 엇던 사름고(이 어떤 사람인가?)’는 의문 보조사 ‘고’가 결합된 설명 의문문이다.

04 [23004-0192] 윗글을 통해 <보기>의 ㉠~㉣을 분류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의사: (아랫배가 아픈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여기가 아파요?
환자: 예, 맞아요. (아랫배가 아픈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 무엇 때문에 아랫배가 아픈 건가요?
의사: 글썄요.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기 위해) ㉢ 아랫배가 언제부터 아팠지요?
환자: (불안한 표정으로) 오늘 아침부터요.
의사: (어제저녁에 식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어제저녁에 식사했어요?
환자: 예, 식사를 하긴 했지만, (어제저녁에 특별한 것을 먹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 제가 뭐 특별한 걸 먹었겠습니까?
의사: 흠. 정밀 검사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05 [23004-0193] [A]를 근거로 할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을 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보기

㉠ 이 썩리 너희 종가(이 딸이 너희의 종인가?)
㉡ 으슴 마를 니르느뇨(무슨 말을 이르는가?)

자료	의문문의 종류	의문문의 실현 방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①
㉡	<input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②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③
㉣	<input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④
㉤	<input type="checkbox"/> 판정 의문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명 의문문	<input type="checkbox"/> 의문형 종결 어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문 보조사⑤

[23004-0194]

06 <보기>의 [활동]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활동] 다음 광고의 ㉠에 활용된 언어적 표현을 탐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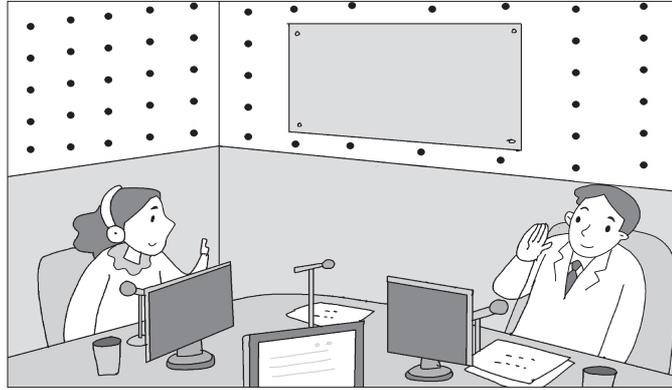
<p>1</p> <p>위장을 하고 수색을 하는 군인</p>		<p>[자막] 나는 군인입니다.</p>	<p>6</p> <p>방독면을 벗는 소방관</p>		<p>밝은 분위기로 전환되는 음악</p>
<p>2</p> <p>마스크를 쓰고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p>		<p>[자막] 나는 간호사입니다.</p>	<p>7</p> <p>경례하는 군인</p>		<p>[내레이션/자막] 나는 '여'군이 아닙니다.</p>
<p>3</p> <p>방독면을 쓰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p>		<p>[자막] 나는 소방관입니다.</p>	<p>8</p> <p>손을 흔드는 간호사</p>		<p>[내레이션/자막] 나는 '남'간호사가 아닙니다.</p>
<p>4</p> <p>위장을 지우는 군인</p>		<p>[내레이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p>	<p>9</p> <p>엄지를 세우는 소방관</p>		<p>[내레이션/자막] 나는 '여'소방관이 아닙니다.</p>
<p>5</p> <p>마스크를 벗는 간호사</p>		<p>[내레이션] '성'은 빼고 불러 주세요.</p>	<p>10</p> <p>자막과 로고 등장 후, END</p>		<p>[내레이션/자막] ㉠ <u>우리의 성(性)은 다르지만 우리의 이름은 같습니다.</u></p>

출처: 공익광고협의회

- ① 부정 부사를 활용하여 성차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성차별을 일삼는 주체를 숨기고 있다.
- ③ 반의어를 활용하여 직업에 대한 성(性) 고정 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성(性)과 이름을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안은문장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07~09] (가)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만든 포스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프로그램은 라디오를 통해 귀로 청취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눈과 귀로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 출신으로 대나무 칫솔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떤 계기로 의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김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치과 의사를 하면서 우연히 △△ 지역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빈곤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진행자: ㉠ 혹시 시청자들 중에서 대나무 칫솔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사진을 찍어 누리집에 올려 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이 대나무 칫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창업 아이템으로 대나무 칫솔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 대표: △△ 지역에 대나무밭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과 빈곤 지역이 어느 정도 겹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들 지역의 대나무를 소득 자원으로 만들어 준다면 현지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나무 칫솔은 플라스틱 칫솔과 달리 환경 문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나무 칫솔 사업은 그야말로 소셜 임팩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진행자: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소셜 임팩트에 대한 의미가 화면 하단에 글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소셜 임팩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대표님,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비가 있었을 텐데요, 무엇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예전에 중국산 대나무 칫솔을 본 적이 있는데 플라스틱 칫솔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무래도 대나무 자재가 플라스틱보다 비싸서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대표: 예전에 중국에서 대나무 칫솔을 만드는 걸 보니 칫솔의 모를 심는 식도 과정에서 불량률이 심해 2개를 만들면 1개를 버려야 하는 수준이었고 곱팡이도 잘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대나무 칫솔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핫 프레싱 기술을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 방금 시청자께서 채팅으로 대나무가 플라스틱보다 더 싸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체 가격 자체로는 플라스틱보다 대나무가 싸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는 과정에서 불량률이 많이 만들어져 대나무 칫솔이 더 비쌌던 것입니다.

진행자: 시·청취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표님, 핫 프레싱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대표: 쉽게 말하면 핫 프레싱 기술은 고온 압축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칫솔모의 밀도가 높아져서 모가 잘 빠지지 않고, 대나무 내부의 당이 표면으로 빠져나오면서 자동으로 코팅되기 때문에 곱팡이가 생기는 걸 막아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규격화가 가능해져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나무가 플라스틱보다 저렴하고 게다가 폐기물 부담금까지 고려한다면 대나무 칫솔이 플라스틱 칫솔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시청자께서 인터넷 누리집에 다양한 색깔의 대나무 칫솔이 있는 사진을 올려 주셨는데 매우 예뻐합니다. ㉡ 청취하는 분들을 위해 누리집에 이 사진을 게시해 놓을 테니 방송 후에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 대표: 우리는 기존의 플라스틱 칫솔 회사들이 더는 플라스틱 칫솔을 만들 필요가 없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플라스틱 칫솔 회사들이 대나무로 칫솔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구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빈자를 도움으로써 소셜 임팩트를 극대화하고 싶습니다. 다만 대나무 칫솔 역시 대나무를 잘라서 만들기 때문에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림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 누리집에 대나무 칫솔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링크를 하나 남길 테니 혹 궁금한 점이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시·청취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김 대표: 소셜 임팩트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과 지구 환경을 소셜 임팩트의 소재로 선택했지만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소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 누리집 주소를 남길 테니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전문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소셜 임팩트 기업을 만들 수도 있지만, 회사나 대학, 혹은 중·고등학교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 임팩트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소셜 임팩트 기업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음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 고등학교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

지구환경 + 사회적약자
(빈자, 노인, 아동, 장애인)



동아리가입방법
누리집 주소 및 QR 코드
◇◇.hs.kr



우리의 소셜 임팩트 기업을 함께 만들어요,
□□고 여러분!

[23004-0195]

0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인터넷으로 접속한 시청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지 않은 청취자를 위해 시청자에게 제시했던 정보를 다시 제공하고 있다.
- ③ ㉢은 인터넷으로 접속한 시청자로부터 정보를 수용하여 자신이 앞서 잘못 제공한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 ④ ㉣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지 않은 청취자가 특정 정보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지 않은 청취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004-0196]

08 (가)를 바탕으로 (나)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김 대표’가 언급한 소셜 임팩트의 다양한 소재와 관련하여,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정보를 구체화하고 있군.
- ② (가)에서 ‘김 대표’가 제시한 회사 누리집 주소와 관련하여, 누리집 주소와 함께 QR 코드를 제시하여 누리집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 주고 있군.
- ③ (가)에서 ‘진행자’가 언급한 소셜 임팩트 기업의 창업 주체자와 관련하여, ‘□□ 고등학교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라고 하여 정보 제공자를 명시하고 있군.
- ④ (가)에서 ‘김 대표’가 추구하는 소셜 임팩트와 관련하여, 덧셈을 의미하는 기호인 더하기 표와 손으로 떠받치는 모양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⑤ (가)에서 ‘진행자’가 언급한 소셜 임팩트 기업의 창업 동참자와 관련하여, ‘□□고 여러분’이라고 창업에 동참할 대상자를 제시하여 정보 수용자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군.

[23004-0197]

09

다음은 (가)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청자 게시판]

시청자 1: 현재 전 지구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나무 칫솔 기업에 대한 방송은 지금의 사회적 요구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시청자 2: 기본적으로 기업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게 마련인데, 소셜 임팩트는 기업이 추구해야 할 긍정적 영향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시청자 3: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지수가 있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소셜 임팩트가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시청자 4: 핫 프레싱 기술을 이용하여 대나무 칫솔의 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졌다고 하니, 소비자들이 대나무 칫솔을 충분히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5: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앞으로 그 부담금은 계속해서 더 커질 거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앞으로 플라스틱 칫솔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 ① ‘시청자 1’은 대나무 칫솔이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프로그램의 시의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② ‘시청자 2’는 소셜 임팩트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해, 대나무 칫솔 기업의 사회적 필요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③ ‘시청자 3’은 소셜 임팩트와 유사한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해, 프로그램 내용의 공정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④ ‘시청자 4’는 소비자들이 대나무 칫솔을 충분히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소비자들의 사용 가능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 ⑤ ‘시청자 5’는 플라스틱의 폐기물 부담금이 계속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플라스틱 칫솔의 지속 가능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10~11] 다음은 인터넷에서 열람한 지역 신문사의 웹 페이지 화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시민 신문

동남권에 복합 문화 센터 개관한다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 소통 공간으로 기대

20××. 04. 10. 06:17:16 최초 작성 / 20××. 04. 11. 08:11:16 수정 [본문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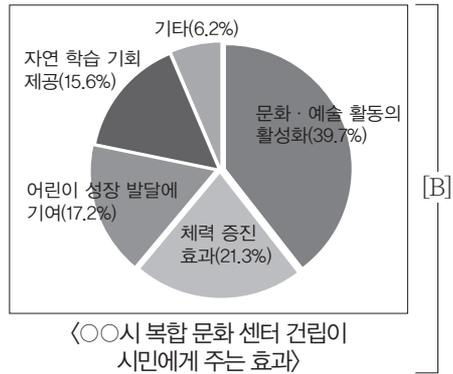
[A]

지역	개수
서북권	4개
서남권	3개
동북권	3개
동남권	2개

○○시는 다음 달 1일 동남권에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인 '▽▽ 복합 문화 센터'를 개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복합 문화 센터의 건립에는 약 2년의 공사 기간이 걸렸다. 이번 복합 문화 센터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재활용 센터 부지를 새롭게 조성한 것이다. 동남권은 복합 문화 센터가 2개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합 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복합 문화 센터의 실외에는 공원을, 1층에는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2층에는 체육관을, 3층에는 북 카페를, 4층에는 기획 전시실을 조성하였다. 공원은 생태 학습 공간을 겸비한 친환경적 공원으로 조성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주고,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4~12세 아동들을 위한 공간인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는 정글짐, 트램펄린, 쿠션 슬라이드, 터치 패드 등의 기구들을 설치해 어린이의 성장 발달을 돕는 놀이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체육관에는 탁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민의 체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약 10,000권의 도서를 비치한 북 카페는 독서와 사색은 물론, 커피나 음료 등을 마시면서 쉬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획 전시실에는 지역 예술인, 청소년, 동아리원 등의 작품을 전시해서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대해 모든 시민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시민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대 김☆☆ 교수는 “복합 문화 센터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문화 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복합 문화 센터를 촘촘히 확충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은 지역 간 문화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시민 신문 박△△ 기자

👍 좋아요(213) 👎 싫어요(3) ➦ SNS에 공유 📄 스크랩

[관련 기사](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

- ▶ [우리 ○○시 재활용 센터 부지 복합 문화 센터로... 인근 시민들, “유휴 시설로 방치되어 골칫거리”](#)
- ▶ [\[◇◇◇ 교수의 문화 에세이\] 지역에 복합 문화 센터가 있어야 하는 이유](#)

[댓글]

- 까만돌: 복합 문화 센터가 새로 생긴다니 반갑네요.
- ↳ 가고파: 가족과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 까만돌: 책도 읽고, 놀기도 하고, 자연을 배우기도 할 수 있으니, 각자의 취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

[23004-0198]

위 화면을 통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사를 누리 소통망(SNS)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 수용자는 기사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겠군.
- ②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수용자는 기사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기사와 연관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으니, 수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기사에 대해 본문 듣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니, 수용자는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청각을 통해서도 수용할 수 있겠군.
- ⑤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이 숫자로 제시되어 있으니, 수용자는 기사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선호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11

[23004-0199]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지역 간 분리되어 있는 복합 문화 센터를 연결할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B]는 복합 문화 센터의 건립이 특정 지역에 가져다줄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② [A]는 지역 간 복합 문화 센터의 수가 불균형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B]는 복합 문화 센터의 건립에 대해 모든 시민이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③ [A]는 특정 지역에 복합 문화 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주기 위해, [B]는 복합 문화 센터의 건립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④ [A]는 도시 전체에서 복합 문화 센터의 건립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기 위해, [B]는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⑤ [A]는 특정 지역에서 복합 문화 센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해, [B]는 복합 문화 센터 건립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23004-0200]

01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종성에 자음이 두 개 놓일 때 그중 하나를 탈락시키는 음운 현상이다. 우리말은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된다. 그렇기 때문에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또한 ㉠ 형태소끼리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는 경우에도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 ① 없 + 고 → [업:꼬]
- ② 앉 + 지 → [알치]
- ③ 었 + 는 → [언는]
- ④ 삼 + 만 → [삼:만]
- ⑤ 꿔 + 는 → [끌른]

[23004-0201]

02 밑줄 친 말이 <보기>의 ㉠, ㉡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접미사의 문법적 특징]

- 용언과 결합하여 새로운 용언의 어간을 만든다.
예 '깨-' + '-우-' → '깨우-'
- 용언과 결합하여 품사를 바꾼다. ㉠
예 '웃-' + '-음' → '웃음'
- 용언과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더한다. ㉡
예 '익-' + '-히-' → '익히다'
- 용언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더한다.
예 '쫓-' + '-기-' → '쫓기다'

- ① 쌀에 돌이 많이 섞여 있다.
- ② 나는 얼결에 떠밀려 밖으로 나갔다.
- ③ 그는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불혔다.
- ④ 싱그러운 봄나물이 입맛을 다시 돋우었다.
- ⑤ 우리는 학급 대항 달리기 시합에 출전하였다.

[23004-0202]

03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두 절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의미상으로 대등하게 독립적입니다. 또한 선행절이 후행절의 특정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대등하게 독립해 있어요. 그런데 선행절과 후행절은 대체로 주어나 부사어 등의 문장 성분, 시제, 높임 등의 선어말 어미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에서 부사어 ‘지금’은 선행절 ‘비가 오-’와 후행절 ‘바람이 분-’ 모두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두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 ㄱ. 남녘에는 꽃봉오리가 피고 새싹이 돋겠다.
 ㄴ. 지금은 비가 오지만 내일은 눈이 올 것이다.

- ① ㄱ은 연결 어미 ‘-고’에 의해, ㄴ은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두 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② ㄱ의 부사어 ‘남녘에는’은 ‘꽃봉오리가 피-’와 ‘새싹이 돋-’ 모두에 걸려 있습니다.
 ③ ㄱ의 ‘돋겠다’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꽃봉오리가 피-’와 ‘새싹이 돋-’ 모두에 걸려 있습니다.
 ④ ㄴ은 동일한 형식을 가진 두 절이 구조적으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⑤ ㄴ의 ‘올’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르’은 ‘비가 오-’와 ‘눈이 오-’ 모두에 걸려 있습니다.

[23004-0203]

04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학습 활동]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그런데 서술어 중에는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아래 자료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같은 것만을 찾아서 묶어 보자.

[자료]

- | | |
|---|---|
| <p>㉠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 형은 커서 의사가 되었다.
 ㉢ 그는 정직을 신조로 삼았다.</p> | <p>㉣ 나는 친구에게 뒷일을 부탁했다.
 ㉤ 그 고장은 뺀어난 경치로 유명했다.
 ㉥ 둥근 보름달이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p>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

[23004-0204]

05 <보기>를 참조할 때, 제시된 언어 자료의 ㉠과 ㉡에 들어갈 형태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현대 국어에서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가 ‘-(으)ㄴ’으로 같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음’이 구별된다. 이 접미사나 어미가 결합할 때는, 어근이나 용언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따라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 날로 便便安안키 흥고져 [날마다 씬에 편하게 하고자] (← ‘쁘다’)
- 꽃 도쿄 하느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 ‘열다’)

	㉠	㉡
①	쁘메	여름
②	쁘메	여름
③	뿌메	여름
④	뿌메	여름
⑤	쁘메	여름

[06~08] 다음은 ‘산불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신문 기사를 다루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동해안 일대에 초대형 산불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산불은 213시간 동안이나 지속되는 바람에 역대 최장 시간이라는 안타까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을 합하면 피해 지역이 서울 면적의 41.2%에 이릅니다.



진행자: 그래서 최근 각 신문마다 산불 관련 특집 기사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먼저 ×월 ×일자 ○○ 신문에는 「대형 산불은 4월」 공식 깨져... 대응도 달라져야 라는 표제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4월에 산불이 발생했었나요?

전문가: 그렇습니다. 그간 산불은 3월 말에 시작해 4~5월까지 이어지며 발생하곤 했는데, 올해는 그 시기가 한 달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산불은 4월’이라는 공식이 깨진 것인데, 이는 산불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이번 산불 진화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이러한 패턴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 신문에다 나와 있듯이 앞으로는 산불 예측과 예방을 겨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4월 5일 식목일을 3월 초·중순으로 앞당기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재 요인을 제거하며 숲을 잘 가꾸는 것도 산불 예방의 중요한 방법인데,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3월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 산불을 중대 재난으로 인식하고 산림청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산불 원인 중 33.3%를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수로 인한 불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진행자: 나라 전체가 산불 예방과 감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한 복구도 시급할 텐데, 현재의 산림 관리 체계는 문제가 없나요?

전문가: 네, 같은 날짜 □□ 신문의 특집을 보시면, 산림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산림은 1970년대 대대적인 녹화 계획 이후 산림을 푸르게 복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후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떻게 가꿀지, 시간과 장소별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우리 산림은 대부분 40~50년생이라 아직은 더 잘 가꾸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수익성, 환경

및 기후 변화,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 산림의 미래상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산림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진행자: 네, 그렇군요. 이제 다른 신문의 기사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 신문인데요, 산불 감시 및 대응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의 하단에는 산불을 감시할 수 있고 산불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앱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 신문

‘산불 감시 및 대응 앱’의 ㉠ ‘첫 화면’에는 고정된 네 가지 메뉴가 있고, ‘산불 위험도’ 메뉴에 표현된 숫자와 기호로 자신이 있는 곳의 현재 산불 위험 정도 및 산불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 ‘산불 위험도’ 메뉴를 누르면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시간대별 산불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 ‘산불 감시’ 메뉴는 지도 앱과 연동되어 있어 권역별로 구분된 CCTV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에 산불 위험 요소가 없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산불 예방 및 신고’ 메뉴에서는 산불 예방 생활 수칙, 산불 발견 시 신고처와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잘못된 정보는 신고 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이용자 게시판’ 메뉴에는 공유하고 싶은 정보를 자유롭게 글로 올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



산불 감시 및 대응 앱

25%
산불 위험도

산불 감시

산불 예방 및 신고

이용자 게시판

진행자: 산불 예방 및 신고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앱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청자 게시판을 보시겠습니다.

[23004-0205]

06 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행자가 ○○ 신문의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다룬 화제를 소개하고 있군.
- ② 전문가가 □□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의 설명을 보충하며 답변하고 있군.
- ③ 전문가가 동일한 화제를 다룬 서로 다른 신문 기사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현상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군.
- ④ 진행자가 ○○ 신문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전문가에게 질문함으로써 △△ 신문의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군.
- ⑤ 진행자가 △△ 신문 기사의 일부를 화면에 소개함으로써 신문 기사의 특정 부분을 방송에서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군.

[23004-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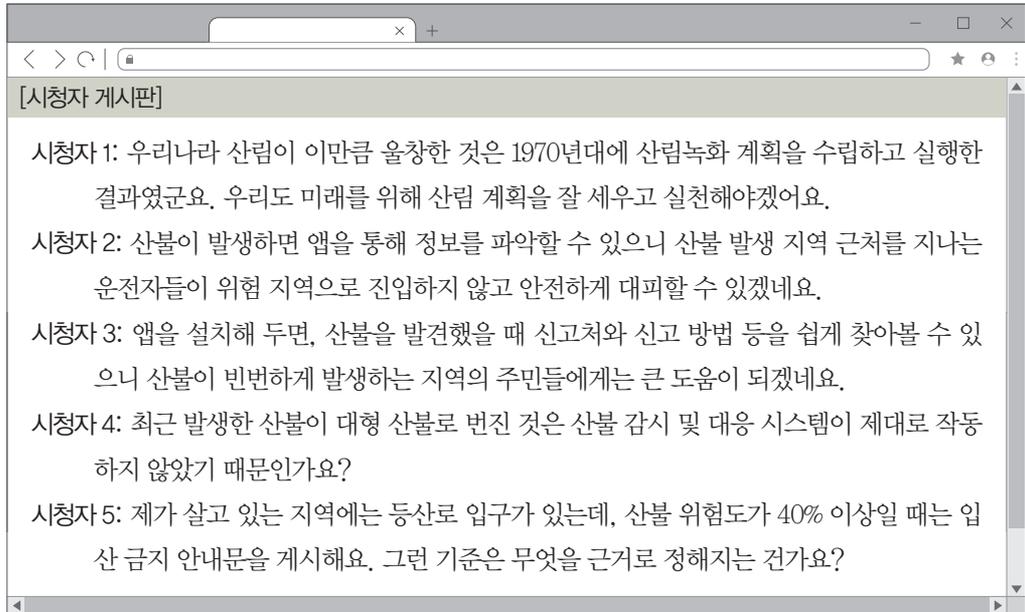
07 ‘△△ 신문’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실시간 산불 위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앱을 이용하는 위치와 시각에 따라 다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지역, 시간 등의 범주별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가 제공하는 매체 자료를 수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지역을 선택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용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생산자에게 알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이 글을 쓸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매체 자료의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004-0207]

08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청자 1’과 ‘시청자 4’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산불 대응에 대한 정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 어떻게 다른지 점검하였다.
- ② ‘시청자 1’과 ‘시청자 5’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 ③ ‘시청자 2’와 ‘시청자 3’은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④ ‘시청자 2’와 ‘시청자 4’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산불 대응 시스템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 중 수정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하였다.
- ⑤ ‘시청자 3’과 ‘시청자 5’는 □□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산불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09~11] (가)는 학생의 개인 블로그이고, (나)는 발표를 위해 (가)를 참고하여 만든 스토리보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불을 켜고 잠을 자도 될까요?



㉠ 불을 켜 채로 잠을 자도 괜찮을까?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불을 끄고 자는 게 좋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를 둔 가정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수면 환경이 밝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밝은 수면 환경은 비만을 유발하고 당뇨병의 발병률을 높인다. 조명 아래에서는 혈액 내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당뇨병 유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 뇌 기능도 저하될 수 있다. 국내 유명 대학의 정신 건강 의학과 연구 팀은 젊은 남성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자는 동안 물체를 겨우 인식하는 수준인 10럭스 정도의 빛에 노출되게끔 했는데, 실험 결과, 불빛은 뇌 하부 전두엽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다음 날 작업 능력 저하로 이어졌다.

불을 켜고 자는 것은 눈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눈을 뜨고 있지 않아도 빛을 쬐면 눈의 조절 근육이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눈에 무리를 주어 잠을 자도 피로를 느끼게 된다. 또 ㉢ 눈이 쉽게 건조해지거나 침침해지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 조명을 꼭 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백색광이나 청색광보다 호박색이나 빨간색 조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 가로등처럼 외부 조명이 문제라면 암막 커튼으로 가리거나 눈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명뿐만 아니라 TV 등의 전자 기기도 유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잠을 잘 때에는 꺼 두어야 한다.



(나)

	화면 설명	화면	내레이션 및 음향 효과
#1	그림이 나타나고, 이어서 아래쪽으로 내용이 제시됨.	 <p>불을 켜 놓고... TV도 켜 놓고...</p>	<p>잠을 잘 때 켜 놓은 조명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p> <p>[효과음] TV 소리</p>
#2	내레이션 설명에 맞춰 성장 방해 과정이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남.	<p>멜라토닌 생성 억제</p> <p>↓</p> <p>성장 호르몬 분비 억제</p> <p>↓</p> <p>어린이 성장 방해</p>	<p>성장기 어린이들의 경우, 무섭다며 불을 켜 채로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p>
#3	침대·조명 그림이 가운데 있고, 왼쪽의 내용과 기호가 먼저, 오른쪽 내용과 기호가 나중에 나타남.	 <p>(인체기능 약화) (발병 확률 증가)</p> <p>뇌기능 ▼ 비만 ▲</p> <p>눈건강 ▼ 당뇨병 ▲</p>	<p>불을 켜고 자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눈 건강도 안 좋아지는 등 인체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반면 비만과 당뇨병이 생길 확률은 높아진다고 하네요.</p>
#4	제목이 제시된 후, 각 항목의 내용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나타남.	<p>[잠을 잘 때 지켜야 할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 끄기 • TV, 전자 기기 끄기 • 조명 필요할 땐, 호박색, 빨간색 • 암막 커튼, 눈가리개의 적절한 사용 	<p>앞으로는 잠잘 때 반드시 불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에 들 때, 지금 화면에 제시되는 항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p>

[23004-0208]

09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불을 켜 채로 잠을 잘 때 일어나는 호르몬의 작용을 동영상에 활용하여 보여 주었다.
- ② 불을 켜고 잠을 자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의 질병 발병률을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 ③ 빛에 노출된 채 잠을 자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을 비유적인 그림을 활용하여 강조하였다.
- ④ 불을 켜 놓고 잠자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부각하였다.
- ⑤ 상황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는 게시물을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하였다.

[23004-0209]

10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좋지 않은 수면 환경을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한 화면으로 보여 주고 내레이션으로 설명해야지.
- ②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에서 제시한 어린이 성장이 방해받는 과정을 인과 관계에 따라 순서대로 제시해야지.
- ③ 정보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가)에서 여러 문단에 걸쳐 제시한 인체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들을 구조화하여 하나의 화면에 집약적으로 나타내야지.
- ④ 정보가 보강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전자 기기로 인한 영향이 조명으로 인한 영향과 어떻게 다른지 조사하여 추가해야지.
- ⑤ 정보를 기억하기 용이하도록 (가)에서 제시한 잠을 잘 때 지켜야 하는 내용들을 항목화하여 일목요연하게 화면에 제시해야지.

[23004-0210]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여 화제가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② ㉡: ‘불을 켜 채로 잠을 자면’과 같은 조건의 뜻을 가진 절이 생략되어 있다.
- ③ ㉢: 연결 어미 ‘-거나’가 쓰여 나열된 내용 간에 인과 관계가 성립됨이 나타나고 있다.
- ④ ㉣: 부사 ‘꼭’과 어미 ‘-라면’이 쓰여 ‘조명을 켜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가정되고 있다.
- ⑤ ㉤: 보조 용언 ‘두다’가 쓰여 ‘전자 기기를 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이 나타나고 있다.

인용 사진 출처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반차도’, 국립중앙박물관	192, 193쪽
‘뉴욕 현대 미술관(MoMA)’, Wikimedia Commons, sajay_suresh	200쪽